

PLAYBOY

ENTERTAINMENT FOR ALL

FEBRUARY 2018 | KOREA

PLAYBOY
INTERVIEW

대니얼 김의
빅 리그

20Q
변칙적 오타키

FICTION

존 오너 제이콥스의
단편소설

〈THE DOMESTIC LIVES OF
SUPERHEROES〉

INTERVIEW CLASSIC

DAVID BOWIE

1976년,
29세의 데이비드 보위는
별에서 왔는가?

SPORT

한국 스포츠 선수
8명의
찰나적 순간



PLAYMATE
OF
THE
MONTH

바다

SWEET VALENTINE

우리의 20세기는 갔다

빨간 머리 애비는 식탁에 얼굴을 파묻은 채 만찬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소년이 흔들여 깨우자 “놔둬, 나 생리 중이야”라고 시니컬하게 말하죠. 남녀노소 초대받은 손님들로 가득한 자리에서, 듣다 못한 호스트이자 소년의 엄마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쏘아붙입니다. “너 생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니?” 그러자 애비는 이 나이 든 여성에게 답답한 어조로 되묻습니다. “생리 중이랑는데, 그게 뭘 대수예요?”

197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우리의 20세기(20th Century Women)>는 지금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삶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공적인 자리나 타인(특히 남성) 앞에서 ‘생리 중’이라는 발언은 금기시되고, 여전히 까만 비닐봉지에 싸여 은밀히 거래되는 생리대, 여성 스스로 ‘생리’라는 단어조차 당당하게 내뱉지 못해 ‘마법’, ‘그날’이라는 흐리멍덩한 말로 대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쩐지 조금도 21세기스럽지 않으니깐요.

최근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또 한 편의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숨기는 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 고민하는 영화 <피의 연대기>입니다. 픽션이 아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감독 김보람은 직접 머리에 고프로 카메라를 달고 자신의 생리혈을 세면대에 흘려보내는 장면까지 여과 없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호평을 받았으나, 감독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답니다. 생리충, 그리고 악플러들은 그에게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죠. “너 생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꼭 영화로 만들어야 해?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울어진 권력 관계가 수평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저 ‘출산의 기능’이나 ‘응시의 대상’이던 여성의 몸이 주체적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고, 여성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이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니까요. 전 세계를 강타한 미투(#MeToo) 캠페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투’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사회적 약자였고, 지금 그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력가들이, 혹은 예술가들이 재산이나 작품으로 자신의 ‘성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는 갔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톱 배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성범죄 대응 단체 타임즈업(Time’s up)의 이름처럼, 그 시대는 ‘끝났다’(Time is up)’는 거죠.

어쩌면 <플레이보이>는 지극히 20세기적인 매거진입니다. 최대의 섹스 심벌 메릴린 먼로를 창간호 표지에 내세우면서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남성들에게 시각적 욕망과 성적 판타지를 심어주었고, 남성지 특유의 시선으로 여성을 물상화해왔으니깐요. 존 버거는 “남성은 보고 여성은 보이려 한다”고 했는데, 이를 가장 노련하게 실천한 매체가 바로 <플레이보이> 아닐까 합니다. 20세기 중반의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일부 여성들은 집에서 설거지나 할 바엔 시선의 객체가 되는 것을 즐겼고, <플레이보이>는 성문화를 바꾼 진보적 브랜드로 이름을 날렸죠. 결국 <플레이보이>의 그 강렬한 이미지와 기억은 ‘본다’는 행위에 충실했던 이성애자 남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트로 제한됩니다.

미국 <플레이보이>가 창간호부터 로고 바로 밑에서 강조해온 슬로건 ‘Entertainment for Men’을 21세기 접어들며 ‘Entertainment for All’로 바꾼 까닭은 분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각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플레이보이>는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는 21세기적 사고와 태도로, 다양한 젠더와 함께 더욱 진보적인 성문화를 이끌어가는 매체가 되어야겠죠. 한국 <플레이보이>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를 생산하는 젊고 감각적인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성을 욕망하고 표현하는 매거진으로서 <플레이보이>의 미래는 ‘퇴행’이 아닌 ‘진보’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 우리의 20세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깐요.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성문화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유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가 아닌, 욕망하는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으로서 <플레이보이>와 함께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겨울의 빛처럼 귀한 독자와 함께하는 2월을 기대하겠습니다.

편집장 김 정 민

**PLAYBOY PICKS**

- 021** 2월, 〈플레이보이〉가 엄선한 10가지 라이프스타일.
- 040** **WORLD OF PLAYBOY**
밤낮없이 궁금한 잡지 〈플레이보이〉의 놀라운 세계.
- 044** **INTIMATE ASTROLOGY FEB×VALENTINE**
별들이 골랐다. 당신의 연인을 뜨겁게 해줄 밸런타인데이 선물.

PLAYBOY TASTES

- 046** **MY WAY JOON LEE**
하드코어 클럽을 드나들다 도라에몽 전시를 보러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드러그 스토어에 가면 과자와 온갖 영양제를 카트에 가득 담는다. 올해 삼성 SFDF 펀드를 수상한 이승준의 브랜드 PLYS 안에서 그렇게 상반된 세계가 충돌한다.
- 048** **PLACE MAISON BACCARAT**
플레이보이는 구매를 위한 아름다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안다. 남산 소월길 초입에 자리 잡은 메종 바카라는 그중 가장 반짝이는 곳이다.
- 050** **WATCH MELTING HEART**
달콤한 시간이 기다려지는 2월, 브레이슬릿 워치와 함께 그 순간 속에 녹아들어볼 것.
- 054** **CAR 전기차 말고 트위지**
지금 이만큼 호기심을 끄는 차가 있을까. 오너와 구매 예정자의 체험을 토대로 본 세컨드 카, 트위지의 정체성 분류.
- 056** **GADGET STAY WITH ME**
당신의 연인을 집에 붙잡아둘 신묘한 제품.
- 058** **ITEM FLYING HIGH**
추운 겨울일수록 무겁고 거추창스러운 것들은 벗어던져라. 플레이보이의 취향을 반영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물건을 모았다.
- 064** **FOOD THE FOREPLAY**
밸런타인데이 다이닝은 좀 아하게 시작해도 좋다. 시각으로 미각을 깨우는 고단백 저칼로리 스타터.
- 068** **SWEETHEART DARK CHOCOLATE**
달콤하고 씹싸름하다.



021

064



040

**PLAYBOY TALKS****078 SEX ISSUE YEAR IN SEX**

정치, 시위, 사생활, 임신까지. 미국 <플레이보이>가 돌아본
힘난했던 2017년의 섹스 풍경을 소개한다.

082 ADVISER AM I A FUCKBOY?

‘픽보이(Fuckboy)’란 말에 상처받은 남자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 구강성교를 싫어하는 여자친구의 성생활이
고민인 사람을 위한 한마디는 어떤 걸까?

084 GENDER 귀를 기울이면

더 듣고 의식하고 생각할수록, ‘진실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Me Too’는 멀리 있지 않다.

086 SEX TURN ON, TURN OFF

사랑을 나눌 때, 제발 불 좀 켜(꺼)주세요.

088 POP-TECH 2018 TECH FORECAST

귀여운 드로이드부터 똑똑한 피임까지,
우리 삶을 바꿀 다섯 가지 아찔한 혁신.

090 ISSUE 평창에 묻는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올림픽이 열린다.
이 대회는 ‘기대할 만한’ 올림픽인가? 그 이모저모를 따져봤다.

092 20Q OTAKI

오타키는 서울에서 가장 실험적인 사운드를 만든다.

096 HER WILD FLOWER

타투이스트 초유는 자유롭다.

104 PLAYBOY INTERVIEW DANIEL KIM

야구해설위원 대니얼 김은 내일보다 오늘을 산다.
그 삶이야말로 야구를 닮았다.

110 SPORT FEATHER WEIGHT

각자의 완벽한 몸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가벼운 순간.

120 PLAYSCENE TRUE COLORS

사진가 은효진이 바라본 색보다 진한 몸.



104



096



**PLAYBOY LOVES****1 2 2****PLAYMATE BADA**

2월의 플레이메이트는 폴댄서 바다다.
기다란 풀을 오르내리는 그녀의 몸짓을 주목하라.

1 3 0**US PLAYMATE MEGAN SAMPERI**

2월의 미국 플레이메이트 메건 삼페리는 당신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안겨줄 준비가 되었다.
당신이 그녀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1 3 8**PLAYGIRL GIRL ON TOP**

다니엘라 보테로는 막 창간한 콜롬비아 <플레이보이>의
첫 번째 커버 모델이다. 해발 고도 1000m의 도시,
칼리에서 태어난 여자가 보는 뉴욕의 마천루는 어떤 인상일까?

1 4 4**PLAYGIFT ROCK ME SWEET**

이번 밸런타인데이엔 누구보다 달콤한
당신의 연인에게 반짝임을 선사하라.



130

144



122



스트랩이 있는 튜브 톱과 V컷 바텀은 DAZE DAYZ.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은 BELL&NOUVEAU 제품. 플랫폼 슈즈는 모델 소장품

**PLAYBOY REMINDS**

- 1 4 6** ARTIST IN RESIDENCE **HWANG SEON TAE**
황선태의 본질이 되는 선과 빛은 가장 단순한 요소로서 '다시 보기'라는 거대한 감각을 들춰낸다.
- 1 5 0** CLASSIC **JUNICHIRO TANIZAKI**
탐미주의자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글로 쓴 깊고 거무스름한 공간.
- 1 5 2** BOOK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해**
조해진의 소설 〈빛의 호위〉에서 느끼게 발견한 차가운 친절의 힘과 빛.
- 1 5 4** CARTOON **IS THIS GUY FOR REAL?**
코미디언이자 행위예술가인 앤디 카우프먼과 1981년 9월호 플레이메이트인 수잔 스미스의 레슬링 매치가 열렸다.
- 1 5 8** FICTION
THE DOMESTIC LIVES OF SUPERHEROES
피트는 평범한 남자지만,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인지 모른다.
- 1 6 4** INTERVIEW CLASSIC **DAVID BOWIE**
관능적 패션과 독특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화려한 메이크업. 1976년, 29세의 보위가 〈플레이보이〉에 솔직하게 풀어낸 이야기를 되돌아본다.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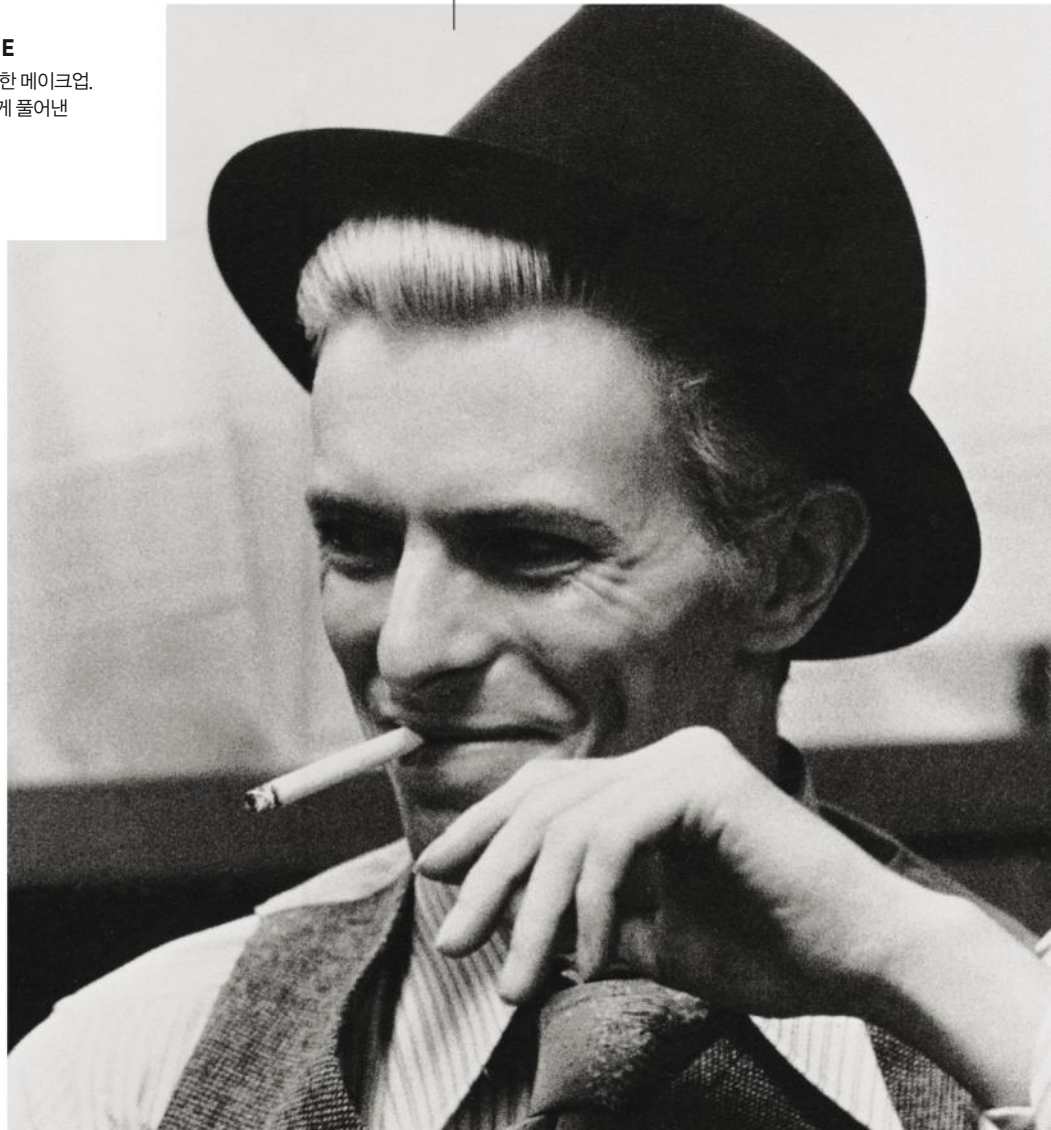
146

164

Cover Credit

2018년 2월 〈플레이보이〉의 커버는 이달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된 폴맨서바다가 장식했다. 탄탄하고 늘씬한 보디로 토끼 형상을 연출한 아트웍크는 오로지 〈플레이보이〉에서만 만날 수 있다.

photography
by
yoon sukmu





 **PLAYBOY** SHOP.com

Exclusively from Playboy. Shop now.



PLAYBILL

세븐 스튜디오

더 좋은 그림을 향해 달리는 윤석무, 피사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김지양. <플레이보이>는 세븐 스튜디오와 함께 얼굴과 장소를 담아나갈 예정이다. “어떤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드니 빌뇌브**의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언급하며 윤석무가 한 얘기다. 그런가 하면 김지양은 **엘리자베스 페이턴**의 **포트레이트 그림**을 보며 마음을 데웠다. “마치 잊고 지낸 친구를 만난 듯 반갑더라고요.”

안하진

안하진이 찍은 화보엔 그의 기품이 고스란히 담긴다. 게다가 촬영 현장의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는 에디터에게 어떤 촬영이라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됐다. 자연스럽게 ‘Feather Weight’ 화보 절반을 안하진과 찍기로 마음먹었다. 안하진은 언제나 그랬듯 멋지고 드라마틱하게 담긴 운동선수들의 사진으로 화답했다. 그는 **장욱진**의 **그림**을 보며 추운 겨울을 잊는다고 한다. 뜨거웠던 20대의 초심을 떠올리게 한다는 설명과 함께.

김참

김참과 낯선 장소에서 만나는 일. 낯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생긴다. 어쩐지 김참과는 좀 서늘하고 어색하고 처음 보는 광경을 찍으려 야외로 자주 나가게 된다. 이달 스포츠 선수들의 찰나를 기록한 ‘Feather Weight’ 촬영을 위해 김참과 육상 트랙, 테니스장, 태권도장을 누볐다. 김참이 셔터를 누를 때마다 여름 바다에 선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철썩철썩’ 부는 것 같았다. 그가 좋아하는, 대비가 높은 **다이드 모리야마**의 사진집 <Hawaii>의 흑백사진처럼.

송승화

매달 각종 난관에 봉착한다. 그중 가장 큰 난관은 단연 사람. 작은 물건 하나를 빌릴 때도, 사진 한 장이 필요할 때도 사람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플레이보이> 2월호에 송승화가 세운 공은 혁혁하다. 그는 친구 임지향과 함께 ‘Feather Weight’ 화보 속 선수 중 절반 이상을 섭외하는 데 일조했다. 도움을 받으면 서 주변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구나, 다짐한다. 송승화는 지난겨울 내내 자신을 따뜻하게 해준 작품으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꼽았다.



<플레이보이> 2월호를 함께 만든 8명에게 물었다.
당신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 그것.



정우성

“빛이 색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주세요. 늘 그랬듯, 색사하게. 읽는 내내 못 견딜 만큼.” 섹스 칼럼 청탁 메일에 이런 말을 적었다. 수신자는 정우성. <GQ>와 <에스콰이어>에서 일한 기자다. 며칠이 지났고 답신은 원고로 받았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이 있나? 니긋나긋한 단어가 모여 완성된 문장이 탄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완급 조절된 섹스 칼럼이었다. 순댓국을 좋아하는 서울 남자 정우성은 **넷플릭스 드라마 <빌어먹을 세상 따위>**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고 한다.

문승희

<플레이보이>의 촬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기’다. 현장 분위기가 모델의 자연스러운 포즈를 끌어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문승희를 만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일도 잘하고 유쾌한 남자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는 멋진 스타일링 센스로 ‘Wild Flower’ 화보 촬영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 작품으로 **최유수의 에세이 <사랑의 몽타주>**를 꼽았다. 사랑을 하고 싶게도, 안 하고 싶게도 만드는 작품이란 설명을 보냈다.

박선영

차분한 사람과 일할 공기를 좋아한다. 전화 한 통이면, 만난 적 없고 처음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도 신뢰가 생긴다. 박선영에게 황선태 작가 인터뷰를 의뢰하고, 미안하게도 잊은 듯 지냈다. 하지만 그것이 적합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중히 묻고 신중히 답한(것으로 확인하는) 인터뷰를 읽고, 황선태 작가의 빛과 창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플레이보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볼게요” 하더니 **마쓰이에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를 언급했다.

제이인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박재용은 말한다. “살아 움직이는 건 가져오지 마.” 앞으로 <플레이보이>에 등장하는 생물은 모두 그가 이끄는 제이인 스튜디오와 함께 촬영할 예정이다. <플레이보이>다운 그림을 만들려는 의욕으로 가득한, 잘 찍는 포토그래퍼. 1초 만에 이미지가 밀려나는 시대에 이런 파트너를 만나는 건 행운이다. 박재용에게 따스함을 안겨준 건 **사진**. 그리고 보면 작품 사진, 잡지 사진, 그리고 광고 사진까지 모두 소화하는 그가 추위를 느낄 틈 따위 있을 리 없다.

EVERY ISSUE. EVER.

THE COMPLETE PLAYBOY ARCHIVE



Access the ultimate stack of Playboy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latest — only on iPlayboy.



TAKE A FREE 14-DAY TRIAL AT
iPLAYBOY.COM/FREE-TRIAL



한복 래빗 헤드의 고운 자태

1월호 <플레이보이>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단연 커버였다. 우리 옷의 치마로 그려낸 래빗 헤드의 분홍빛 자태가 고와 보인 것. 2018년의 시작, '새해'라는 이슈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낸 것 같다. '코리안 에로티시즘'이라는 스페셜 이슈 또한 흥미로웠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커플 한 쌍이 재해석한 춘화 화보는 <플레이보이>이기에 가능했던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에 남아 있는 묘한 이미지가 각 페이지마다 잘 녹아 있었다. 수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두 모델이 자아내는 야릇한 분위기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매종 드 이영희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분위기도 돋보였다. '춘화다시 보기' 칼럼은 이 화보를 제대로 마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노골적인 장면을 담은 춘화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글을 찬찬히 읽으며 그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었다.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당대의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우리 인간의 이야기'라는 말이 크게 와닿는다. 결국 '섹스' 또한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무술년의 에로티시즘은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에로티시즘으로 기억될까? 그 흐름이 <플레이보이>를 통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유예진(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DEAR PLAYBOY

<플레이보이>에 대한 독자들의
달콤쌉싸름한 의견.



<플레이보이>의 새해

'플레이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명확하다. 하지만 한국 <플레이보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다. 처음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과연 한국에서도 누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까?'였다. 하지만 잡지 또한 본지만을 따르지 않고 각 나라의 분위기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하고, 날아오는 화살을 주의해야 할 거다. 창간 후 첫 새해를 맞은 2018년, 한국의 토끼는 과연 어디로 나아갈까. 독자이자 팬으로서, 항상 응원한다. **김장순(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시간의 연륜을 담은 화보

서울에 사는 서른두 살의 싱글남입니다. 1월호 <플레이보이>의 화보도 볼거리가 풍성하네요. 특히 목욕탕에서 촬영한 화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낡은 공간의 벽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묘한 분위기를 풍기네요. 노출은 과하지 않아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누드 컬러로 의상을 통일한 것도 콘셉트와 잘 어울리고요. 다만 조금만 더 목욕탕의 분위기를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륜이 담긴 공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달 화보도 더 멋진 곳에서, 섹시한 장면을 풍성하게 담아주시길! **박준형(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가운 얼굴

봉태규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때 영화관이나 TV에서 정말 자주 보던 얼굴인데, 오랜만에 마주하니 반갑네요! 그의 집에서, 그의 아내 하시시박이 카메라를 들어서 그런지 렌즈에 담긴 따뜻한 시선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최근 소식을 들려주는 인터뷰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에게 많은 걸 배우고, 가족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연예인 봉태규'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인물의 근황을 묻는 <플레이보이>가 되어주길 바라요. **한정민(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광고 문의 02-317-4851 · 정기구독 신청 문의 02-317-4825



@pbkorea



playboykorea



@playboykorea

〈플레이보이〉와
좀 더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잡지보다 빠르고 섹시한
플레이보이코리아닷컴에서!



playboykorea.com



〈플레이보이〉의 주인공은 플레이메이트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밝고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달의 플레이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말고 맘껏 드러내세요. 〈플레이보이〉의
메이트, 플레이메이트에 지금 도전하세요!



www.playboykorea.com

※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은 playboykorea.com
상단의 PLAYMATE 탭을 참조하세요.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 신청 문의 02-317-4825

POSE FOR PLAYBOY,
BE A PLAYMATE!



지금 〈플레이보이〉가
특별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who is a playmate?

매달 딱 한 명 선정하는 플레이메이트는 〈플레이보이〉를 대표하는 주인공입니다. 미국 〈플레이보이〉의 첫 플레이메이트는 메릴린 먼로였죠. 플레이메이트가 되면 국내외 최고의 사진가와 사진 촬영을 하고, 근사한 화보와 함께 〈플레이보이〉의 상징 센터폴드(Centerfold)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브랜드 광고 촬영, 행사 및 파티 참여 등 〈플레이보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체적이고 매력적인 당신, 무얼 주저하나요?

benefits

- 국내 톱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비디오그래퍼와의 화보 및 영상 촬영
- 플레이메이트 화보 및 영상 출연료 지급
- 'PLAYMATE OF THE YEAR'로 선정 시 상금 지급
- 〈플레이보이〉 행사 및 파티 참여 시 활동비 지급
- 플레이메이트로서 대외 활동 시 발생하는 수익 분배

PLAYBOY

PICKS:10

2월, <플레이보이>가 엄선한 10가지 라이프스타일.



1 no filter :

LION NOIR

비트메이커
라이언클래드가 열광하고
열망하는 것.

라이언클래드는 굳이 해석하면 '사자로 덮여 있다'는 뜻인데, 제 태몽이 거북이거든요. 그래서 거북선의 '아이언 클래드'에 사자의 강한 의미를 더해 이름 지었어요. 음악도 무게감 있게 들렸으면 해요. 누아르나 인생이 되게 고달픈 영화처럼. 장난스러운데 징그러거나 재치 있지만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영화 같은 인생 살고 싶잖아요. 파란만장하게. 그런 맘을 음악에 투영하게 돼요. 제 삶이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때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따라 재미있는 얘기가 되든지, 그냥 비생산적인 일에 머무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게 무조건 재미있는 얘기가 될 거라 믿었어요. 2016년 1집 <Lion clad>를 만들 때는 방구석에만 있었는데, 프로듀서가 '플레이어'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예전부터 꿈꿔왔거든요. MPC(MPD)로 공연을 하다 보니 스스로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고, 그렇다고 꼭 그런 곡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 라이브를 하면서 내가 진짜 느낄 수 있겠다. 싶은 음악. 무대에 서면 세상에 저랑 MPC 패드만 딱 존재하는 기분이거든요. 그 패드를 때릴 때의 '편치감'에 도취된다고 해야 하나? 요즘은 곡을 쓸 때도 MPC를 적극 사용하려 해요. 샘플링은 샘플을 알아보기 힘들게 편집하는 걸 좋아해요. 목소리를 외계어로 만들어 악기처럼 쓴다거나. 편하게 가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비트에 랩을 얹어보라든가. 저는 성공에 정해진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곧 2집이 나와요. 1집보다 슬퍼요. 복합적 감정을 담아보려 했는데, 사람 말이란 게 복잡할수록 어둡잖아요. 볼 지나기 전에 내려고요. 올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못 지나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압도적으로 잘하고 싶다는 말이죠.

“올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못 지나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압도적으로 잘하고 싶다는 말이죠.”



2

style :

editor lee sunyoung assistant editor jeong nara
photographer park jaeyong

WHITER SHADES OF PALE

“

Mr. Playboy Says

집은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운 겨울엔 틴티드
렌즈 선글라스가 진가를 발휘한다.
열은 컬러 렌즈는 얼굴에 세련된 인상을,
집은 컬러 렌즈는 개성을 더해줄 것이다.

”

겨울에 무슨 선글라스냐 묻는 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겨울은 자외선
지수가 여름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선글라스는
겨울에도 필수 아이템이다.
특히 눈에 의한 빛반사율이 높은
스키장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올 2월, 평창의 설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자 하는 이에게
선글라스를 추천하는 이유다.

프레임 부분의 아세테이트와 다리
부분의 스틸이 균형미를 자아내는 선글라스는
레지나 표와 컬래버레이션한
모델로 PROJEKT PRODUKT.
와인 컬러 렌즈가 투명한 아세테이트와
금속 프레임 위에 얹혀진 듯 조형적인
'사인 오브 투' 선글라스는
GENTLE MONSTER 제품





DIOR HOMME BOYS

1 펫숍 보이즈와 디올 움즈의 역사적 만남.

1980년대 음악의 부활은 패션계에도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디올 움즈의 2018년 봄·여름 시즌 캠페인에 1980년대 영국의 전설적인 신스팝 듀오 펫숍 보이즈가 등장한 걸 보면 말이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젊은 모델 안드레아스 울프와 헨리 로슈, 안톤 제거와 함께 어우러진 듀오는 이들이 창조한 음악이 그렇듯 한껏 로맨틱한 면모를 드러낸다. 닐 테넌트는 아웃 스타칭이 돋보이는 테일러드 슈트 차림으로, 크리스 로는 보머 재킷에 펫숍 보이즈의 캡 모자를 더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ANIMAL COLLECTIVE

2 사랑과 행운을 부르는 러키 애니멀!

프랑스 하이 주얼리 & 워치 메종 반클리프 아펠은 언제나 자연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왔다. 1950년 동물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본 뜬 '라 부티크' 컬렉션에 이어, 이번 시즌엔 이를 재해석한 '럭키 애니멀 클립 컬렉션'을 선보였다. 컬렉션에 등장하는 운 좋은 동물들은 총 9가지로, 고양이, 강아지, 사자, 벌새, 비둘기, 다람쥐, 올빼미와 고슴도치, 그리고 토끼다. 마치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빛을 발하는 머더오브펠과 오닉스, 핑크 골드와 타이거즈 아이 등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오는 밸런타인데이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그만이다. '럭키 애니멀 클립 컬렉션'은 VAN CLEEF & ARPELS 제품

SWEET, SWEET BEARS

3 초콜릿만큼 달콤한 베어브릭.

디즈니 픽사가 개봉한 영화 <코코>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가족 영화인 줄 알고 상영관에 들어갔다. 코를 훌쩍이며 극장을 나섰다는 간증이 이어지는 걸 보면 말이다. 베어브릭을 선보이는 킨키로봇이 영화 개봉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컬래버레이션 베어브릭은 이 영화에 빠진 당신과 그녀, 그리고 커플을 위한 제품이다. 세트는 영화 속 주인공인 코코와 미구엘 커플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초콜릿에 담긴 듯한 모습 그리고 하트 모양 패키지가 밸런타인데이 선물로도 제격이다. '코코와 미구엘 베어브릭 세트'는 KINKI ROBOT 제품

FUNCTION AND TAILORING

4 모험가적 남성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

아티스틱 디렉터 알레산드로 사토리가 지 제냐로 돌아와 선보인 첫 번째 컬렉션엔 현대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 바로 기능성과 우아함이다. 그중에서도 스포츠웨어 컬렉션은 지 제냐의 대표 아이템인 테크메리노를 저지와 실크에 적용, 편안함과 기능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아이콘 워머 스키 슈트에 내장된 발열 기술은 지 제냐 테크메리노 소재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대표적 아이템이다. 1970년대 에르메네즈 지 제냐가 선보인 스키 유니폼의 감성에 현대적 기술을 더한 지 제냐의 스포츠웨어 컬렉션은 평창 올림픽 개최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스키웨어 군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❶





3

grooming :

editor lee sunyoung assistant editor jeong nara
photographer park jaeyong

GOOD



AFTERNOON,

CHÈRIE

느지막이 일어나 좋아하는 향초를 켜고 양치질을 하는 오후. 생각만 해도 꿈만 같은 휴일 아침의 풍경이다. 생명의 근원인 땅이 제공하는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하는 코스메틱 브랜드, 랜드 뮤지엄이 제안하는 여행용 세트엔 오후와 저녁 시간용 치약이 들어 있다. 왜 모닝이 아니라 애프터noon이라 이름 붙였을까 궁금해하다, 달콤했던 그녀와의 휴일 아침까지 회상하게 된다.

좋은 치약이다.

'굿 애프터noon'과 '굿 나잇' 치약, 칫솔로 구성된 여행용 세트,
깃털처럼 가벼운 '패더' 향의 틴 캔들 모두 LAND MUSEUM by A LAND 제품

“

Mr. Playboy Says

낮과 밤의 침 분비량은 다르다.
기능성 치약들은 보통 이 점에 착안한 제품들을
선보이니, 잘 구분해 사용할 것.

”



SHIELD ON!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다.

1 끈적한 선크림이 질색이라면 수분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한다. 프렌지 로즈 추출물로 피부 진정과 주름 개선은 물론, 매끈하고 팽팽한 안티에이징 케어까지 책임진다.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선크림 SPF50 PA++++'는 **KIEHL'S** 제품

2 광노화를 걱정하는 남성을 위한 선크림. 리뉴얼 출시로 더욱 강력해진 자외선 차단과 콜라겐 복구를 돕는 선케어 제품이다. 옅은 베이지 컬러로 백탁 현상 없는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유지할 수 있다. '숨 37' 디어 옴 퍼펙트 선블록 SPF50+ PA++++'는 **SU:M 37** 제품

3 닥터 지의 선크림은 장벽 크림의 피부 친화 베이스로 개발해 탄탄한 장벽 케어를 돕는 제품이다. 수분은 채우고 외부 유해 환경은 막아주는 '딥 모이스트 업 선 SPF50+ PA++++'는 **DR.G** 제품



GET REVITALIZED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다.

찬 바람 불고 건조한 요즘, 시세이도 맨은 이 잔인한 날씨에 피부의 숨통을 틔워줄 제품을 출시했다. '토탈 리바이탈라이저 크림'은 이유 빌드 복합체와 해양성 단백질 복합체 성분으로 24시간 내내 보습을 유지해줄 뿐 아니라,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 사뭇한 얼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시세이도 맨 토탈 리바이탈라이저 크림'은 **SHISEIDO MEN** 제품



1

2



THE ATMOSPHERE OF THE DAY

밸런타인데이의 온도를 높여줄 로맨틱한 향기.

1 도시적인 향으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바이레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향초를 조합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묵직한 나무 향의 '세인트 알타(Altar)', 신비로운 느낌의 성스러운 향을 풍기는 '세인트 인센스(Incense)', 프레시한 로즈페탈의 순수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세인트 로즈 워터(Rose Water)'가 바로 그것. '캔들 컬렉션'은 **BYREDO** 제품

2 디프티크가 출시한 '2018 밸런타인 컬렉션'은 매혹적인 장미 향이 담긴 '오 로즈' 헤어 미스트, 핸드크림을 포함해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부터 장미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용하던 꽃인 만큼 그날을 위한 선물로 이만한 것도 없겠다. '2018 밸런타인 컬렉션'은 **DIPTYQUE** 제품

3 꽃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초콜릿이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는 향수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초콜렛 스퀘어 어소티드'를 함께 제공한다. 신선하고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 향으로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아쿠아 디 콜로니아', 그리고 아쿠아 디 콜로니아의 4가지 향을 그대로 담은 초콜릿으로 구성되어 더욱 향기로운 시간을 제공한다. '아쿠아 디 콜로니아와 초콜렛 스퀘어 어소티드'는 **SANTA MARIA NOVELLA** 제품



MOST GRACEFUL

가까운 미래에서 온 차.

모델명 S90D 최대출력 306.7kW 출시가 1억1570만 원 1회 충전 주행거리 470km 최고속도 250km/h 가속 성능 4.2초 구동방식 풀타임 사륜구동 변속기 자동1단 승차 인원 5인



1 도어 손잡이 2 날렵한 디자인의 헤드라이트 3 테슬라 로고가 그려진 스티어링 휠 4 창문 스위치 버튼
5 어린이 2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설치 가능한 트렁크 6 엔진룸에 있는 프렁크(Frunk)

전기차라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작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테슬라 S90D는 그런 차다. 대신 꿈꿔 마땅한 차가 됐다. 매력도 없으면서 환경 운동에만 앞장서는 차로 남지 않겠다는 인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2초, 스포츠카만큼 내달릴 수 있는 유일한 전기자동차다. 무엇보다 유려한 곡선으로 완성한 우아한 차체에서 테슬라 고유의 멋이 느껴진다. 놀라운 건, 주행거리가 약 400km라는 점과 오토 파일럿 기능이다. 차가 알아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인식하고, 앞차와의 간격도 유지한다. 이론상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으며, 손과 발을 스티어링 휠과 페달에서 떼고 편안히 갈 수 있다는 것. 가까운 미래에서 온 차 같달까. 혹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일지도. 테슬라 S90D의 가격은 1억2500만 원부터다.

☎ 080-822-0291 www.tesla.com/ko_KR

“

Mr. Playboy Says

자동차의 가까운 미래를 미리 경험하고 싶다면, 테슬라 S90D를 탐할 것.

”





Exclusively from Playboy. Shop now.

PLAYBOY**SHOP**
K O R E A



www.playboykoreashop.com





‘19금’ 영화만 상영한다. 성인만 출입 가능하지만, 불건전한 공간은 아니다. VR 영화관 ‘그린라이트 VRCC’는 건 강한 성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청담동에 당당히 자리 잡았다. 그린라이트 픽처스에서 직접 제작하고 공급하는 뜨거운 영화가 200편에 달하고, 매달 1일에 꾸준히 신작을 내놓는다. 여러 VR 드라마와 웹 콘텐츠를 제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덕분에 가상 섹스에 더욱 생생하다. 대표작 <달콤한 유혹>을 관람하면, 3인칭과 1인칭 시점을 넘나들며 더욱 아찔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러닝타임이 10분 내외인 영화를 두 편씩 묶어 상영하는 것은 VR 헤드셋을 쓰고 있는 관객이 어지럽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 달아오른 연인을 위해, 한견에는 귀엽고 의뭉스러운 섹스 토이를 판매하니 문을 나서기 전에 꼭 둘러볼 것. 성인 영화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유롭게 섹스를 이야기할 때까지, 그린라이트 VRCC는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 간판의 불을 밝힐 것이다.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8 📞 1688-5144



ONLY FOR ADULTS

어른들의 놀이터, VR 영화관.





SMART LIGHT

똑똑하게 밝히고 싶을 때.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은 조명이다. 빛에 최신 기술까지 탑재한다면, 더욱 똑똑하게 실내를 밝힐 수 있다. 필립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무스카리'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조명, LED 광원을 활용해 별도의 램프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기기와 연동하면 광량 감지와 음성 제어 등 각종 기능이 편리한 생활을 돕는다. 태양광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만큼, 빛은 가장 널리 쓰이는 화이트 톤으로 선택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얇은 원 모양 헤드는 상하로 움직이며 구석구석을 비추니 연인과의 자국은 장난에도, 뜨거운 사랑의 행각에도 요긴하게 쓰인다. 무스카리 스마트 테이블 조명은 PHILIPS 제품

GO, OCULUS GO

짜릿한 움직임.

VR 기술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영상만큼 몸 또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올해 초에 출시된 VR 헤드셋 '오culus 고'를 눈여겨보자. 컴퓨터와 스피커를 내장해 케이블이나 다른 기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 3DOF 트래킹 컨트롤러는 몸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소리와 영상이 함께 재생되니 훨씬 실감난다. 얼굴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천 소재로 제작해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함께 즐기기 좋은 3D 미디어 콘텐츠도 차차 개발해 늘려갈 예정. 눈 앞에 펼쳐질 현실을 즐길 날만 기다리면 된다. 독립형 VR 헤드셋은 OCULUS 제품

FOR VAGINA'S SAKE

'그날'을 살살이 탐구한다.



왜 우리는 '생리' 대신 '그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 김보람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피의 연대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인간이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생리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고, 여러 전문가를 만나 생리가 나아갈 길을 논한다. 나이와 인종, 성별을 넘나드는 사람들과 나눈 솔직한 대화는 '그날'을 대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이슈가 된 생리컵과 면 생리대, 탐폰 등 각 생리용품의 체험담도 함께 담았다. 생리에 대해, 몸에 대해, 그리고 여성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1월 18일 개봉.

ART OF LIGHT

빛의 미술사 댄 플래빈이 온다.



흔한 형광등을 이리저리 세워두었다. 불이 켜지자 형형색색의 빛이 공간을 채운다. <위대한 빛>전에서는 산업 사회의 사물을 예술의 세계로 인도하는 댄 플래빈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많은 것이 규격화됐지만 오히려 더욱 복잡해진 듯한 오늘, 형광등만으로 다채롭게 탄생시킨 작품은 미니멀리즘의 미학 또한 담겨 있다. "나는 구조와 현상을 넘어 비움의 마법을 투영한다." 시대의 변화와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의 위대한 빛을 만나보자. ①

② 1월 26일~4월 8일

③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뮤지엄

₩ 6000~1만3000원 ☎ 1544-7744



THE DRAGONFLY

테이블에 내려앉은 잠자리 한 마리.

‘어뮤즈 부쉬’는 프랑스어로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모든 음식의 기본은 맛이지만, 보는 재미까지 더해지면 식사 시간이 한층 즐거워진다. 룬니꼬의 어뮤즈 부쉬는 플레이팅부터 손님 마음을 사로잡는다. 코스 메뉴를 주문하면 새하얀 다이닝 테이블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내려앉는데, 요리 이름 또한 생김새를 꼭 빼닮은 ‘드래곤 플라이’.

밤 뿔레 몸통에 꼬리는 감자튀김. 눈은 고추장 검이고, 김치를 말려 달아준 양 날개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위를 향해 쭉 뻗어 있다. 입과 눈이 모두 즐거우니, 뒤이어 서빙될 메인 디시가 기다려진다.

“
Mr. Playboy Says
스타터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과 같다.
서두르지 말 것.
”



HYBRID FUSION

류니끄에서 하나 된 순간.

무엇이든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모았을 때 각각의 매력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음식에서는 그 마찰이 더욱 두드러진다. 류태환 셰프는 정통과 퓨전 사이의 적당한 지점을 고민한 끝에 레스토랑 '류니끄'를 오픈했다. 자신의 성과 '유니크(unique)'라는 단어를 합쳐 지은 이름에서 개성 넘치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뒤 한국에 돌아와 선보이는 독창적인 조리법. 일본과 프랑스를 접목하고, 한국식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에 그의 여정 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상력과 재치가 돋보이는 이색 만찬을 즐겨보자.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40 ☎ 02-546-9279

HERB TEA

약초 한 잔의 처방.

망원동 골목에 조그마하게 자리 잡은 약초원 안으로 햇빛이 따사롭게 비친다. 온기를 받은 공간 안에는 초록색 식물이 자란다. 흔한 식물이 아니다. '카페 사장님'이 아닌 한약사가 정성껏 키운 약초다. 사람들이 한의학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도록, 약초를 활용한 차 레시피를 직접 연구했다고, 쓴맛을 잡기 위해 차를 달이지 않는 대신 드리퍼에 빠르게 내린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눈에 띄는 메뉴는 불면증을 개선하는 '별 헤는 밤'. 긴장을 풀어주는 산조인과 연자육을 넣고 달달한 배와 꿀을 더했다. 신메뉴인 '홍-홍'은 수정과에 다량프레르 홍차를 블렌딩해 우아한 향을 자아낸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과 계피를 진하게 끓여내 겨울 음료로 제격이다. 상담을 신청하면 이야기를 나눈 뒤 알맞은 차를 추천하거나 약을 처방해준다고 하니, 그와 함께 들러 몸과 마음 상태를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 단, '식물 요일'인 목(木)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할 것. 📍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9길 28 ☎ 02-322-9955



FOR VALENTINE'S DAY

흔한 초콜릿 대신.

“

Mr. Playboy Says

달달한 초콜릿 맥주와 함께,
더욱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밸런타인데이를
만끽하자.

”



1

카카오닙을 첨가해 마치
'쌈'타는 사이처럼 묘하게
달콤쌉싸름하다.
썸앤쌈 브라운 에일 제품

2

바닐라와 캐러멜의
단맛에 카카오 향이 더해져
조화를 이룬다.
브루독 코코아 싸이코 제품

3

초콜릿 몰트와 다크
초콜릿 원액을 함께 사용해
단맛을 배가시켰다.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 제품

4

몰트를 배합한 후 장기
숙성을 거쳐 초콜릿의 풍미가
더욱 부드럽다.
쿠에도 시코쿠 제품



BEACH IN SEOUL 서울 속 휴양지.

매일 밤, 연남동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떠들썩하게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연남비치클럽이 추구하는 자유는 조금 다르다. 인적이 드문 해변가 술집에서 만끽하는 '한적한 자유', 과거 해외를 여행하며 처음 느낀 그 감정을 서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 명의 주인장이 힘을 합쳐 '연남동의 해변가'를 오픈했다. 나무로 만든 가구와 직접 의뢰해 제작한 서핑보드로 공간을 꾸미고, 한쪽 벽에선 푸른 바다를 담은 영상이 흐른다. 은은한 조명 또한 휴양지의 여름밤을 떠올리게 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술 선택의 자유'도 주어진다. 맥주, 와인, 위스키 등 여러 주종을 다양하게 구비해두고, 직접 마시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고르도록 테이블 가까이 함께 모아둔 것. 둘만의 오붓한 저녁을 이국적인 자유로 채우고 싶다면, 시끌벅적한 거리에서 벗어나 연남비치클럽의 문을 두드려보자.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30 ☎ 070-7796-0909



WINE OF THE SUN 태양을 담은 와인.

칠레의 몽그라스 와이너리는 태양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한다. 적도를 향해 크게 기울어진 밭에서 포도송이가 더욱 알차게 영근다. 그 자부심을 담아, 마푸체족 언어로 '태양'을 뜻하는 '안투'를 넣어 '안투 카베르네 소비뇽'이라 이름 지었다. 강렬한 붉은빛 액체로 잔을 채우니 선명한 과일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곧 입안에서도 거칠지만 매혹적인 타닌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 모금의 여운까지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하다. ☎

저녁 무렵의 루프톱 전경



ALVEOLUS

도심 속 작은 폐포.

바빠 흘러가는 일상에 쫓기다 보면 스치듯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서면서도, 겨울의 광경을 제대로 마주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찬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가느다란 눈발이 쌓여 온통 새하얀 거리. 유심히 바라보면 경이로운 순간은 그렇게 아쉬움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곤 한다.

앨비어러스 망원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호텔이다. 인체의 폐 내에서 가스 교환이 이뤄지는 기관인 폐포를 뜻하는 '앨비어러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찰나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농도에 따라, 앨비어러스는 시시각각 변한다. 강렬한 띄약별이 내리쬐릴 때와 잔잔한 햇살이 스며들 때의 느낌은 사뭇 다르다. 빛과 그림자는 드리워지다 사라지길 반복하며 곳곳을 비추고, 공간을 이루는 나무와 돌, 유리는 인위적 가공을 절제해 낯것 그대로의 모습을 남긴다. 면밀히 드러나는 솔직한 물성은 더욱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머무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그만큼 솔직해지도록, 인테리어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20평 남짓한 공간엔 벽이 거의 없다. 덕분에 거실과 주방, 침실 그 어디에 있더라도 거리낌 없이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러 소품과 가구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선택해 하룻밤의 추억 안에서 지나치게 돋보이지 않으며 묵묵히 제 기능을 하도록 했다. 그와의 순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이곳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 의 삶에 정을 더한다.

무심코 흘러보내는 순간을 붙들고 싶다면, 잠시 달리를 멈추고 숨을 골라보는 건 어떨까. '도심 속 작은 폐포'는 짙은 숨을 들이마시고자 하는 이들을 기다린다. ①

햇빛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앨비어러스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는 다이닝 테이블



담백하게 디자인한 주방



“

Mr. Playboy S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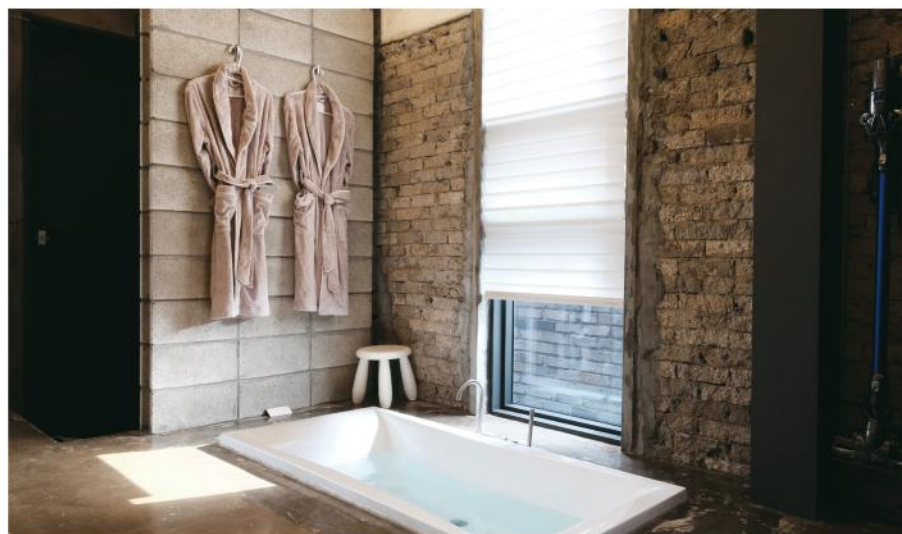
생기를 담은 투명한 공간에서 연인 관계에
솔직함을 더하라.

”

욕조에서 마주한 돌의 물성



📍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16길 31 ☎ 010-9139-6857 🌐 <http://alveolusmangwon.com>




목욕 가운데 각종 어메니티를 구비한 욕실



© Four Seasons

MEDITERRANEAN BLUE

지금 튀니지로 눈을 돌리는 이유.

새파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새하얀 건물. 지중해 하면 대개 유럽을 떠올리지만, 지중해와 면한 튀니지 북부의 관광 도시 시디부사이드의 아름다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총천연색의 열대 또한 휴양지의 참맛이겠으나, 이 일대는 그보다 정갈하고 느긋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시디부사이드와 한니발의 고향 카르타고가 지척인 휴양지 감마르트 라 마르사 해변에 포시즌스 호텔 튀니스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현대적 아라베스크 양식을 차용한 포시즌스 호텔은 2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객실에 테라스나 발코니를 내 (당연하게도) 탁 트인 바다나 정성껏 꾸민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다. 오는 3월까지 장기 투숙자를 포함, 투숙객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프리카의 최북단 '지중해의 끝'이 서서히 달궈질 계절을 미리 준비하며 이 단정한 궁전 같은 새 호텔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www.fourseasons.com/tunis

“

Mr. Playboy Says

지중해, 사하라사막, 올리브나무 숲, 카르타고와 로마의 유적... 모두 튀니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PLAYBOY **SHOP**
K O R E A



Hoodie ₩79000, Sweatshirt ₩89000
Now available at www.playboykoreashop.com

- 1 눈 마사지기 'isee5k'
- 2 목, 어깨 마사지기 'Neck2'
- 3 발 마사지기 'Shoes'
- 4 머리, 눈 마사지기 'iBrain'는 모두 브레오 제품




1



2

BE HEALTHY

언제 어디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안마기의 등장은 혁신이었다. 전문가의 손길 없이도 피로를 풀게 됐으니까. '아직 혁신은 끝나지 않았다'고 브레오 마사지는 말한다. 1kg도 채 되지 않는 가벼움과 무선의 편리함 그리고 블루투스와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강도와 마사지 모드까지 조절 가능한 이 기특한 물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인간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태어났다. 크고 무거우며 전선을 연결해야 구동 가능하던 거추장스러운 생김새의 안마기는 버려도 좋다. 매끈하게 잘생긴 브레오 마사지기 시리즈는 디자인적으로도 혁신을 이뤄냈다. 

www.10mindsbreo.com



3



4

“
Mr. Playboy Says
바쁜 당신에게 브레오 안마기는 출장 안마사의 손길 못지않을 것이다.
”

PLAYBOYSHOP
K O R E A



Hoodie ₩79000, Sweatshirt ₩89000
Now available at www.playboykoreashop.com

WORLD OF PLAYBOY

밤낮없이 궁금한 잡지 밖 <플레이보이>의 놀라운 세계.



POPPING RABBIT

이제는 앤디 워홀, 키스 해링과 더불어 버트 모리스의 이름을 <플레이보이>와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는 지난가를 맨해튼 첼시의 태글리아라텔라(Tagliatella) 갤러리에서 열린 <Painting Playboy> 전시에서 유명한 플레이보이 로고를 활용한 60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미 코카콜라, 샤넬 등 글로벌 브랜드의 상징을 활용한 버트는 이번엔 래빗 헤드를 스프레이, 다이아몬드 가루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했다.

BUNNY IS BACK

2017년, TAO 라스베이거스가 주최한 <플레이보이> 핼러윈 파티, '플레이보이 헌티드 판타지'는 분명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밤이었다. 아름다운 플레이메이트, 라스베이거스 출신 DJ 웰먼의 뜨거운 음악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코스튬 콘테스트. 눈길을 사로잡은 의상 중 몇몇에는 <플레이보이>의 '시그너처'가 숨어 있었다. 작년 가을 우리는 의류 브랜드 안디(Yandy)와 팀을 이뤄 고고 버니, 디스크 버니, 1980년대를 완벽히 재현한 에어로빅 버니를 포함해 유쾌하고 색다른 핼러윈 세트를 만들었다(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플레이보이>가 처음으로 버니를 테마로 한 의상 디자인에 참여한 프로젝트다). 이 컬렉션은 핼러윈 직전, 베벌리힐스 플레이보이 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패션쇼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ARMING UP

<플레이보이>가 당돌한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 굿워스앤코(Good Worth & Co)와 파트너십을 맺고 래빗 헤드와 <플레이보이> 로고가 양팔에 선명한 셔츠를 출시했다. 그들의 홀리데이 컬렉션에선 더 많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YOUNG AND AMAZING

미국 〈플레이보이〉 CCO 쿠퍼 헤프너가 〈포브스〉의 '2018년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인물' 30인에 선정됐다. 2016년 다시 〈플레이보이〉에 합류한 26세의 쿠퍼 헤프너는 브랜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폴리오〉 매거진의 '체인지 메이커'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예년처럼 지난 11월 재향군인의날에도 〈플레이보이〉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 주인공은 이리나 보로니나(2001년 1월), 칼리 로렌(2013년 10월), 라켈 폼플런(2013년 올해의 플레이메이트), 앨리스 웨이트(2006년 5월)다. 대표단은 로스앤젤레스의 재향군인 의료센터에서 약 250명의 재향군인을 만나 경의를 표했다.



SALUTE!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플레이보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네 곳의 부대에 헌정하는 핀업 콘셉트의 촬영을 진행한 것이다. 총 아홉 명의 플레이메이트가 참여했고, 이 사진은 그중 플레이메이트 크리스티 가렛(2016년 2월), 서머 앨티스(2000년 8월), 미셸 맥러플린(2008년 2월)이 공군과 해군복을 형상화한 버니 코스튬을 입은 것이다. ●

FURNITURE FOR SEX

그냥 아무 데나 올라타서 하면 되는데, 굳이 섹스 퍼니처가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면 미국 <플레이보이>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 섹스를 향한 미적 감수성을 지닌 '작품'이니, 인간의 삶과 섹스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있다면 집 안에 들여놓을 것을 권했다. 언젠가 이케아에서 섹스 용 의자를 쇼핑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www.playboy.com



POTPOURRI



HYPERSEXUALITY

헝가리 <플레이보이>가 섹스 중독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에 대한 '성행동 아카이브'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섹스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충동적이며, 타협의 여지가 적은 경향이 있다고. 대부분의 경우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기도 한다. 섹스 중독이 의심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질병은 아니지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www.playboy.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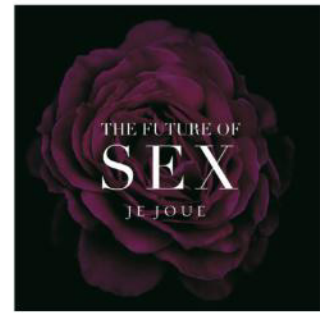
2018 SEX TREND

폴란드 <플레이보이>가 2018년의 섹스 키워드를 제시했다. 클래식한 섹스보다는 각양각색의 섹스에 주목한 듯, 여러 신기술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섹스 로봇,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섹스 토이, 3D 에로틱 액세서리, 연인의 성기를 그대로 본뜬 바이브레이터까지. 트렌디한 섹스를 즐기고 싶다면, 일찍이 빠삭하게 알아둘 것. www.playboy.pl



ONE SIP FORWARD

지난 1월, 미국의 골든글로브 시상식 현장. 배우들이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미국영화연구소의 '여성을 위한 디렉팅 워크숍'에 일정 금액이 기부됐다. 피치워터가 실시하는 이 캠페인은 방송예술 분야에서 더욱 많은 여성 감독이 발굴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난 10년간 여성 감독 수는 남성 감독의 22분의 1이었고, 그들이 제작한 영화는 4%에 불과했다고. 성별이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기를, 응원할 물 한 모금이 모여 거대하고 잔잔한 바다가 되기를 바란다.



섹스 토이계의 명품

영국의 성인용품 브랜드 제쥬(Je Joue)가 최근 한국에 상륙했다. 제쥬는 유려한 디자인과 인체에 무해한 소재, 은은한 컬러의 디자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섹스 토이계의 명품 브랜드다. 제쥬의 진동은 깊지만 경박하지 않다. 고급스러운 디자인뿐 아니라 견고한 내구성까지 갖췄으니, 밸런타인데이를 뜨겁게 불태우기에 제격이다. <http://jejoue.com>



FLESH LOVE RETURNS

여기 진한 사랑의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비닐 안에 찌그러져 갇힌 채. 일본의 포토그래퍼 할(Hal)은 작품 'Flesh Love Returns'에서 연인을 진공포장해 가장 의미 있는 장소로 되돌려준다. 우리만의 방, 처음 만난 사무실, 처음 데이트한 레스토랑 그 어디든. 사진 속 두 사람은 최대한 삶을 맞대고 있다. 그 어떤 간격도 허용하지 않는, 지극히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다.

www.photographerhal.com



EPHORIZE

래퍼 컵카케(CupcakKe)는 성을 말할 때 언제나 솔직하고, 거침없고, 노골적이다. 'Deepthroat' 'Vagina' 같은 노래 제목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 곡의 분위기만큼 강렬한 랩을 선보이는 그는 믹스테이프 <Cum Cake>로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최근 발표한 새 앨범 <Ephorize> 또한 파격적인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수록곡 중 하나인 'Duck Duck Goose'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성인 인증은 필수다.

[@cupcakkeafreakk](https://twitter.com/cupcakkeafreakk)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책임

미국의 페미니즘 사진가 낸 골딘(Nan Goldin)이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성 소수자와 에이즈 환자 등 LGBTQ를 여러 번 카메라 렌즈에 담아낸 그가 진술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나 자신의 역사에 스스로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sacklerpain](https://twitter.com/sacklerpain)



AFTER THE STORM

붉은 꽃잎이 흩뿌려진 호수에 나체를 담고 있는 여인은 콜롬비아계 미국인 싱어송 라이터 칼리 우치스(Kali Uchis)다. 음악과 패션, 영상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그가 새 앨범 <After The Storm>을 발표했다. 부치 콜린스와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지원 사격 아래 특유의 몽환적 음색을 선보인다. 다재다능한 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자기 자신인 듯하다.

[@kaliuchis](https://twitter.com/kaliuc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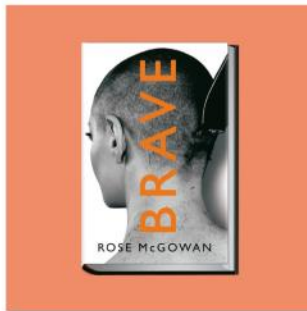
신중히 고르고 멋대로 꺾었다.
〈플레이보이〉편집팀이 선정한 지구를 아우르는 소식.



OH, BABY

섹스할 때 손동작만큼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을까? 미묘한 움직임으로 절정의 쾌락을 맛보도록, 독일 <플레이보이>는 손동작에 따른 오르가슴 팁을 전해주는 팟캐스트 'Oh, Baby'를 추천했다. '셀프 자극'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가 모든 사람에게 통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귀뜸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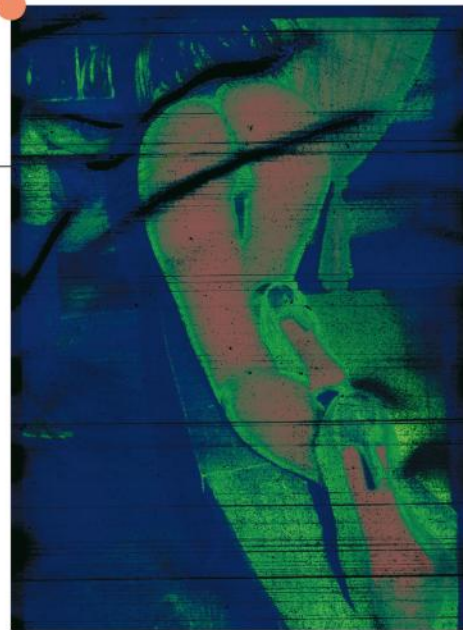
www.playboy.de



BRAVE

배우 로즈 맥고완(Rose McGowan)이 여성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책 <Brave>를 출간했다.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면서 스스로 성적 대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던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로즈 군대'도 지휘한다. 이들의 정복 활동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Rosearmy를 검색할 것.

[@rosemcgowan](https://twitter.com/rosemcgowan)



THE STRIP

어둡고 거친 질감의 사진 속, 비비드한 컬러의 빛을 받아 여실히 드러나는 몸의 곡선.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탐구하는 프랑스의 비주얼 아티스트 참파삭(Champassak)의 작품이다. 사진집 <The Strip>는 태국 팟퐁의 한 홍등가에서 찍은 작품을 엮었다. 그곳에서 처음 셔터를 눌렀을 때, 사진 속 피사체는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민 끝에 그는 특별한 촬영 기법을 고안했다. 스캐너를 이용해 이미지를 마구 변형시킨 것. 최종 결과물은 추상과 형태의 경계를 이슬이슬하게 넘나든다. 이제는 사진 속 피사체를 한눈에 자각하기 어렵고,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다. '홍등가의 여자'를 향한 날 선 시선과 이유 없는 편견은 그의 작품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http://champassak.com>

AQUARIUS 1.20-2.18

존경과 소유, 넥타이 선물이 가진 공인된 키워드다.
어슴푸레한 호감을 주고받는 썸남에게
선물하기에 이보다 좋은 상징 언어도 없다.
존경이라는 멋진 대의명분 아래 발칙한 소유의
욕망을 은닉했다. 유감주술(類感呪術)
효과도 충분하다. 목은 인체에서 에로틱한
장소이며, 흔들리는 타이는 그의 심벌을 닮았다.
타이가 흔들릴 때마디 흥분은 번져나가고,
욕망이 그를 질식시킬 듯 차오를 것이다.



FEB × VALENTINE

별들이 골랐다. 당신의 연인을
뜨겁게 해줄
밸런타인데이 선물.
by 김은하

PISCES 2.19-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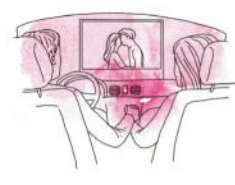
칸나도 좋고, 백합도 좋다. 조지아 오
키프의 회화는 성적 함의가 풍부하
면서도 품격이 도도해서, 주는 사람
과 받는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미
덕이 있다. 꽃잎은 은밀하게 울동하
고, 꽃술은 터질 듯 부풀었으며, V자
형으로 열린 틈새로 깊은 절정감이
흘러나온다. 솔직하고 대담한 에로
스, 당신이 그에게 주고 싶은 게 원치
그는 오래도록 음미할 것이다.

ARIES 3.21-4.19



밸런타인데이가 당신의 '마초적 구
순기'를 관통할 예정이다. 잔뜩 달아
오른 입술과 혀에 기쁨을 안겨줄 아
이템은 쿠바산 시가. 고소한 훈냄새
와 달콤한 과일 맛, 통렬한 스파이시,
우디의 균형감을 순서대로 음미하
면, 왜 빌 클린턴이 시가 맛을 완성하
기 위해 모니카 르윈스키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시
가를 완성하는 마법의 첨가물이다.

TAURUS 4.20-5.20



비즈니스가 복잡다단하게 새끼를 친
다. 이래저래 리비도에 집중할 만한
사정이 못 된다. 밸런타인데이도 시
작과 끝이 주도면밀한 플코스 플랜
A는 포기하고, 만찬이 한 상에 올라
오는 간편식 플랜 B에 집중하는 전
력이 옳다. 도심 근교의 자동차극장
이라면 좋은 답이 될 만하다. 서로의
숨결이 얽히는 데 1초도 걸리지 않을
테니까. 캐주얼해서 더 좋은 밤이다.

GEMINI 5.21-6.21



유쾌한 장난기가 그의 심장을 간질
인다. 밸런타인데이 선물에도 그런
발칙한 유머를 '한 꼬집' 첨가해야 마
땅하다. '오카모×스킨리스 스킨' 밖
에 모르는 그에게 추천연색 세상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 야광, 돌기형,
사정지연형, 여성을 배려한 핫젤 도
포형 등 콘돔 선물 세트를 완성하라.
그와의 잠자리에 대한 이보다 더한
한사는 없을 것이다.

CANCER 6.22-7.22



개조비가 데이지 앞에서 으스스대던
영국제 셔츠를 기억하나? 여자에게
핸드백과 구두가 있다면, 남자에겐
드레스 셔츠가 있다. 좋은 셔츠는 얼
굴 가까이에서 당당함과 고귀함을
드러내며, 그녀의 로망을 충동질한
다. <귀여운 여인>의 줄리아 로버츠
와 <나인 하프 위크>의 킴 베이싱어
이래로, 그 셔츠라면 그녀도 특별한
아침을 맞고 싶어질 거다.

LEO 7.23-8.22



일상의 피로감이 눈으로 물려든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눈에 즉각적
휴식을 주는 수면 인대는 배려가 돌
보이는 선물이다. 그의 몸을 의자 뒤
로 젖힌 뒤 수면 인대를 씌우고, 손목
에 아로마 오일 한두 방울, 이것으로
힐링 매직이 시작된다. 또는 그의 가
슴을 천천히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신호가 온다. 시간을 차단하면 다른
감각이 증폭되니까.

VIRGO 8.23-9.23



서로의 취향이 엇박자를 내기 쉬운
때다. 욕망의 최대공배수 같은 선택
이라면 '밸런타인데이 호텔 패키지'
가 최고다. 황홀한 야경에 감각적으
로 세팅한 꽃, 향초, 와인, 케이크는
자동으로 달려온다. '밸런타인데이
트러블 법칙'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을뿐더러 심신의 기력 회복 효과
도 그만이다. '프라이빗 스파'가 있다
면 금상첨화.

LIBRA 9.24-10.22



전략가인 당신이라면, 올해 밸런타
인데이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간
파했을 거다. 설 연휴와 한 몸으로 묵
었으니, 그 순수성을 온전히 발휘하
기 어렵다는 점 말이다. 미래를 내다
보는 한 수를 생각한다면, 그의 손에
'한우선물 세트'를 들려주는 게 정답
이다. 명절 지난 그의 눈빛과 매너(를
포괄한 '님 향한 일편단심')가 토종
한우처럼 단단할 거다.

SCORPIO 10.23-11.22



감각기관의 민감도가 청각에 집중된
다. 소리를 통해 긴장을 이완하는 '백
색소음(ASMR)'에 관심을 가질 때다.
심자수나 초콜릿이라던 '스투피'이지
만, 직접 만든 ASMR이라면 선도가
유효하다. '공기 반 소리 반'을 가슴에
세기고, 아나이스 닌이나 다니자키
준이치로 등을 조용히 울조려보라.
아지랑이처럼 번지는 자극에 드라이
오르기슴애라도 이를 듯하다.

SAGITTARIUS 11.23-12.24



최고급 테킬라를 준비할 때다. 올해
밸런타인데이 이벤트의 꼭짓점으로
'보디 샷(Body Shot)'을 추천하기 때
문. 테킬라는 정신을 핑 돌게 하고,
과감해진 도전정신은 라임즙과 소금
의 위치를 어깨와 가슴, 허벅지를 넘
어 점점 아슬아슬한 경계로 데려간
다. 리비도의 소진 그리고 이어지는
충만한 고요. 테킬라가 왜 파격과 정
열의 술인지 알게 될 것이다.

CAPRICORN 12.25-1.19



도취와 흥분에 몸을 맡기기에 너무
나 현실적인 연혼이다. 그를 위한 로
맨틱한 아이템은 '인용 리클라이너'
가 적절하다. 180도까지 젖혀져 책
을 읽든 TV를 보든 낮잠을 자든, 최
적의 파드너가 된다. 단, 실용주의에
빠져 시중식을 함께 즐기는 로맨틱
한 순간을 놓치지 말 것. 무게를 감당
하면서도 스프링이 탄성을 잃지 않
는 지 테스트하는 건 기본이다.

PLAYBOY

TASTES:

공간, 시계, 차, 예쁜 여자...
〈플레이보이〉의 고집스러운 취향을 모았다.

스트라이프 패턴 니트 탑은 PLYS 제품

MY WAY - SPACE - WATCH - CAR - GADGET - ITEM - FOOD - SWEETHEART

PLASTIC
FANTASTIC

JOON LEE

하드코어 클럽을 드나들다
도라에몽 전시를 보러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드러그 스토어에 가면 과자와 온갖
영양제를 카트에 가득 담는다.
올해 삼성 SFDF 펀드를 수상한
이승준의 브랜드 PLYS 안엔
그렇게 상반된 세계가 충돌한다.

제가 진행하는 베를린 베이스 브랜드 PLYS로 올해 13회 삼성 SFDF 펀드를 수상했어요, 그 핑계로 오랜 만에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고요. 온 김에 한국 내에서 프로덕션도 알아보고, 소재 리서치도 하고, 다양한 업체를 만나 협업을 논의하고 있어요.

베를린에 정착한 건 2011년이예요. 처음 베를린을 방문한 건 2001년 영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물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베를린은 굉장히 발전했죠.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주는 예술적 감성이죠. 서점, 레코딩점, 갤러리 같은 곳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자전거 가게조차 예술적으로 여겨지거든요. 또 다른 이유를 꼽으라면, 도시 전반에 흐르는 느슨한 리듬이예요. 작업을하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여겨졌죠. 파리, 앤트워프, 밀라노, 런던... 패션으로 손꼽히는 많은 도시를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은 스쳐가는 도시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두말없이 베를린행 티켓을 끊었어요.

사람들은 PLYS 하면 의상에서 쉽게 보지 못하던 색깔과 그래픽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주 밀레니얼스럽다가도, 언뜻 하드코어적으로 여겨진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PLYS는 베를린의 클럽 신과 전자음악, 거리 풍경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를린은 ‘빡





세계' 노는 도시거든요. 처음 정착했을 땐 저도 그 일 부였고요. 놀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끝장나게 놀 수 있는 곳이 베를린이에요. 2016년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그 시간이 결국 제 브랜드에 녹아 있다고 봐야 하니까요. 클럽 신과 거리 풍경,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세계인 장난감의 느낌을 니트에 담고 싶어 일부러 신경을 자극하는 색채를 사용하고 있어요. 강렬한 색채 자체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옷을 입고, 또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 강렬한 컬러를 보며 일상에서 탈출하는 기분을 느꼈으면 해요. 제가 그렇듯이요.

저는 색을 정말 좋아해요. 실에 색이 입혀지는 걸 보고 있노라면 굉장한 자극을 받아요. 염료를 사용해 원사에 색을 입히는 건, 물감으로 종이에 색칠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즐거움이에요. 브랜드 이름도 거기에서 왔어요. 니트 원사의 한 울을 1플라이(Ply), 두 겹으로 꼰 걸 2플라이스(Plays)라고 하거든요. 니트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기도 하고, 겹쳐진다는 의미가 제 작업 방식과 닮아 브랜드 이름을 PLYS라고 지었어요.

브랜드를 니트웨어로 한정한 건, 어릴 때 집중력 장애 판정을 받은 것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죠. 그래서 풀 컬렉션을 디자인하기보다는 제가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는 아이템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븐과 다르게 실을 선택해 스와치 테스트를 하고, 원사 제작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총괄하죠. 그게 참 매력 있어요. 어차피 무슨 일을 하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브랜드를 론칭하고 롤모델로 삼은 건 독일의 안경 브랜드 마이키타예요. 역사가 길지 않은 브랜드인데, 모든 제품이 베를린의 마이키타 하우스에서 연구, 개발을 거쳐 생산돼요. 유통에도 제약을 두죠. 전 세계

에 입점한 마이키타 공식 리테일 숍에서도 최소한의 재고만 갖고 있고, 물품이 떨어지면 본사에서 직접 납품을 받아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죠. 꿈꾸다 보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마이키타의 창시자인 필립 하프만과 같은 경영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와 계획하는 건, PLYS를 대표하는 네온 컬러 니트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키즈웨어, 액세서리, 양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옛그제 일본에 다녀왔어요. 모리 미술관에서 하는 도라에몽 전시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렇듯 오락실에 가서 새로 나온 게임도 해보고, 도시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일본은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요. 도라에몽 전시를 보고 기프트 숍에 있는 도라에몽 잡동사니, 그리고 드러그 스토어에서 산 과자와 영양제 등 수 많은 물품으로 슈트케이스를 채워왔어요. 아, 그리고 시나가와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도 봤어요. 돌고래의 미끌미끌함이 마치 라텍스 같아 색시해 보이더라고요. 돌고래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②



걸려있는 래글런 소매 니트 톱과 스트라이프 패턴 니트 톱, 이승준이 입고 있는 그래픽 프린트 티셔츠는 모두 PLYS 제품



1

2



3

MAISON BACCARAT

플레이보이는
 구매를 위한
 아름다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안다.
 남산 소월길 초입에 자리 잡은 메종 바카라는 그중
 가장 반짝이는 곳이다.

바카라의 역사는 17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궁전 내부 장식을 위해 프랑스 바카라 마을에 세워진 왕정 유리 공방이 그 출발점. 루이 15세와 샤를 10세, 나폴레옹 3세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귀족이 이곳에서 상들리에와 촛대를 주문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저 공작 부부,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세자비 같은 왕족들이 바카라의 테이블웨어와 꽃병 등을 찾으면서 바카라는 프랑스식 삶의 예술을 상징하는 명망 높은 크리스털 브랜드로 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이유 때문에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문턱이 높은 브랜드로 여겨지지만,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빛내려는 바카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파리에 위치한 메종 바카라가 20세기 초 장 콕토, 만 레이 같은 예술가들의 사교 모임을 주관하고, 박물관으로 리뉴얼하던 2006년에는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에게 내부 장식을 맡기기도 한 예가 그렇다.

2015년 12월에 오픈한 이곳 메종 바카라 서울은 파리와 모스크바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의 브랜드 메종이다. 서울의 역사와 변화를 대변하는 남산에 자리 잡은 250년 역사의 프랑스 브랜드, 그 안을 채운 2세기가 넘는 시간을 관통하며 수많은 이들의 곁에서 번영과 사랑의 순간을 함께해온 바카라의 제품, 바카라를 선물하는 행위가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건 이 때문이다. 장인정신에 대한 찬사, 그리고 거기 얹힌 수많은 사랑 노래를 곁들이는 것과 다름없어서. ❷

❸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70 ☎ 02-3448-3778 🌐 www.baccarat.kr

- 1 깨진 글라스 모양의 말이 예술적인 체스판
- 2 빛으로 가득한 공간을 더욱 화려하게 채우는 천장의 초대형 상들리에
- 3 바와 테이블웨어, 조명과 데스크용품, 주얼리 등이 수십 가지 색으로 반짝이는 매장 전경
- 4 다양한 테이블 웨어가 화려하게 세팅되어 있다.
- 5 빨간색 하트를 가슴에 안은 모습이 사랑스러운 스누피 오브제
- 6 지하에 자리한 홀은 파티가 열리면 화려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watch : editor lee sunyoung
photographer park jaeyong

MELTING



JAEGER LECOULTRE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 순수하면서도 섬세한 외형과 달리, 예거 르쿨트르의 '지오피직 트루 세컨드'는 무시무시한 첨단 기능을 장착했으니까. 자이로랩 밸런스 기능을 갖춘 예거 르쿨트르만의 칼리버 770은 공기와의 마찰을 줄여 무브먼트에 정확성을 선사하는가 하면, 초침의 트루 세컨드 기능은 매 순간 초 단위로 점핑해 더욱 정확한 시간 측정을 가능케 한다.

핸즈와 인덱스에 형광물질 수퍼루미노바를 코팅해 어두운 곳에서도 가독성을 높인 '지오피직 트루 세컨드' 워치는 JAEGER LECOULTRE 제품

HEART

달콤한 시간이 기다리는
2월, 스틸 브레이슬릿
워치와 함께 그 순간 속에
녹아들어볼 것.



**ROGER
DUBUIS**

아서 왕의 명검에서 영감을 받은 로저 드뷔의 엑스칼리버 컬렉션. 검 모양의 시침과 분침, 그리고 트리플 러그와 플루티드 베젤, 강렬한 로만 인덱스는 중세 기사 전설 속 영웅인 아서 왕의 용감함과 위풍당당함을 그대로 계승한다. 42mm 사이즈의 케이스에 9시와 3시 방향에 자리한 스네일 패턴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는 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대담함에 방점을 찍는다.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크로노그래프 '엑스칼리버 42' 워치는 ROGER DUBUIS 제품



**VACHERON
CONSTANTIN**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하우스, 바쉐론 콘스탄틴. 이 유서 깊은 브랜드의 가장 현대적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워치 라인인 오버시즈 컬렉션이다. 그중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5년의 시간을 들여 자체 개발한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칼리버 5200을 탑재했다.

스틸 브레이슬릿뿐 아니라 레더와 러버 스트랩으로도 직접 교체 가능한 '오버시즈 크로노그래프' 워치는 VACHERON CONSTANTIN 제품



DIOR 오른쪽 면이 잘려나간 듯한 형태, 그 단면을 장식한 강렬한 레드 컬러 푸시 버튼. 거기에 블랙 컬러 갈바닉 다이얼과 반투명한 블랙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케이스까지, 쉬프르 루즈는 디올 옴므가 전하려는 새로운 우아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워치다.

38mm 사이즈의 브러시드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에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한 '쉬프르 루즈 A02' 워치는 **DIOR**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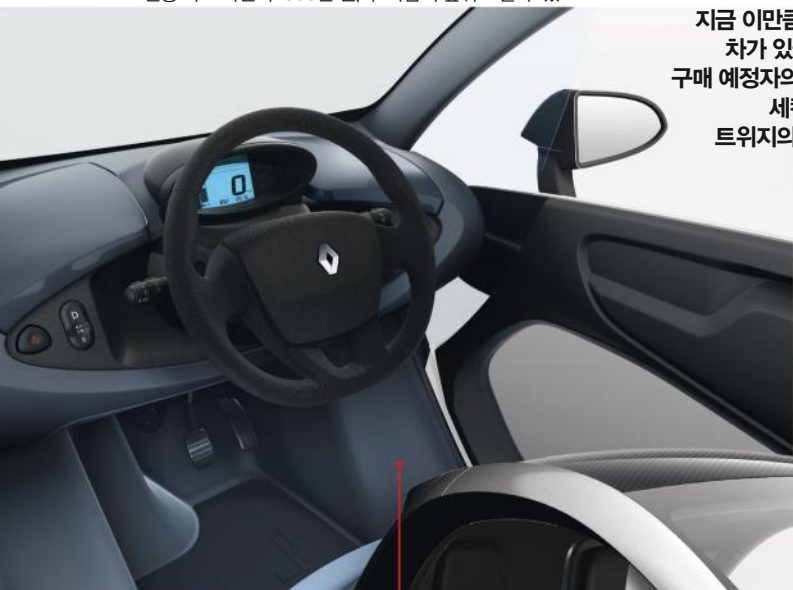
1 인생에 재미를 주는 572만 원짜리 장난감

“지난 10년 동안 별 재미 없이 살았더라고요. 마흔 전에 마지막 발악처럼 꼭 사고 싶었어요.” 30대 중반의 김재원 씨는 트위지가 한국에 갓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구매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고 때로 야근하는 평범한 직장인. 취향에 입각한 세컨드 카로 트위지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미 준중형 세단이 있어 선택에 고민은 없었다. 500만 원쯤은 결혼 전이면 더 부담 없이 썼을 것이다. 트위지 공식 소비자가는 운전석 뒤쪽을 짐(180리터, 최대 75kg까지) 싣는 데 주로 쓸 수 있는 1인승 카고 버전이 1500만 원, 두 사람이 앞뒤로 탈 수 있

전기차 말고 트위지

지금 이만큼 호기심을 끄는 차가 있을까. 오너와 구매 예정자의 체험을 토대로 본 세컨드 카, 트위지의 정체성 분류.

는 인텐스 모델이 1550만 원이다. 민간 보조금 578만 원과 지역별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 기준으로 트위지는 572만 원, 그런데 지금 중고 트위지를 사려면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된다. 대략 7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부터 나라에서 주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각 개인에게는 줄어든다. 일반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 줄어든 1200만 원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르노삼성 쪽도 올해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 김재원 씨는 차 값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다. “전엔 몰랐는데, 제가 주목받는 것을 즐기더군요. 어딜 가도 튀기 때문에 호기심과 부러움 섞인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 더. “더 나이 들었을 때, 제 아이나 사람들에게 ‘아, 아빠는, 재원은 늘 재밌는 사람이었어’라고 기억에 남겠죠.”





최고출력
17.1ps(12.6kW)
최대토크
5.8kg·m
전압
220V(일반 콘센트 이용 가능)
배터리 형식
리튬이온
전격전압
52.5V(129Ah)
완전 충전
3.5시간(80% 충전: 2.5시간)

TWIZY



2 유지비 체감 지수 커피 석 잔 값

실용성에 입각해 세컨드 카를 고른다면, 유지비는 늘 중요한 문제. 기름값과 가끔 하는 세차, 주차 비용 등을 생각하면 한 달에 20만~30만 원은 술술 나가는 게 차인데, 트위지 오너들은 입을 모아 트위지에 필요한 월 평균 전기값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사이라 말했다. 체감 지수로는 0원도 있다. 가전제품처럼 220V 플러그로 충전하니까, 콘센트 구멍만 있으면 어딜 가든 수시로 전기를 얻는다. 발레파킹 값보다는 싼 게 확실하므로, 급속이나 완속이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아파트나 빌라에 갖추려면 관리소 또는 인근 주민들과 부딪힘에 가까운 협의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트위지는 그럴 필요 없다. 매장에서 쓰는 상업용 전기는 누진세가 없기에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차를 위해 추가로 내는 돈도 없다. 더불어 완전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3시간 30분 남짓. 매일 10km 내외로 출퇴근한다면 최고 시속 80km 미만, 평균 시속 45~60km 이상을 밟아도 이틀에 한 번 충전하면 된다. 다만, 전화기 배터리가 겨울에 빨리 닳는 이치대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트위지는 주행거리가 3분의 2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말도 들린다. 자동차 보험은 소형차와 비슷하다. 본인 외 1인, 이용 기준으로 30만 원 선. 그런데 전기차 자동차체는 1억 원이 넘는 테슬라도 13만 원, 트위지도 13만 원이다. 이것 하나는 억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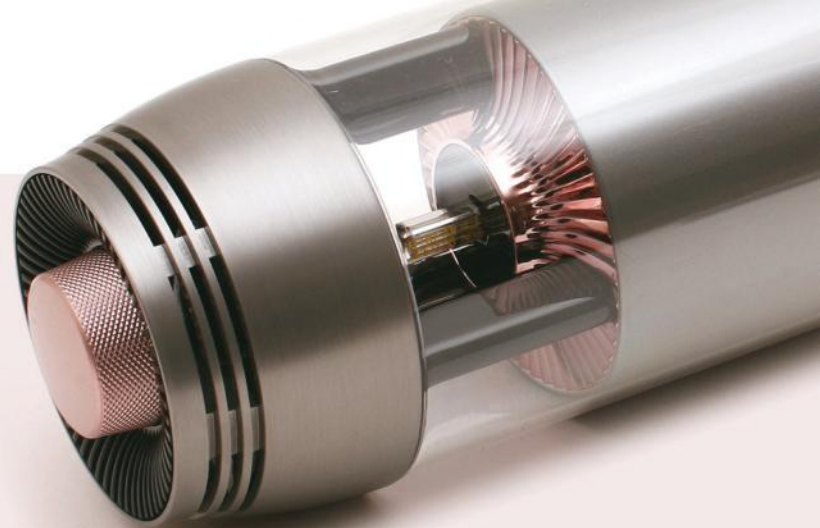
3 차와 차 사이에 세울 수 있는 콤팩트 카

“트위지를 유럽 여행길에 자주 봤거든요. 주차한 차들 틈새에 주차한 걸 보고 더 놀랐죠.” 고지현 씨는 좁은 골목 끝, 다세대에 산다. 사회공헌 단체에서 책 만드는 에디터라 평소 동선은 그리 다양하지 않은데 일 관련 미팅 때문이라도 도심 한가운데는 살아야 하는 처지다. 월·전세가 흔한 대학가와 오피스 지역의 원룸 혹은 투룸은 주차장이 가구당 한 대씩 있을 확률이 매우 적다.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은 주차 문제로 낮을 불허요.” 트위지의 크기는 길이 2335mm, 너비 1233mm, 높이 1451mm, 기아 레이도 트위지 옆에 두면 중형차처럼 보인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 전기차가 최선의 대안이지만 일반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아버지가 쓰던 대형 세단은 몸에 맞지 않은 옷 같아 털어내고 싶은 터다. 르노삼성을 올해 트위지 1000대를 풀 계획이었다. 그는 카 셰어링 등을 통해 꽤 긴 시간 전기차를 타보면서 보조금 확정일만 기다린다. 지퍼로 열리는 비닐창(?)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거라는 두려움 외에는 별 걱정 없다.

4 대담한 디자인, 뚜렷한 기능의 ‘탈것’

“빨리 나온다는 오렌지 컬러로 받았어요.” 트위지의 둥근 디자인과 또렷한 컬러 매치 때문에 패션 카로서 가치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을 듯. 이 차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바이크를 탈 수 있는 자와 아닌 자 사이에서 확연히 갈린다. 조각가이며 연남동 바(Bar), ‘쇠가부엌’의 주인인 김중우 씨는 오렌지 바이크 마니아다. “제겐 트위지가 헬멧이나 복장을 갖추지 않아서 편한 125cc 네 바퀴 바이크 중 하나예요. 막히는 도로 사이사이를 누비는 데 두려움이 적고 달릴 때 늘 바람을 맞던 사람은 금세 편해져요.” 소위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 차를 선택한 걸까? “아니요. 트위지는 ‘탈것’이에요.” 그는 확신했다. 외려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는 이들은 이런 변화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려 한다고. 하지만 친구가 두 번째 바이크로서 어떤지 묻는다면,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이 조금 답답하지만 관참은 후보로 권할 수 있다고 했다. 작은 스쿠터를 일상용으로 간혹 타는 사람에게는 트위지를 둘러싼 불편함, 예를 들어 에어컨도 온열 시트도 없는 것, 컵홀더가 없는 것, 도어 잠금장치가 없는 것, 길바닥의 승차감이 전해지는 것 등이 별 의미가 없다. “그건 모두 차를 기준으로 한 평가니까요.” ❶





VISOORROM

블루투스 진공관 스피커

수없이 많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선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 흔하니까. 바이
저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진공관 오디오에 블루투스 기능을
더했다. 끈적한 선곡에, 노란 램프
불빛이 침실 분위기를 은은하게 데워줄
것이다. 24만 원



STAY WITH ME

당신의 연인을
집에 붙잡아둘 신묘한 제품.



FLZZLCS

웨이텀

맥주 디스펜서

웨이텀은 늘 마시던
맥주를 놀랍게 바꿔놓는
가정용 맥주 디스펜
서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거의 모든
크기의 병, 캔맥주를
크리미한 생맥주 같은
맛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기계. 이게 집에
있다면, 집 밖에서 느낀
고단함도 금세 누그러질
것이다. 18만9000원



YAMAHA

블루투스 오디오 TSX-B72

클래식과 모더니즘이 공존하는 오디오
오랄까. 레트로한 감성의 디자인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인 이 오디오는
아마하만의 풍부한 사운드를 출력하는
기술 'SR-Bass'를 탑재한 블루투스
스피커다. 27만8000원





SAMSUNG HMD 오디세이

VR이 식상하다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하이브리드 버전인 혼합현실(MR)은 어떨까. 실제처럼 보이는 건 물론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갖춘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집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82만 원**



SONY 엑스페리아 터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된다. 3D 터치 기능을 탑재한 빔 프로젝터가 등장했기 때문. 평평한 바닥만 있다면 어디서든 영화는 물론 게임, 인터넷 등을 즐길 수 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다. **179만 원**



AUDIO TECHNICA AT-LP60BT

레코드의 낭만을 품고 편리함을 위해 태어났다. 턴테이블이면서 블루투스 연결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음질이 좋은 MP3 파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날로그한 소리를 전선 길이의 제약 없이 집안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25만9000원**

GOPRO 퓨전 VR 카메라

360도 촬영이 가능하며, VR 영상 편집 기능까지 갖췄다. 아무리 좁은 집도 이 카메라로 찍으면 집 밖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 만큼 넓어 보인다. 게다가 1800만 화소에 수심 5m까지 방수 가능하다. 음성 제어 기능까지 갖췄으니, 이제 연인과 함께 시나리오 쓸 일만 남은 셈. **89만 원**





EYEWEAR

10g

추운 겨울일수록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벗어
던져라. 플레이보이의
취향을 반영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물건을 모았다.

FLYING HIGH

photography
by
park jaeyong

패션 아이템의 경우, 중일 걸치는 물건의 무게가 직접 몸으로 축적되기에 그 무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유행과 관계없이 가는 프레임의 가벼운 안경이 꾸준히 인기를 얻는 건 바로 그 때문. 일본 후쿠이의 장인 니시데 카즈오는 티타늄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불필요한 디테일을 없앤 간결한 디자인의 안경을 선보이고 있다.

핸드메이드 작업을 통해 태어난 티타늄 소재 'NK749' 안경은 NISHIDE KAZUO 제품



RUNNING SNEAKERS

200g

DRIVING SHOES

240g



모름지기 신발은 가벼워야 하는 법. 그렇다고 마냥 가볍기만 해서도 안 된다. 적재적소, 상황에 필요한 기능을 고루 갖춰야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나이키 베이퍼맥스는 30년 에어 시리즈 연구의 최신 결과물로, 플라이니트 겔창과 베이퍼맥스 쿠션만으로 가벼움과 편안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얼마나 가벼운지, 이 신발을 풍선과 고프로 카메라에 달아 하늘로 날려 지상 35km까지 보내는 퍼포먼스에 성공했을 정도. 토즈를 상징하는 고미노 슈즈는 밀창에 고무 돌기를 알알이 박아 쿠션 작용은 물론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전설적인 나이키 에어 시리즈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스니커즈는 **NIKE**. 다른 색상의 가죽을 엮은 슈레이스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소재 '고미노 드 라이빙 슈즈'는 **TOD'S** 제품



REVERSIBLE DOWN VEST

729g

대표적 친환경 기업, 파타고니아의 베스트다. 이 브랜드에서 환경 유해 요소를 최소화한 상품에 부여하는 블루사인 친환경 인증 제품을 찾는 건 일도 아니다. 원료와 생산뿐 아니라 공정무역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는 브랜드, 파타고니아. 여기 소개하는 베스트 역시 구스다운을 재활용해 보온재를 충전한 것으로, 마음까지 가볍게 만드는 제품이다.

베스트는 환절기 체온 조절에 필수인 아이템이다. 보온성과 기능, 튼튼함이 조화를 이룬 '맨즈 리버서블 비비 다운 베스트'는 **PATAGONIA** 제품



**HANDHELD
GARMENT STEAMER**

720g

기술 발전이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 가전. 그중에서도 옷의 주름을 펴기 위해 사용하는 다리미의 진화는 드라마틱할 정도다. 췌딩이 갈던 다리미, 옷걸이에 물통이 주렁주렁 연결된 스티머를 뒤로하고 필립스가 새로 출시한 '스팀앤고 2 in 1'은 스팀이 나오는 헤드 하나만으로 구성해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수직과 수평 방향 모두 다리미질이 가능하며, 분리형 물탱크로 편리함을 더한 '스팀앤고 2 in 1' 휴대용 다리미는 PHILIPS 제품

NOTEBOOK

690g



WAIST BAG

550g



저장에 목적을 둔 물건은 으레 무거울 거라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 그 선입견을 깬 물건이 있다. 레노버의 '요가북 프로'는 노트북의 생산성과 태블릿의 휴대성, 여기에 손 필기가 가능한 크리에이트 패드 기능을 더하고도 700g이 채 되지 않는 3in1 제품이다. 포터는 가벼운 나일론 소재 가방만으로 일본의 국민 브랜드가 된 경우, 나일론을 3겹으로 박은 가방은 가벼운 건 물론 내구성이 뛰어나다.

MA-1 재킷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따온 '탱커 2WAY 웨이스트 백'은 **PORTER**, 디스플레이와 키보드가 360도 회전하는 힌지로 연결되어 마치 노트처럼 펴고 접는 것이 가능한 '요가북 프로'는 **RENOVO** 제품



TRAVEL LUGGAGE
3kg

여행을 상징하는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 그리고 산업 디자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디자이너 마크 뉴슨. 둘의 만남은 혁신적 트렁크를 만들어냈다. 혁신의 핵심에 있는 건, 바로 수납공간 확대. 내부부터 외부까지 연결된 높이 조절 손잡이의 폭을 넓혀 내부에 완전히 편평한 공간을 선사한 것. 오염에 강한 초경량 모노그램 이클립스 캔버스로 감싼 외부부터, 알루미늄 소재의 높이 조절 손잡이, 그리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네 개의 바퀴까지. 이 트렁크는 가장 진화한 형태의 여행 그 자체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로 가벼운 여행길에 적합한 '호라이즌 55' 러기지 가방은 LOUIS VUITTON 제품

밸런타인데이 다이닝은 좀 야하게
시작해도 좋다.
시각으로 미각을 깨우는 고단백 저칼로리 스타터.

photography
by
park jaeyong



THE FOREPLAY

초생강과 캐비아를 얹은 석화찜

석화 12개, 초생강·캐비아 적당량

Recipe

1 석화는 김이 오른 찜기에 얹어 살이 통통하게 오를 정도로만 살짝 찜다. 2 찜 석화 위에 초생강과 캐비아를 얹고, 취향에 따라 고추냉이 간 것을 조금 곁들인다.



자몽과 엔다이브를 곁들인 방어회 샐러드

방어회 120g, 자몽 1개, 엔다이브 1/2개, 어린잎 채소 적당량 드레싱 플레인요구르트 2큰술, 레몬즙 1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소금 약간

Recipe

- 1 자몽은 속껍질을 제거한다. 엔다이브는 한 장씩 잎을 떼어낸다. 2 볼에 분량의 재료를 고루 섞어 드레싱을 만든다.
- 3 접시에 방어회와 어린잎 채소, ①을 함께 담고 드레싱을 끼얹어 완성한다.



프로슈토와 리코타치즈, 아몬드를 곁들인 캐러멜라이징 애플

사과 2개, 프로슈토 2장, 리코타치즈 4작은술, 아몬드 4알, 설탕 5큰술, 버터 1큰술, 럼 1큰술

Recipe

- 1 사과를 세로로 반 갈라 씨 부분을 도려낸다. 2 팬에 설탕을 넣고 녹여 황갈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 다음, 사과와 버터를 넣고 조리듯 살짝 익힌다.
- 3 구운 사과 안쪽에 반으로 자른 프로슈토를 접어 넣고, 리코타치즈와 아몬드를 채운다. 4 팬에 남은 시럽을 끼얹어 완성한다.



허니콤을 곁들인 브리치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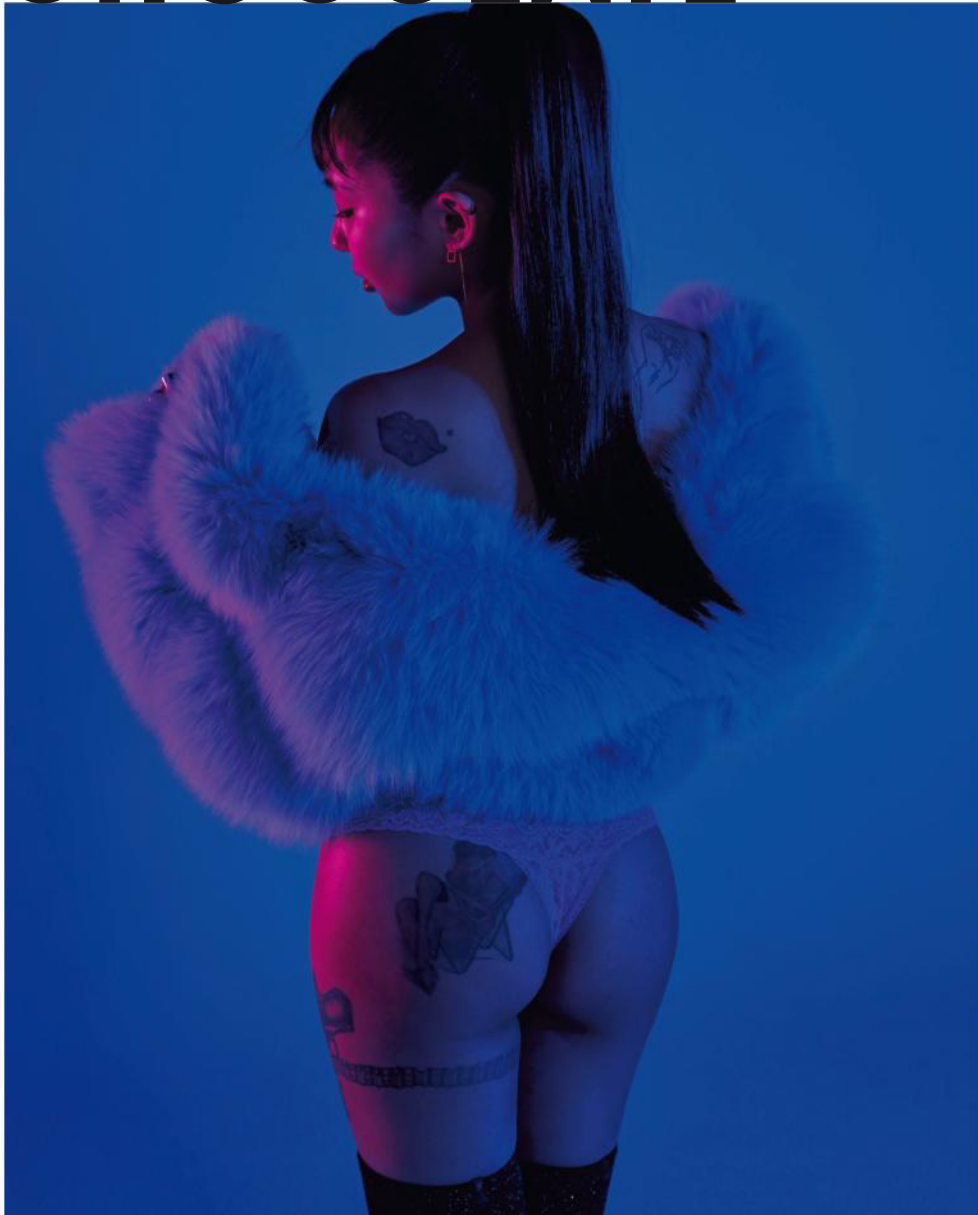
브리치즈 2개, 허니콤·체리·석류알 적당량

Recipe

1 브리치즈는 통째로 180℃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약 15분간 굽는다. **2** 접시에 브리치즈를 얹고, 큼직하게 자른 허니콤과 체리, 석류를 곁들여 담아낸다.

DARK CHOCOLATE

달콤하고 쌉싸름하다.



photography by *kim ji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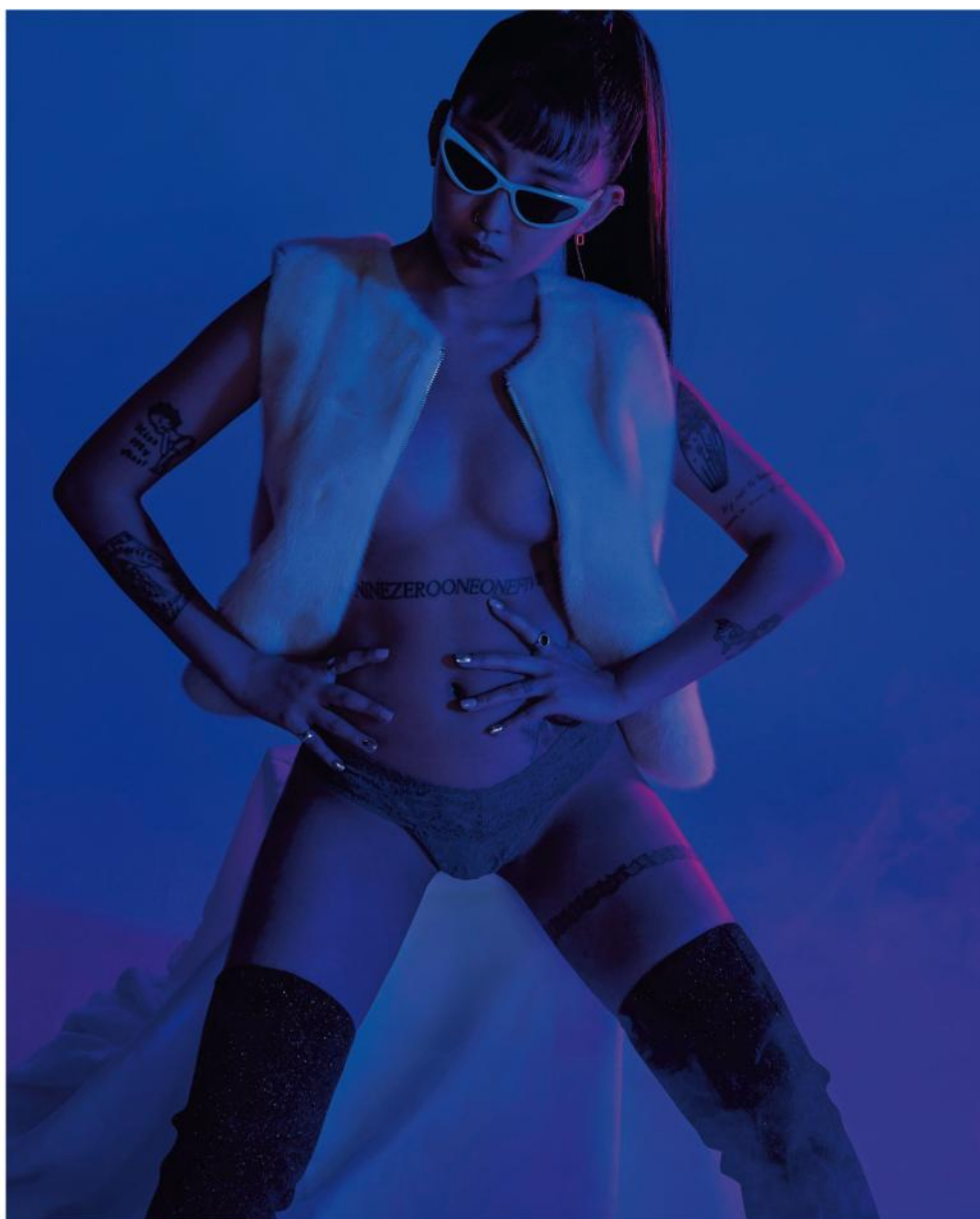
스카이 블루 컬러 폭스 소재 쇼트 재킷은 **JALOUSE**, 라벤더 컬러 레이스 팬티는
HANKY PANKY by ELLACONIC, 루렉스 소재 사이하이 부츠는 **GIUSEPPE ZANOTTI** 제품

베이비 핑크 컬러 폭스 소재 세브런 패턴 코트는
JALOUSE,
라벤더 컬러 레이스 팬티는
HANKY PANKY by ELLACONIC,
루렉스 소재 사이하이 부츠는
GIUSEPPE ZANOTTI 제품



핫 핑크 컬러의 폭스 소재 쇼트 재킷은
JALOUSE 제품





앞면은 핑크, 뒷면은 화이트 컬러의 지퍼 여밈이 있는 밍크 소재 톱은 **JALOUSE**, 퍼플 컬러 레이스 팬티는 **HANKY PANKY by ELLACONIC**, 선글라스는 **KYE x VEDI VERO**, 루렉스 소재 사이하이 부츠는 **GIUSEPPE ZANOTTI**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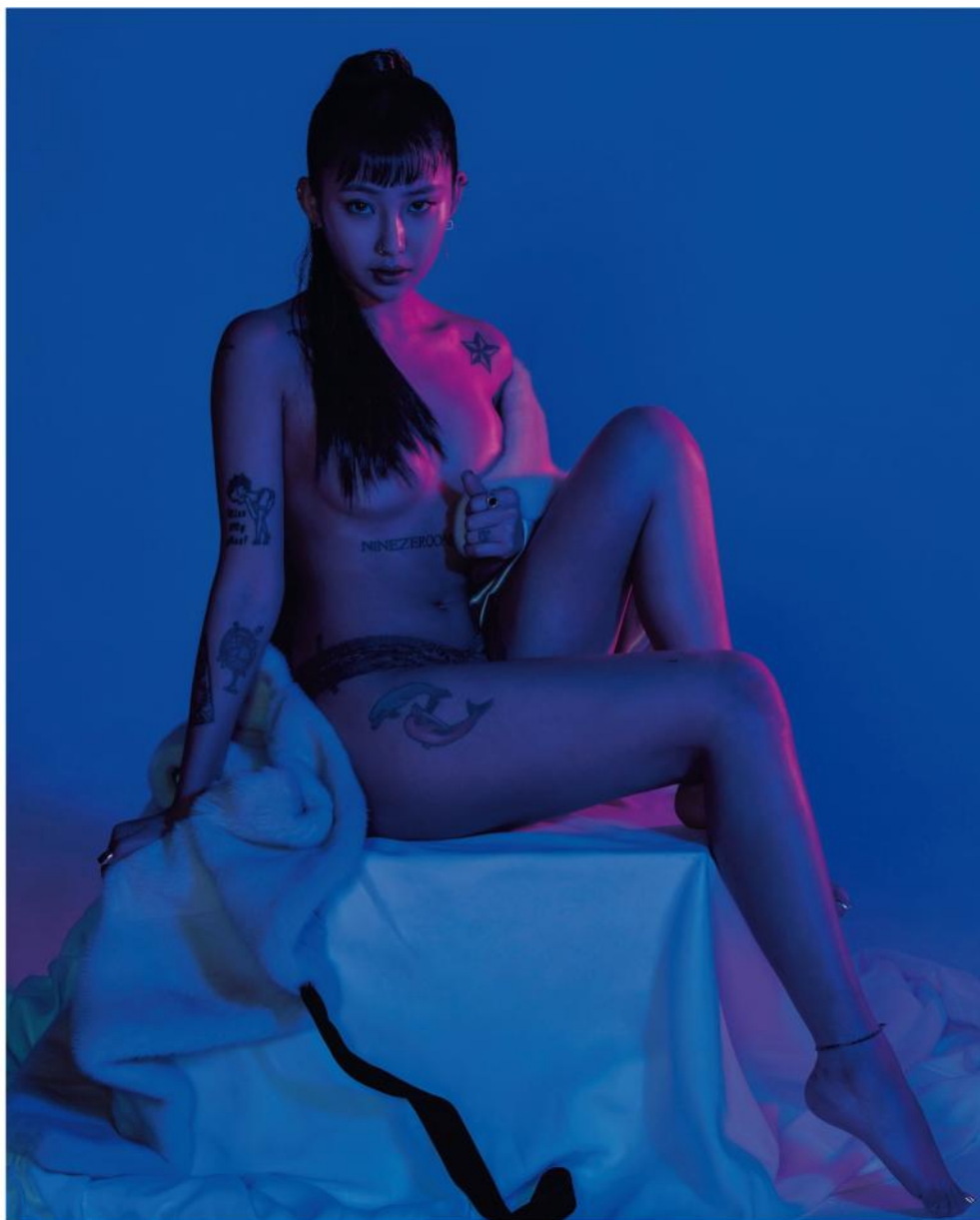
라이트 핑크 컬러 폭스 소재 베스트는 **JALOUSE**, 그레이 컬러 레이스 팬티는 **HANKY PANKY by ELLACONIC** 제품

딥 그린 컬러 레이스 팬티는
HANKY PANKY by ELLACONIC.
선글라스는
KYE x VEDI VERO 제품



루렉스 소재 사이하이 부츠는
GIUSEPPE ZANOTTI 제품





아이보리 컬러 드롭 숄더 밍크 소재 롱 베스트는 **JALOUSE**, 네이비 컬러 레이스 팬티는 **HANKY PANKY by ELLACONIC** 제품



illustrator nishant choksi



NISHANT

PLAYBOY

TALKS:

정치, 사회, 문화, 섹스
그리고
〈플레이보이〉가 만난 사람들.

마이크 엑하우스와
조 라타가 찍은 실제 커플의
성행위를 담은 광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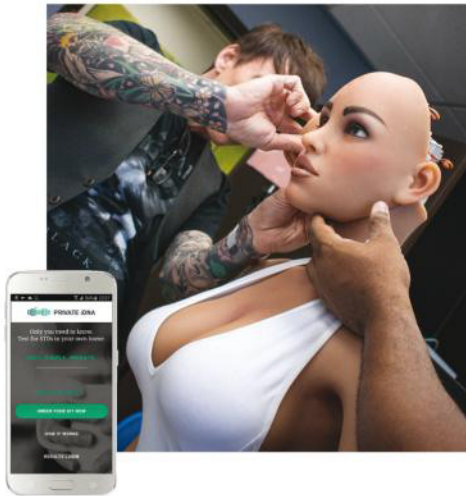
SEX ISSUE - ADVISOR - GENDER - SEX - TECH - ISSUE - 20Q - HER - PLAYBOY INTERVIEW

ELECTRIC LOVE

로스앤젤레스의 성의학자들은 뇌에 전류를 흘려 성적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Liberos LLC라는 회사는 뇌자극 실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50달러의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시제품인 좌약침을 배송해준다고 한다.

성 상담 앱

2017년 최고의 섹스 발명품 중 하나로 뽑힌 Biem은 가상 헬스 클리닉 앱이다. 개발자는 이용자의 건강한 성생활을 돕기 위해 의사들과 상담 후 화상 채팅이 용이해지는 것을 목표로 이 앱을 개발했다고 한다.



FUTURE SEX

확실한 예방

메이틀리, 마이랩 박스, 프라이빗 iDNA 같은 새로운 회사들이 성병 검사를 더욱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키트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본인의 샘플을 채취해 검사실로 보내면, 결과를 즉시 이메일로 알려준다.



당신이 찾는 로봇

미국인 중 50% 이상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섹스 로봇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네 명 중 한 명의 남성은 섹스 로봇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 열 명 중 한 명 이하의 여성도 같은 생각이었다. 로봇과 섹스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52%는 로봇이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다.

YEAR IN SEX

정치, 시위, 사생활, 임신까지. 미국 <플레이보이>가 돌아본 험난했던 2017년의 섹스 풍경을 소개한다.

by
liz suman & samantha saiyavongsa

HAPPY ANNIVERSARY



질주하는 카다시안 패밀리

비비드 엔터테인먼트가 김 카다시안의 비디오를 출시한 지 10년이 되었고, <카다시안스>는 14번째 시즌을 맞았다. <슈퍼스타>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고, 잠정 가치는 373만 달러를 기록했다.

안전한 아동

2007년 5월 개시한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는 22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폰허브는 직장에서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MUSEUM OF SEX

뉴욕의 섹스 뮤지엄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파티를 열었다. <플레이보이>가 기부한 자료를 포함한 3만 개 이상의 작품이 설치됐다.

PRIVACY PLEASE

한 남자의 초상권

문신으로 뒤덮인 남자가 여성의 맨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래퍼 카디 비의 눈길 끄는 앨범 재킷의 모델이 카디 비를 소송했다. 남자는 "자신은 그런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며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바람둥이들의 승리

기혼자들의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사용자들은 2015년에 발생한 금융 정보와 성적 취향까지 포함한 개인 기록 유출에 대해 대대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연방법원은 지난 7월 11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Docudrama

래시다 존스가 공동 제작한 섹스, 테크놀로지, 아마추어 포르노 스타들에 관한 넷플릭스의 다큐 시리즈인 <Hot Girls Wanted: Turn On>이 지난 4월에 공개됐다.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프로그램이며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다큐멘터리는 허가 없이 자신들의 비디오 스트리밍 영상을 사용했다는 두 여성에게 공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Hack is Whack

해커들이 또다시 스타들의 사적인 사진과 비디오를 훔쳐 인터넷에 무단 방출했다. 크리스틴 스투어트, 스텔라 맥스웰 등 표적이 된 몇몇 유명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며 그들과 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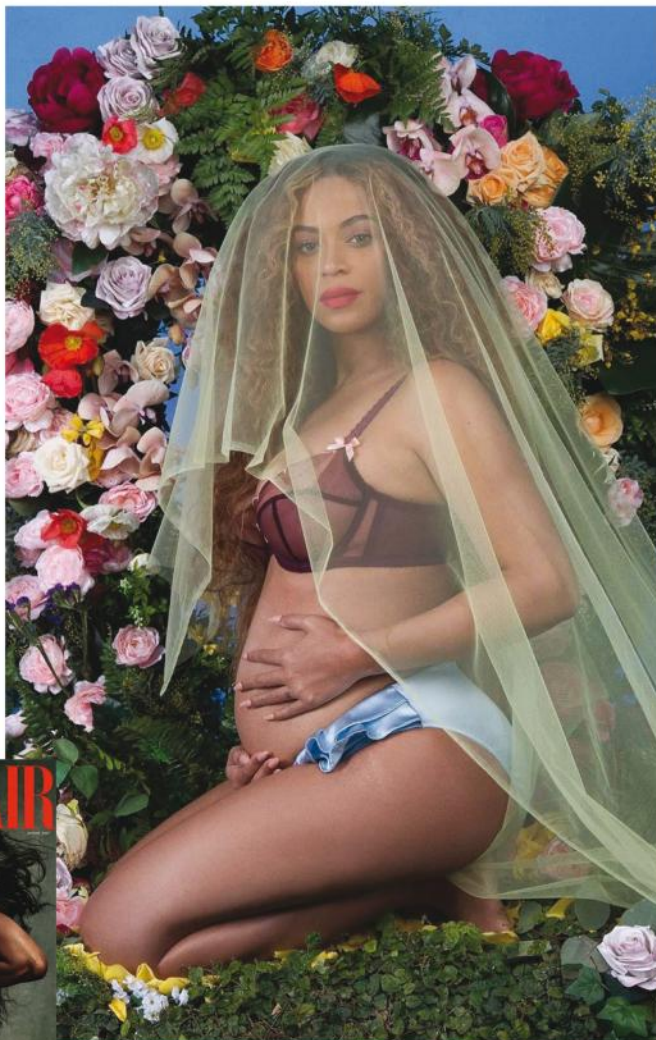
HOT MAMAS

OH, BEY-BEY

브라와 팬티 외에는 거의 입은 게 없는 비온세가 지난 2월 인터넷 역사상 가장 섹시한 임신부로 등극했다.

모성애와 섹시함

애니 레보비츠가 <배니티 페어>의 표지를 위해 임신한 데미 무어의 사진을 찍고 정확히 26년이 지난 지금, 세레나 윌리엄스가 레보비츠와 함께 배를 드러낸 포즈를 취했다. 모성애와 섹시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아름다운 예가 아닐는지.



PLAYMOM

2017년 올해의 플레이메이트 브룩 파워의 꿈 같은 맨션 사진은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하와이 여성이 출산 후 석 달 만에 촬영한 것이다. 이런 엄마를 둔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

NEW SLANG

2017년

귀를 솔깃하게 했던 새로운 은어.

HATFISHING

대머리를 감추려고 항상 모자를 쓰고 있는 행위

BREAKCRUMBING

관심이 아주 살짝 있다는 정도만 표현함

HALF-NIGHT STAND

밤새 같이 있지 않아도 되는 즉석 만남

GRAPEFRUITING

자몽에 구멍을 뚫어 사정을 이끄는 행위

DOOKBOY

페미니스트 섹파

TRANSCENDING



평등한 아름다움

성전환자로서 최초의 플레이메이트가 된 모델 이네스 라우는 플레이메이트가 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라며 감격했다.

희대의 트랜스젠더

백악관을 떠나기 전 버락 오바마는 군사기밀 유출로 실형을 선고받은 첼시 매닝의 감형을 요청했다. 매닝은 그 기념으로 성전환수술 이후 첫 사진을 공개했고, 곧이어 9월호 <보그>에 빨간 수영복을 입고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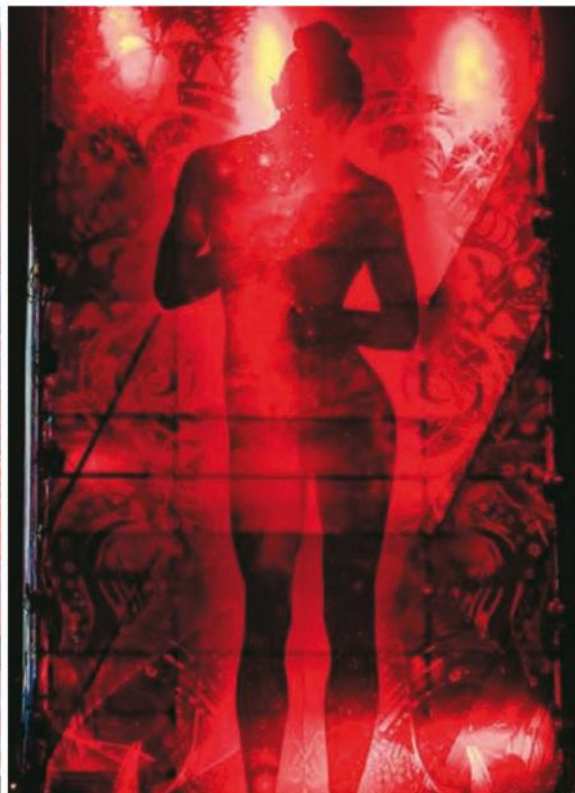
당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의 입대를 금지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즉각 대응했고, 지난 10월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12월, 미 국방부는 2018년부터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했다.

PUSSY POWER

여성의 힘

‘Our Evolution’이란 이름의 78m 디지털 전신 누드화는 미아 하드윅과 마티 케니의 작품이다.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심벌로서 지난 11월 내셔널 몰에서 3일간 전시되었다.



해방을 위하여

여성의 행진(Women's March) 3일 전, 이유 있는 노출로 알려진 예술가이자 사회운동가 나탈리 화이트는 철창 안에서 상체 누드를 선보이며 교도소 내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PUSSYHAT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여성의 행진이 벌어진 워싱턴의 거리에 핑크색 고양이 귀의 물결이 넘쳐났다. ‘푸시햇’은 미국 역대 최대 규모 시위의 비공인 유니폼이 되었다.



성기로 만든 배

일본인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는 자신의 외음부를 3D 스캔해 카약을 만들었고, 그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 죄가 인정되어 외설죄로 일주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쓸모없는 여자라는 뜻의 ‘로쿠데나시코’라는 가명을 쓰는 그녀는, 지난 10월 검열과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는 단체인 PEN America에 가입했다.



RECKONING



한 남자의 몰락

프로듀서 하비 와인슈타인은 수십 명의 여성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한 남자의 직권 남용으로 시작된 이 사태는 금세 미 전역을 덮쳤으며, 섹스와 권력과 성추행에 관련된 다른 유명인사들까지 밝혀지는 데 일조했다.

VOICE RISING

#MeToo 해시태그가 폭발적 반응을 보이며 확산되었다. 50만 건 이상의 성추행 사례가 트위터에 도배했다.

rose mcgowan @rosemcgowan
1) @jeffbezoz I told the head of your studio that HW raped me. Over & over I said it. He said it hadn't been proven. I said I was the proof.
1:03 PM - 12/06/2017

Alyssa Milano @Alyssa_Milano
If you'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write 'me too' as a reply to this tweet.
Me too.

Suggested by a friend: "If all the women who ha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wrote 'Me too.' as a status, we might give people a sense of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BARE IS THE NEW BLACK

SHEER GENIUS

마크 제이콥스는 지난 9월, 캔달 제너리아가 입을 시스루 의상으로 뉴욕 패션 위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TEEING OFF

브라를 하지 않은 모델들이 '여성이 미래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 등의 항의 문구를 프린트한 프라벨 구름의 티셔츠를 입고 런웨이를 누볐다. 이 작품은 여성의 행진(Women's March)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평등을 입다

캘빈 클라인은 가을 컬렉션에서 남녀 모델에게 투명한 플라스틱 메시 톱을 입혔다. 성평등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건 알지만, 1000달러가 넘는 가격은 계급 간 평등까지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SEX SELLS

마이크 액하우스와 조 라타 콤비는 광고사진을 위해 커플에게 실제 성행위를 요구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그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CIRCLE OF LIFE

신세대와 사체의 성생활에 대한 연구.

DEAD SEXY?

인간의 사체를 표본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권터 본 하겐의 전시 〈Body Worlds: Pulse〉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서 열렸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작품은 성행위 중인 커플 사체의 표본이었는데, 채워진 여성 상위였다.

뜨거운 나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남녀가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령으로 뽑혔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112번의 섹스를 한다는데,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TREASURE CHEST

젊은 남성들의 유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남성 포르노 소비자들 중 20%가 넘는 남성 포르노 사이트의 통계 결과가 나왔다.



GOOD TIMES

THE RUBDOWN

독일의 펌 팩토리가 제작한 미래파 디자인 'Cobra Libre II'는, 에로틱 마사지가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해준다.

나만의 섹스 토이

DIY 애호가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SexShOp 3D.com으로부터 항문 마개, 진동 안장 같은 원하는 섹스 토이 디자인을 다운받아 3D 프린터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MELL-O VISION

방독면으로 보면 오해다. 이것은 '캠소다'가 개발한 VR 기기로, 시각뿐 아니라 냄새까지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NICE PACKAGE

회원들에게 석 달에 한 번씩 음경링, 유두용 연고처럼 엄청난 섹스 토이를 발송하는 언바운드 서비스가 시작됐다.

DUPED BY GOOP

기네스 팰트로스는 그녀의 웹사이트인 'Goop'에서 요니 에그의 홍보를 한 후 많은 비난을 받았다. 욕으로 만든 달걀형 질 내 삽입물인 요니 에그는, 여성의 성적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 것. 하지만 아직 의학적 근거는 입증되지 않았다. Goop은 1만5000달러의 도금 바이브레이터도 홍보 중이다.





AM I A FUCKBOY?

**‘픽보이(Fuckboy)’란 말에 상처받은
남자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
구강성교를 싫어하는 여자친구의 성생활이
고민인 사람을 위한 한마디는 어떤 걸까?**

**미국 <플레이보이>로 알려진
남자들의 깊은 고민에 섹스 칼럼니스트
브리짓 페터시가 확신에 찬 말투로
조언한다.**

by
bridget phetasy

A.K., 텍사스주 오스틴

Q: 캠퍼스 앞 근처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차였습니다. 그녀와 전 최근 두 달간 데이팅도 하고 후끈한 섹스도 여러 번 한 사이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문자로 받았거든요. ‘미안해, 더는 너 같은 픽보이(Fuckboy)랑 데이트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큰 문제는 저는 아직 그녀가 말한 ‘픽보이’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픽보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픽보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A: 충분히 혼란스러울 만해요. 픽보이(Fuckboy)의 뜻은 수십 가지로 해석되니까요. 꼭 집어 설명하면, 온갖 종류의 결점을 가진 남자라는 뜻이죠. 인터넷 사전 어번 딕셔너리(Urban Dictionary)를 보면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유저들이 내린 정의가 600개가 넘어요. 그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정의는 “조다 같은 호구새끼”예요. 요약하자면, 픽보이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뜻하는 바가 다른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섹파(Booty Call)와 비슷한 뜻이라고 예상했어요. 특정 남자가 맘에 들지 않을 때, 덜렁거리는 물건의 욕구를 해소할 생각으

로 가득 찬 남자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죠. 그러다 얼마 전 제 섹스 파트너에게 “이 픽보이야!”라고 했더니, 그가 열 받아서 한 소리 하더군요. “너 지금 그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설명해달라고 했죠. “내가 호구가 아니기 때문이야.” 저는 이 파트너를 통해 픽보이의 뜻이 자기 주관만 내세우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섹파와 픽보이를 구분하는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에 픽보이가 가리키는 정확한 대상은 남자라는 통상적인 관념을 떠올려보세요. 내 친구 마리

사는 픽보이를 “어울려 다니는 사내 친구들의 여성 혐오적인 견해에 따라 사는 망나니”로 정의해요. 또 다른 친구 미란다는 이러더군요. “자신이 사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기를 쓰지만 실제로는 남자답지 못한 사내는 누구나 픽보이야. 예를 들어, 돈을 내야 하는 순간마다 여자가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인간, 또는 자기 의도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인간이 그런 작자야.” 또 다른 친구 엠버는 픽보이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순전히 상대의 옷을 벗기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려는 사내놈들. 그 작자들은 너무 심한 착각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라 눈곱만치도 믿을 수가 없고, 진지하게 대할 가치도 없어.”

이 단어를 깊게 파고드니, 픽보이는 부분적으로는 호구이고 부분적으로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류로 보이고 싶지 않다면, 아래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세요.

①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세요. 문자를 보내겠다고 했다면 제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요. 갑박하고 나중에 그녀의 SNS에 변명하고 사과하는 DM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② 데이트할 땐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픽보이의 전형적인 행동은 데이트 내내 전화기만 쳐다보다



헤어진 후에는 여자의 문자를 씹는 거예요.

③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고 사정하지 마세요.

④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들면, 그녀를 공적인 자리에 데려가 친구들에게 인사시키세요.

⑤ 여성 혐오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행동은 레드카드예요. “원나이트 상대보단 우정이 먼저” 같은 문구는 1990년대에도 통하던 거예요. 당신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라는 뜻이에요.

⑥ 진지한 관계를 맺기 싫다면 솔직히 밝히세요. 그리고 당신 같은 픽걸(Fuckgirl)을 찾아보세요.

⑦ 픽보이에 대한 정의와 의견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든, 이것만큼은 진실이에요.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 픽보이인지, 척 보면 알아요. 데이트 상대가 당신을 픽보이라고 부른다면,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중하세요.

R.S.,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Q: 친구가 개최한 파티에서 만난 상대와 끝내주는 데이트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데이트 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죠. 그래서 그녀에게 내 침실을 구경하고 싶지 않은지 물었어요. 그녀는 90일간의 금욕 생활을 막 시작했다며 거절하더군요.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과연 이 여자와 석 달씩이나 섹스를 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전념할 수 있을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A: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녀와의 관계에서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이 진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녀 곁을 떠나세요. 원한다면 언제든 섹스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스마트한 시대에, 단지 섹스만을 위해 석 달씩이나 한 여자에게 허비하는 수고를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육체적 관계 이상의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질문엔 이미 섹스만이 아닌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을 말하는 여자 또한 괜찮은 연애 상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녀가 금욕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밝힌다면, 그녀는 당신이 그 여자와 뒹구는 걸 허용해줄 거예요. 그러는 동안, 당신은 상대와 데이트하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가고 두 사람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명심할 건, 온갖 여자와 뒹굴고 다니면서 ‘내게 진정한 여자는 한 여자뿐이다!’라는 망상은 하지 말고요. 그러다간 훗날 당신이

곤경에 빠질 만한 함정을 파는 셈이 될 거예요.

C.H., 오하이오주 유클러드

Q: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골수 공화당원과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고요. 우리 사이의 날 선 긴장감은 나날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죠?

A: 대선 결과를 보고 느낀 패배감을 놓지 못하겠다면, 그 감정이 연애에도 악역향을 미친다면, 또는 성숙한 어른처럼 정치에 대해 논쟁하며 상대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그녀가 당신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하세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것만큼 치욕적인 삶은 없습니다.

G.M., 애리조나주 투슨

Q: 사귀는 여자가 구강성교를 싫어해요. 이유를 물으니, 오를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간단히 대답하더군요. 어떻게 하죠? 이 문제가 우리 커플 생활의 커다란 골칫거리입니다.

A: 당장 그녀와 관계를 끊어야죠! 농담입니다.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할게요. 당신은 침대에서 그녀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걸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네요. 당신이 그녀에게 입으로 해준다는 가정 아래 대답을 계속할게요. 그런 경우, 지금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피해와 이익에 대해 분석해야 해요. 당신의 성생활에서 오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선 저는 침대에서 피리 부는 걸 싫어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 여자들에게 농담처럼 말하곤 하죠. “남자들은 오를을 당신보다 더 사랑할 거예요.” 그녀는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요? 그녀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나요? 두 사람의 관계에 부족한 건 그것뿐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일부일처제로 살아가는 여성 동안 오를을 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나요? 지금은 당신 자신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야 할 때라고 봐요. 그것이 정녕 시원하게 굶어줄 필요가 있는 가려움이라면, 당신은 결국 어딘가 다른 곳에서 굶고 오겠죠. 내가 데이트 문제와 관련해 어렵짐작으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훗날 일간이가 되는 걸 피하려면 지금 갖은 노력을 기울여라.’ 두 사람의 연애 감정이 최고조에 올라 있다면, 이걸 대화로 풀 문제예요.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자들이 오를을 싫어하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걸, 목젢이 민감한 탓에 반사적으로 구토를 해서 그럴 수도, 모욕적인 기분

이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녀가 오를은 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경우, 강요하지 마세요. 차라리 당신의 관심사를 더 잘 공유할 다른 여자에게로 옮겨갈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K.W., 미네소타주 덜루스

Q: 이번 겨울을 싱글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가 됐어요. 주변 조언을 듣고 데이트 앱을 시작했는데, 제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여자에게는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의 맘을 단번에 가로챌 작업 멘트 같은 게 있나요?

A: 우선, 당신은 연애의 사이클을 거꾸로 타고 있어요. 제 생각에, 당신은 봄에 헤어지고 가을에 살림을 차려야 옳아요. 여름에는 짧은 정사를 즐기고, 겨울의 길고 추운 밤이 닥쳤을 때가 돼야 한 여자에게 정착하는 게 제대로 된 사이클이에요. 여담은 이쯤 하고, 이제 당신의 질문에 답변할게요.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데이트 앱은 영화에 등장하는 로맨틱하고 푸근한 만남의 짝을 뿔아버리고는 새로운 이성과 만날 기회까지 앗아갔어요.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작업 멘트 날리기’는 멸종해가는 헌팅 기법이에요(2016년 옥스퍼드 인터넷회는 tinder 같은 데이트 앱에서 발송된 전체 메시지 중 49%가 씹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탓에 처음 보는 여성에게 솔직하고 우호적으로 자기소개를 했다간 소름 돋는 인간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당신이 구닥다리 방식을 선택했다면, 100% 먹히는 작업 멘트 같은 건 없다는 걸 인지하세요. 여자들은 결만 번드르른 거짓된 작업 멘트의 냄새를 1km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여성과 상황을 ‘케바케’라고 가정하고 평가해보세요. 언젠가 어떤 남자는 커피숍에서 멋들어진 카드 트릭을 부려서 나를 낚은 적도 있다는 게 힌트예요. 다른 경우, 애견 공원에서 자주 만난 어떤 남자가 각자의 개들이 썩 똥을 치우던 중에 이러더군요. “우리,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그만둬시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멘트였어요. 모르는 이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여성들의 영업 성공은 10%가 영업용 말에, 90%가 그 멘트를 날리는 방법에 달려 있어요. “당신한테 한잔 살 수 있을까요?” 묻는 대신, “당신이 마시는 술은 어떤 건가요?”라고 묻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과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짝 펴야 한다는 거죠. ❶

귀를

더 듣고 의식하고 생각할수록, '진실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MeToo'는 멀리 있지 않다.

기울 이면

물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일상에서 무심하고 둔했던 것들이라 말할 수도 있다. 남자라 좀체 의식하지 못하던 것들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누군가와 의 동승을 망설이거나, 카카오톡의 '안전귀가 메시지'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엘리베이터를 남자와 단둘이(그러니까 나와) 타게 되는 상황을 썩 반기지 않고, '안전귀가 메시지'를 이용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그저 세상이 흥흥해졌네,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원래 그랬을 것이다. 나만 몰랐을 뿐. 누가 옆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과속하거나 불친절한 택시기사와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큰 위협을 느낀 적은 없다. 하지만 여성들 예전 매일 느끼는 위협이자 위협일 것이다. 그렇게 남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일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본다. 다행히 그런 나의 무심함을 깨닫고 최대한 감각을 깨워보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12월, 올해의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을 선정했다. 미투(#MeToo) 운동에 참여하며 개인적 경험을 공론화해 성폭력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사람들을 뜻한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제작자하비와인스타인의성폭력을 고발하며 촉발된 미투운동은 새해가 되어도 멈추지 않고 수많은 유력 인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비와인스타인은 물론 코미디언 루이스 C. K., TV 쇼 진행자 맷 라우어, 배우 케빈 스페이시 등이 즉각 회사에서 쫓겨나거

나, 제작 중인 프로그램이 중지되는 등 일자리를 잃었다. 사진가 브루스 웨버는 모델에게 고소당했고, 테리 리처드슨은 <보그>와 <배니티 페어>를 발행하는 콘데나스트 사로부터 작업 중지 통보를 받았다.

대개 남자들의 입장과 사과는 비슷하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혹은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때 상처를 입었다면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도라는 말을 곧 의식으로 바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성들은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치스러웠던 게 아니다. 그때부터 의식하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세월을 견뎌낸 것뿐이다.

그러니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새롭게 닳을 올린 '타임즈업(Time's Up)', 시간이 다 됐다는 캠페인 작명이야말로 중의적으로 적절하게 들린다. 한쪽은 아예 시간을 잊었고, 한쪽의 시간은 역겹게 걸린 것이다. 올해 1월,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타임즈업' 캠페인을 위한 무대 같았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또한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으나)과 '타임즈업' 배지를 단 남자 배우들이 레드 카펫을 걸었다. 사회자와 시상자와 수상자 할 것 없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흑인 여성 최초로 공로상 격인 세실 B. 드밀 상을 수상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한다. "오랫동안 여성들이 남성의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해도, 그 끝에 귀 기울이지거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남자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소녀들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힘 있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 오프닝 모놀로그를 맡은 세스 마이어스는 도입부에서 슬쩍 지나가는 농담처럼 '남아 있는 남자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옷거나 옷지 않았거나. 그리고 그 '남아 있는 남자들' 중 한 명이던, 같은 날 '타임즈업' 배지를 달고 TV 뮤지컬·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TV 시리즈 <마스터 오브 제로>의 아지즈 안사리는 얼마 후 성추행 폭로의 주인공이 되고야 만다. 물론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 사건과는 다소 경구가 다르다. 아지즈 안사리는 "합의 하에 이뤄진 일"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여론과 언론의 대응도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인터뷰로 사건을 공론화한 '그레이스'라는 가명의 여성은 그가 상 받는 모습을 보고 폭로를 마음먹었다고 한다. 아지즈 안사리는 그날 '타임즈업' 배지를 달았고, 오래전 공개적으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 선언한 남자다. 그는 평소의 논지대로 공식 입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앞으로도 응원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든, 아지즈 안사리는 지금보다 여성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조심스레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 이 소식을 들은 남자들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경험으로 말한 '진실의 힘'의 깊이를 감히 가늠해볼 수는 없겠지만 때로 우리는 그 진실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식하는, 그런 노력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②



“오랫동안 여성들이
남성의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거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은 끝났습
니다.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소녀들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Me[♀]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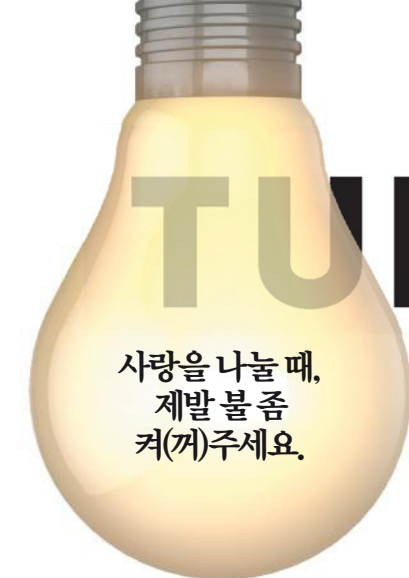


우리는 벽이 온통 흰색인 거실 소파에 있었다. 밖은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안의 색온도가 점점 변해갔다. 겨울이니까, 요즘은 오후 5시 즈음부터였다. 과하지 않은 술, 가벼운 안주, 농담 같은 영화. 그러자고 만난 것도 아니지만 안 그러기도 섭섭한 긴장이 우리 사이에는 있었다. 모르는 척 손등을 쓰다듬거나 어깨에 기댔 때마다, 살과 살이 닿을 때마다 놓치기 싫은 감각이 점점 풍성해졌다. 우리는 이 약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말은 누가 했지? 약하고 투명하고 부드러운 손이 닿는 어디라도 좋았다.

5시에 흰색이던 방이 5시 반에는 노란색이 되었다. 6시 즈음에는 주황색을 거쳐 점점 붉어졌다. 7시에는 모닥불처럼 타오르다 이내 검은색이 되었다. 창밖에 보이던 산이 사라졌다. 마침내 해가 사라졌다는 뜻이고, 그야말로 완곡한 허락 같았다. 우리는 좀 더 과감해졌다. TV는 그녀가 켰다.

어두울 때 가까스로 자연스러워지는 일들이 있다. 우리는 둘이 있을 때 특히 좋아지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옆에 있어도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그럼 더듬어 찾아야 하니까. 그야말로 본능 같았다. 우리는 조금만 힘을 줘도 지워질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서로 위태로워했다. 처음은 아니었는데, 막 시작한 밤에 예의를 차리듯이 그렇게 했다. 얼굴에서 시작한 손이 손 위에 닿았다가 목에 닿았을 때의 연약함을 절감하다가, 등 뒤를 거쳐 가슴에 닿았을 때 들리는 깊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식이었다. 잘 안 보이니까 더 예민해졌다. 어디가 어떻게 단단해지는지, 그게 못내 예뻐서 허끝을 댔을 때 그 부드러운 배가 어떻게 경련하는지, 턱과 쇄골 사이에 있는 그 근육이 도드라질 땐 또 무슨 뜻이 있는지 내내 궁금해했다. 알면서도 그랬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다. 이대로 몇 시간이 지난다 해도 좋을 것 같았다. 욕심이 더 커진 건 둘 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즈음이었다. “잠깐만.”

몸이 잔뜩 긴장했으니 그녀의 대답은 탄식이었다. “보고 싶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뭘 더 보고 싶은 거냐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 평소보다 동그해진 눈이 웃으면서 묻고 있었다. 실은 다 볼 수 있었으니까.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 채, 눈은 이미 적응하고 있었다. 유난히 흰 피부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었다. 오로지 피부에 서만 나는 빛과 윤기를 보는 일도 황홀하긴 했지만, 오늘은 꼭 보고 싶은 게 있었다. 불을 켜야 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었다. “잠깐, 불 좀 켜고 올게.”



다 볼 거야

숨털이 다 일어나서 예민해지는 순간,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 윤기, 서서히
흐려지는 초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시간이라서.

by
정우성

칼럼니스트 정우성은 한국과 당신,
우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쓴다. <GQ>와 <에스콰이어>에서 일했다.

만, 오늘은 꼭 보고 싶은 게 있었다. 불을 켜야 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었다. “잠깐, 불 좀 켜고 올게.” 거실엔 세 가지 조명이 있었다. 일단 형광등. 누군가는 반드시 형광등이어야 하는 밤도 있을 것이다. 형광등 아래선 모든 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하니까. 그럴 때만 느끼는 흥분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서. 피부 아래 도드라지는 파란 핏줄을 보면서 흥분하거나, 내 혀가 지나간 자리마다 묻어 있는 얇은 침의 레이어까지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형광등을 선택했을 것이다. 숨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끝에 바람만 닿아도 어떤 탄식이 터지는지를 관찰하고 싶은 밤이라면 기꺼이. 하지만 형광등 스위치를 켤 때마다 어쩐지 <전국노래자랑> 같은 느낌을 피할 수 없기도 했다. 그들이 39년째 일관되게 꾸밈없이 보이는 비결도 그 빛이었다. 음영도 없이 모든 결과 색을 그대로 노출하는 빛. <전국노래자랑>의 미덕은 자연광이고, 한낮의 자연광 아래선 출연자나 송해 선생도 뭘 감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날 우리가

지 <전국노래자랑> 무대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중요한 건 균형이니까.

TV를 켜면 누가 훑쳐보는 느낌으로 절정을 맞을 수도 있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피부색이 변하는 데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었다. 혹은 아주 일상적인 느낌에 젖을 수도 있겠지. TV야말로 외로움 틈도 없이 안온했던 일상의 상징이니까. 하지만 TV를 다시 켜자마자 나오는 VOD 예고편에서 강호동이나 송강호의 얼굴을 보는 일이야말로 끔찍했다. 듣기도 싫었다. 넷플릭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는 <워킹태드>였다.

혹은 50와트 백열등을 벽으로 비출 수 있었다. 강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 조명이었다. 스탠드 머리의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해 질 녘에 그윽했던 그 색을 연출할 수도 있었다. 오래 쓴 전구니까, 지금 켜면 그대로 개와 늑대의 시간에 가까운 어스름을 볼 수도 있었다. 오늘이라면 오후 6시 40분 즈음, 영하 10℃에 가까운 겨울 저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저 따뜻하고 안락했다가 이내 위태로웠던 그 색. 우리는 이미 위험한 동물이었다. 백열등 스위치를 켜고 스탠드 머리를 멀리 향하도록 두고 다시 소파로 갔다. 시작했을 때, 그녀의 눈이 반쯤 감긴 채 초점마저 흐트러진 건 빛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자꾸 내 목을 끌어안았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다시 몸을 일으켜 눈을 맞췄다.

“부끄러워.”

음소마다 말줄임표와 내쉬는 숨이 배어 있었다. 빛과 관계없이 솔직하고 적나라해서, 어쩌면 몸보다 부끄러운 표정인지도 몰랐다. 말이 다 끝나기 전에 그녀의 눈이 다시 반쯤 감겼다. 나는 보고 있었다. 양쪽 볼에 노을이 짙어지고 있었다. 색온도가 변하면서 균일하게 붉어지기 시작했다. 미간 사이에 귀여운 주름이 잡히면서 꿈을 거렸다. 검은 자위가 조금 커지는 것 같기도 했다. 나를 보는 것도, 누굴 의식하는 것도 아닌 상태. 가장 은밀하면서도 자유로운 순간의 표정. 어쩌면 이 얼굴을 보려고 서로에게 열중했던 시간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었다. 은은하고 위험한 저녁의 끝이었다. “보고 싶어.”

다시 말했다. 그녀한테는 대답할 틈이 없었다.

TURN OFF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이 켜질 순간이 부끄러울 정도의 일은 해야지. 어둠에 가려진 몸은 거칠 게 없으니까. 암막 커튼으로 도시의 빛을 차단하고, 인공적인 조명도 모조리 꺼버린 이 공간은 내일 아침 날이 밝아온다 해도 여전히 캄캄한 채로 우리 둘을 가려줄 것이다.

남자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상체를 깊숙이 숙여 고양이 스트레칭하는 자세를 취하면 남자는 나의 허리를 양손으로 꼭 붙잡았다. 이어 한 손으로 척추뼈를 쓰다듬어 내리다 꼬리뼈에 닿으면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아주 멋진 몸이라고 말해주곤 했다. 흠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여체라기엔 비올적으로 골반이 빈약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단점마저 그렇게 말하는 남자 앞에선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터였다. 남자는 내 몸을 낱알이 살 펴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밝음, 아니 어두운 조명이라 해도 빛이 내려와 나를 비추는 상태에서는 몸이 완벽하게 열리지 않았다. 남자는 사려 깊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고층 호텔에서라면 유리창에 날 붙여두고 야경을 바라보며 뒤에서 탐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텐데 남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커튼부터 쳤다. 나와 보낸 몇 번의 밤에서 내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를 읽어낸 남자에게 전망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 남자의 행동은 오늘 밤 내가 해야 할 일을 군더더기 없이 설명하고 있었다. 몸을 자유롭게 쓸 것. 전하고 싶은 느낌을 수줍어하지 말고 펼쳐 내보일 것. 남자의 시선 안에서 어떤 나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서 내가 될 것.

불이 꺼지면 극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의 놀이는 암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남자는 자신 앞의 나를 더듬더듬 만져 양쪽 어깨를 찾아 쫓았다. 이어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남자는 순식간에 나를 알몸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천이 서로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는 옷이 벗겨진 뒤에도 유난히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평소라면 잘 들리지도 않을 소리도 시각을 잃자 커다랗게 증폭되었다. 옷을 벗는 등 마는 등 서



어둠이 가져다준 자유

우리 둘의 놀이는 암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by
현정

현정은 <사랑만큼 서툰고 어려운>, <자립명사:연애>의 저자로 홀약인간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두르며 침대에 뛰어들 때와 달리 까만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느릿해지고 늘어졌다.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당했다.

어둠 속에서는 팔로 몸을 감출 필요도, 다리를 받듯하게 붙이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어떤 형태의 나라도 상관없었다. 삽입한 후에는 남자의 감각이 시각보다 다른 곳에 몰려 그곳에 집중되는 게 느껴지면 긴장을 풀 수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몸에 힘을 잘 풀지 못했다. 보는 것으로 얻게 되는 정보는 얼마나 많은 양이 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되는지, 그렇기에 무의식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나에게 섹스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기 위한 일이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컴컴함 속에서 안락함을 느꼈다. 빛이 사라지자 나 역시 시각을 제외한 다른 몸의 감각이 터져버릴 것같이 예민해졌다.

그 순간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몸의 다른 곳이 움찔거리며 반응했다. 그저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몸속에서 무언가 왁자 터졌다. 남자가 다시 한번 나를 불렀다. 남자의 목소리가 이토록 저릿했었다. 계속 내 이름을 불러줘. 간절한 요구였다. 늘 듣던 목소리인데 내 몸의 어떤 스위치가 올라가버리고 말았다. 청각이 자극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을 만져볼 수 있게 내 다리 사이로 남자의 손을 인도했다. 손끝에 닿는 미끈거림이 남자의 흥을 돋운 것일까? 남자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더 깊은 곳에 스며들고 싶어 하는 그 손가락의 진로를 틀어 입으로 가져왔다. 내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남자의 일부를 정성스럽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빨고 빨아냈다.

남자는 시각을 차단한 것만으로 이렇게 변한 내게 놀란 것 같았다. 남자는 커다란 손으로 내 눈을 덮고 지그시 눌렀다. 완벽하게 눈이 가려진 내가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듯이. 눈꺼풀에 닿은 남자의 손이 뜨거웠다. 나의 탐욕스러움을 복돋아주기 충분한 온도였다. 내 입안을 휘젓고 있는 손가락의 자극이 나를 묘하게 끌어올렸지만 조금 더 강한 것과 닿고 싶어졌다. 보이지 않자, 그리워졌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남자의 것을 자극하기 위해 손이나 입을 쓰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입을 앙 다물고 눈을 질끈 감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남자의 몸을 더듬어 원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단단하고 따뜻한 그것. 혀끝으로 살짝 감싸자 남자의 틈새에서도 미끈한 것이 새어 나왔다. 그맛도 나쁘지 않았다.

가득 차올라 입안 구석구석에 와닿는 느낌이 좋았다. 조금 더 욕심이 났다. 그것을 붙잡고 있던 손을 떼고 목 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다. 목에 가득 차 호흡이 힘들었다. 구역감도 올라왔다. 나는 객 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깊숙이 넣었다. 배어나온 눈물에 마스카라랑 아이라인이 번지고 버건디로 반듯하고 질게 채운 입술도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런 얼굴을 남자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만족스러웠다. 남자는 그런 나의 머리를 감싸 쥐고 보이지 않는 몸을 더 깊이 밀어붙였다. ❶

1

증강현실과 휴대전화

테크 세상이 그리는 혼돈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려는 시도는 종종 헛된 노력처럼 느껴진다. '스마트 주스기' 주세로(Juicero)로 케일을 착즙하는 것 같은 유행이 급격히 소멸한 반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흥행에 성공한 상품은 우리가 완전히 간과한 문제들을 짚어낸다. 물론 이런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확고한 선언이 등장하기도 한다. 2018년에는 디지털과 실제 물리적 세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음성 어시스턴트와 인간의 단순노동을 '아웃소싱' 받을 인공지능이 그 예다. 로봇 기술의 극적 전환점이 되는 해라 말할 수도 있다. 2018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재미있고, 심지어 섹시하게 만들 멋진 물건으로 가득 찬 해일 수 있다.

가상현실(VR)이 단순히 비싼 기술 이상의 것이라며 대중을 설득하는 동시에, 테크 업계 거물들은 증강현실(AR)에 투자하는 중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그래픽이 그 대상이다. 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반짝 마니아를 양산한 '포켓몬 고'는 가장 유명한 증강현실의 예다. 2018년에는 리자몽을 잡는 것 외에도 훨씬 다양한 시도가 생겨날 것이다. 구글 글라스라는 오만한 재앙에도 굴하지 않은 구글은, 바로 옆 친구에게 증강현실 스티커(커피잔이나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데모고르곤 등)를 붙일 수 있게 해주는 ARCore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스냅챗의 춤추는 핫도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애플의 개발자용 ARKit은 좀 더 현실에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케아 플레이스'는 테이블을 구입하기 전 실제 방 안에 어떻게 놓일지 볼 수 있도록 돕고, 소셜 스타트업 '네온(Neon)'은 사람들 사이에 증강현실 표지판을 띄워 페스티벌에서 친구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2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사

많은 사람들이 <그녀>(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입은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지는 외로운 남자의 불안한 시선을 그린 스파이크 존스의 영화)를 보고, 불편할 정도로 가까워진 디스토피아에 소름 돋았을 것이다.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었다. 아마존 에코부터 구글 홈까지, 음성 어시스턴트는 미 전역의 가정에 조용히 침투 중이다. 아마존 에코가 장착된 스피커는 지금까지 1000만 대 이상 팔려나갔다. 2017년 후반에 출시한 애플 시리를 탑재한 홈팟과 구글의 새로운 홈 미니,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마존 에코의 신제품 등으로 2018년엔 '가상 집사'의 유행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물론 대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야기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이 흐름은 멈출 수 없다. 더 멀리 내다본다면, 이메일 기반 인공지능으로 업무 미팅을 정리해주는 엑스.에이아이(x.ai)의 에이미가 아마존의 알렉사에게 트래픽 업데이트를 부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18 TECH FORECAST

귀여운 드로이드부터 똑똑한 피임까지, 우리 삶을 바꿀 다섯 가지 아찔한 혁신.

테슬라의 '파워월' 홈 배터리



에이바(Ava)의 팔찌와 앱



드론 대신 드로이드

드론의 인기는 급감했지만 여전히 아마존은 무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미국 공역 규제가 아마존을 방해하는 동안, 한편에선 좀 더 현실적인 솔루션을 떠올리고 있다. 테크 기업이 많기로 유명한 에스토니아 출신의, 전 스카이프 임원들이 창립한 로봇 스타트업 '스타십 테크놀로지스'는 특정 지역에 한해 각종 배달을 수행하는 무인 지상파 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무료 높이의 로봇이 현관문 앞까지 오면 스마트폰 앱으로 잠금을 해제한 뒤 주문한 물건을 받고, 로봇은 그냥 되돌려 보내면 된다. 동네 꼬마들이 이 로봇을 가로채 도랑에 던져버린다면 이 아이디어는 어리석은 짓이 되겠지만, 스타십은 이미 보안 문제까지 고려해두었다. 누군가 로봇을 가로채려 하면 알람이 울리고 카메라가 즉시 작동한다.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길거리를 장악하기 위해 배송 서비스 포스트메이츠와 제휴를 맺은 스타십의 이 로봇은 아마존이 토끼라면, 극도로 침착한 거북이처럼 보인다. 배달부만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스탠리 로보틱스는 인공지능 견인 로봇과 정확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야외 주차 서비스를 출시, 더 이상 과거처럼 더듬거리며 발레파킹 티켓을 찾을 필요가 없을 듯하다.

배터리 넣는 집

우주 여행부터 LA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에 긴 터널을 뚫겠다는 계획까지, 엘론 머스크는 언제나 제임스 본드 영화의 악당같이 흥미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 CEO의 가장 매력적인(그리고 달성 가능한) 최근 계획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일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테슬라의 그 유명한 리튬이온 파워팩을 응용한, 거대한 가정용 배터리인 테슬라 '파워월'의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꽤 단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파워월은 작동되지 않는 동안 태양광 패널로 재생에너지를 저장해 돈을 절약하고, 정전에 대비하고,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을 배전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파워월은 2015년 처음 출시됐고, 개조한 5500달러(약 585만 원)짜리 버전은 올해 배송을 시작한다. 언제나 그렇듯, 한 회사가 업계를 주도하는 것이다. 다음 주자로는 LG(캘리포니아의 태양열 전문 기관 선런(Sunrun)과 합작)가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저장 유닛을 들고 나온다. 2018년엔 이 기술이 실리콘밸리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대중화하는 트렌드가 되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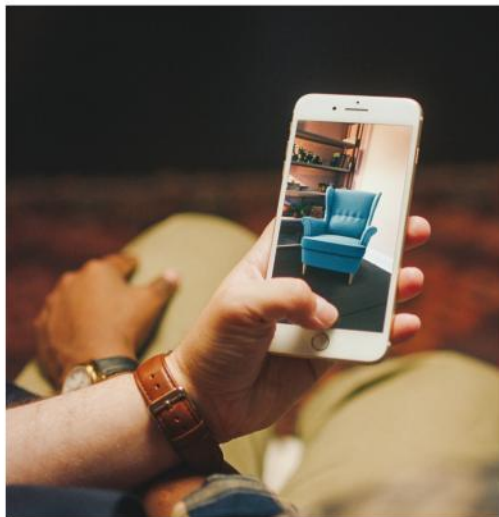
스마트 피임법

스마트폰으로 피임 효과가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틴더에서 매치된 상대에게 무분별하게 이모티콘을 보내 자기 기회를 날리는 현상을 뜻하는 게 아니다.) 스마트 워치 타입의 에이바(Ava)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임기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생리 주기를 측정해 임신 혹은 피임을 돕는다. 아이폰의 '건강' 앱 또한 이런 전통적 주기 측정 방식을 쓴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스웨덴의 입자물리학자 엘리나 베르글룬드(Elina Berglund)가 개발한 앱 겸 체온계 '내추럴 사이클(Natural Cycles)'이다. 배란 주기를 기록한 알고리즘, 기초체온 및 기타 데이터 등을 모두 사용해 임신 가능성을 계산한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경구 피임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나 라텍스 콘돔의 환경 파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내추럴 사이클은 매달 약 1만 명의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더불어 내추럴 사이클은 작년 유럽 연합에서 최초의 '디지털 피임법'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완벽하게 잘 사용한 경우, (경구 피임약의 피임률과 같은) 99%까지 확률이 올라간다. 아직 미국에서는 인증받지 못했지만, 내추럴 사이클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제 섹스와 데이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

by

jimi famurewa

'이케아 플레이스' 앱의
구동 장면



시리를 탑재한
애플 홈팟

평창에 묻는다

ECONOMY

이런 거대한 국제적 이벤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우리 이미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그 여파를 경험했다. 평창올림픽은 평창 지역경제, 나아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by
김치형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유발과 관광 수입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로 파생되는 다른 부분의 소득과 고용 증대, 여기에 대회 개최 이후 관광 수익 증가,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경제 연구기관은 평창 올림픽 개최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를 64조 원 정도로 추산한다. 경기장 건설과 사회인프라 투자 등으로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21조 원,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의 간접 효과로 43조 원을 얻을 것이라 전망한다. 물론 이런 경제 효과 추론은 숫자 놀음에 불과할 수 있다. 올림픽을 위해 만든 여러 시설은 대회가 끝난 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손실 덩어리로 짐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최근 회의적 시각을 갖는 언론이나 학자가 많다. 스포츠 이벤트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개최국의 투자 비용은 증가하지만 IOC 등 주최 기구들이 방송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가 이어지며 주최국의 수익은 크게 줄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이런 메가급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잘만 이용하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는 평창 올림픽 개최의 경제 효과가 적고 많음을 따질 시기도 지난 상황이다.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미 우리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통해 메가급 스포츠 이벤트가 가져다주는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충분히 경험했다. 더구나 북한의 참가가 결정되며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추는 이미 던져졌다. 이 추가 최대한 멀리, 그리고 오래 구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

지역경제로 좁혀보자면, 평창이 올림픽을 통해 얻는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은 교통망의 확충이다. 경강선 KTX가 뚫리며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동서고속도로도 완공됐다. 강원도 주요 도시의 접근성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폭 좋아진 것이다. 이 같은 접근성의 개선은 올림픽 개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강원도 왕래를 이끌 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관광객의 증가인데, 이 지역 상권은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과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평창은 물론 강릉의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경강선 KTX의 개통으로 강릉 부동산 시장이 들썩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물론 몇몇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강릉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것이라 전망도 내놓는다. 하지만 서울에서 2시간이 안 되는 접근성은 부동산 투자 수요는 물론 숙박, 레저 시설에 대한 투자 욕구도 자극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또 다른 개발 수요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 강원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치형은 <한국경제TV>의 정치부 기자다. 매주 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에 패널로 출연해 경제 관련 소식을 전한다.

PEOPLE

평창 올림픽에는 95개국 6500여 명이 선수단이 참가할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등장할 국내외 '라이징 스타'를 꼽는다면 누구일까?

by
조영준

스켈레톤에서 지난 10년간 세계 정상을 지킨 이는 라트비아의 마르틴스 두쿠르스다. 두쿠르스는 2009년부터 9년간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두쿠르스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스켈레톤 황제'를 위협하는 젊은 선수가 등장했다. 윤성빈이 스켈레톤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해는 2012년이다. 뒤늦게 썰매에 몸을 싣고 질주하던 그는 불과 6년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썰매 종목의 불모지에서 조금씩 성장한 윤성빈은 2017~2018 시즌 급성장했다. 윤성빈은 올 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시리즈에서 다섯 번 우승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그는 월드컵 6·7차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폭발적인 초반 스피드가 장점인 윤성빈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던 두쿠르스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그에게 남은 무대는 올림픽뿐이다. 쇼트트랙의 임효준 또한 주목해야 한다. 4년 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은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안현수)의 돌풍에 밀려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어린 시절 '제2의 안현수'로 불린 임효준은 6년 전 열린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무려 일곱 번이나 수술대에 오른 임효준은 쟁쟁한 경쟁자에 밀려 사라지는 듯했다. 임효준은 고난의 세월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경력만 볼 때는 서이라와 황대헌이 한국의 에이스로 꼽힌다. 하지만 정작 2017~2018 시즌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건 임효준이었다.

한국 선수를 제외하고 꼽자면 피겨스케이팅의 케이트린 오스먼드가 가장 돋보인다. 현재 여자 피겨를 주름잡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다. 단, 러시아 선수들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중립 국가 자격으로 출전한다. 조국의 국기를 들고 올림픽 무대에서 지 못하지만 세계 최강자인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의 금메달 의지는 확고하다. 캐나다의 케이트린 오스먼드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다. 20대를 넘어 전성기를 맞이한 그는 지난해 3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드베데바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둔 메드베데바는 중립 국가 출신 이슈와 부상으로 다소 흔들리고 있다. 오스먼드의 대반전을 기대해볼 만하다.

조영준은 <스포티비뉴스>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겨스케이팅과 배구, 체조 등을 다룬 칼럼을 각종 매거진에 기고했다. 올림픽 종목 및 숨겨진 유망주 발굴에 관심이 많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올림픽이 열린다. 이 대회는 '기대할 만한' 올림픽인가?
그 이모저모를 따져봤다.



POLITICS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아직도 시시각각 현황이 '업데이트' 되는 중이지만, 평창 올림픽은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by

노정태

"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정도로 번역되어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저 문장을 유독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이다. 1993년 뉴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었던 강석주는 미국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를 향해, 저 문구를 영어 원문 그대로 들려줬다. 누가 뭐라건 핵을 개발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그보다 더 강하게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다. 북한의 핵개발은 거의 완성 수준에 도달했다. 평창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와 여권은 이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개막식에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내걸고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는 것,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북한 선수들을 넣으려 시도하는 것 모두 그러한 정치적 의도의 반영일 테다. 그러나 이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과 핵탄두를 완성하고, 그것을 레버리지로 협상해 자신들의 안녕을 보장받는 것, 그 목표 달성을 위해 20년 넘게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도 감수했고 수많은 국민이 굶어 죽어도 꿈쩍도 안 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핵개발의 과제를 물려받고 고모부와 형을 죽여가며 권력을 지켰다. 평창 올림픽이란 이벤트로 북한의 편집증적 국책사업의 진로를 바꿀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평창 올림픽을 두고 한국이 제안하는 온갖 우호적 제스처로 그 열차를 막을 수는 없다. 애석하지만 그들에게 이건 모두 '개 짖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북한과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북한과는 확실히 다른 나라임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전의 참상을 겪은 후 경제적 풍요와 민주적 체제를 모두 이룩해낸 유일무이한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이 장점이 더 부각되길 바란다.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적 긴장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적 여론이 그러한 맥락에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가, 북한에 대해 우호의 손을 내밀되 결코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존엄과 품위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

노정태는 학부에서 법학을,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에 칼럼과 서평을 기고하며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를 썼다.

DESIGN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는 올림픽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수작이다.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더불어 로고, 주경기장 디자인, 대표팀 유니폼 등의 디자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by

이재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여러 디자인 요소를 찾아 살펴봤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1988년 하계 올림픽과 비교하게 된다. 마스코트는 이번에도 호랑이다. 꽤 잘 만들었다 평하고, 그런 평과 별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마스코트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호돌이와의 비교를 피할 수 없다. 호돌이의 옛 명성을 다시 호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만큼 절박했던 것일까, 혹은 호돌이와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캐릭터의 디자인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일까? 두 올림픽의 호랑이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차이는 호랑이의 형태를 묘사하는 방법이다. 호돌이는 '자와 컴퍼'로 그려낼 수 있는 '지오메트릭'한 형상을 지녀 단정하고 정갈하며 다소 정적인 한편 다양한 동작 예측과 변형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수호랑은 보다 둥글둥글하고 자유분방하며 동적 묘사가 주를 이룬다. 기본형도 힘차게 손발을 휘젓는 포즈다. 몸도 운동을 많이 한 듯 역삼각형의 다부진 체형이고 무늬도 훨씬 짧고 두툼해졌다. 호돌이를 떠나,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만큼 호랑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나 온도차도 큰 듯하다. 핑크빛 코와 두툼한 하관, 점으로 표현된 눈과 짧은 눈썹, 자그마한 입가득한 미소 등은 귀엽고 매력적인 얼굴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호돌이가 좀 더 중립적이며 수수하고 관조적이었다면, 수호랑은 적극적이고 대비가 강하며 더 호소하는 인상이다. 1988년의 호돌이와 당시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곰두리, 그리고 올림픽 엠블럼은 원에서 출발한 조형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 좋은 조합을 보여줬다. 나는 과정과 맥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창의 디자인에 대해 되도록 말을 아끼고 싶다. 남이 해놓은 결과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쉽다. 게다가 국가적 스케일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상 그 난관과 어려움이 오죽 많았을까 생각도 된다. 다만 먼 발치에서 느끼는 바로는 수호랑, 반다비, 엠블럼, 메달, 픽토그램 등 각각의 요소가 제각각 빛날지언정 서로를 복돋아주지는 않는 듯하다. 그것들은 모두 하늘과 땅, 한글, 대자연 등 대단하고 많은 것을 담으려 하고 있다. 그만큼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욕심을 부릴 만한 일이라는 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과거의 유산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다만 조금 더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성의 부재는 아쉽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수호랑보다 더 인기몰이 중인 호돌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올림픽의 캐릭터인 수호랑은 그냥 하얀 호랑이가 아니다. 오행사상의 사신(四神)인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그 '백호'라고 한다. 오행에 따라 백호, 즉 수호랑이 관장하는 것은 계절로 치면 '가을', 색상으로는 '흰색', 성질로는 쇠(金)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또 바람을 다스릴 줄도 안다고 한다. 올림픽이 열리는 2월이 가을은 아니라도, 쇠불이와 바람을 관장한다고 하니 많은 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재민은 2006년 설립한 스튜디오 fnt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쇄 매체, 아이덴티티, 디지털 디자인에 이르는 여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2016년부터 AGI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q :

guest editor visbin editor yang boyeon
location seterecords

THE AVANT GARDE
OTAKHEE

오타키는
서울에서 가장
실험적인
사운드를 만든다.

photography
by

yoon sukmu



Q1: 오타키(Otakhee)는 오타키(Autarky, 자급자족)를 뜻하는 말인가요?

Otakhee: 맞아요. '자급자족'은 제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거든요. <녹색평론>에서 읽은 말인데, 자급자족은 중앙권력에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 읽었는데 마침 제가 생태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당시 이런저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름을 짓게 됐어요.

Q2: 자급자족은 상업적 성취를 목표로 한 음악과 별개로 음악의 완성도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였나요?

Otakhee: 음악을 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커머셜한 뮤지션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상업적 음악을 등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것만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제가 그러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제 음악이 상업화되는 것도 상관없고요, 제게 음악은 그냥 음악이에요. 솔직하게 대하고 싶거든요.

Q3: 오타키의 음악은 선택하는 장르나 작법 등 매번 새로운 시도로 가득해요.

Otakhee: 프로듀서라는 수식어가 붙는 편인데, 저는 음악가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스스로 만들고 싶은 음악을 만드는, 제약 없는 음악가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음악이 힙합일 때도, 테크노일 때도, 재즈일 때도 있는 거고요.

Q4: 최근작 <Dawn>엔 어떤 음악적 시도를 했나요?

Otakhee: 훨씬 미니멀하고 반복적이에요. 디트로이트 하우스 장르에서 나올 법한 둔탁함과 소울풀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죠. 쉽게 말해 '생소리'를 토대로 만든 댄스 음악이랄까.

Q5: 오타키의 음악은 '음악 좀 안다'는 국내외 리스너와 평단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아요. <Dawn>의 반응은 어떤가요?

Otakhee: <Dawn> EP가 나오고 나서 프랑스 레이블 싱크로폰(Syncrophone)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음악을 레코드로 발표하고 싶다고, 덕분에 재작년에



J DILLA JAY DEE DONUTS

John Coltrane
Sun Ship

THEO PAQUET
AMERICAN INTER

ART ENSEMBLE
OF CHICAGO
MESSAGE TO
OUR FOLKS

NEW ORDER
CT. 50 1983
MOVEMENT

발매한 〈Floating On/ Inhale〉EP가 프랑스에서 레코드로 발매됐고요. 뮤지션으로서 이런 일은 매우 고무적이죠.

Q6: 해외 뮤지션과의 협업은 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톤 스로 레코즈(Stones Throw Records) 소속이자 '월드클래스 언더그라운드 MC' M.E.D.와 공동 작업한 〈Psychedelic Weather〉.

Otakhee: 협업을 제안한 제 메일에 답신이 온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당시의 저는 음악적으로 증명할 게 지금만큼은 없던 시절이니까. 지금이라면 좀 더 덤덤했겠죠. M.E.D.와 작업하며 놀란 건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금전적 문제로 협업을 그만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요. "개이지 말고 그냥 작업하자. 곡을 더 보내달라." 여러 가지로 M.E.D.와의 작업은 지금도 생생해요. 영광이었죠.

Q7: 〈Psychedelic Weather〉의 1번 트랙 'Wurrrup'은 일본 베테랑 프로듀서 DJ 미츠 더 비츠(Mitsu The Beats)가 리믹스하기도 했어요.

Otakhee: 'Wurrrup'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츠 더 비츠가 내한했고, 공연장 백스테이지에 인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걸 직접 소리를 내며 답하는 방식을 반복했어요. "기술적으로 연주를 못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뇌었죠. 수록곡 'Chal_Ra'가 대표적 결과물이고요. 당시 심리 상태와 음악에 대한 갈급함 등 제 모든 '순간'이 담긴 앨범이에요.

Q10: 몇 차례 좋아한다고 밝힌 미국 프로듀서 매드립(Madlib)의 음악 성향, 행보와 닮은 점이 있어요. 영향을 받은 건가요?

Otakhee: 그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제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의 음악 프로젝트 'Yesterdays New Quintet'의 영상을 보며 영감 받기도 했어요. 그의 음악을 대하는 방식이나 행보, 결과물을 보면 기인으로 느껴질 만큼 멋지거든요.

Q11: 〈Smoked Jazz EP〉를 발매하는 데 360사운드 소속 DJ 소울스케이프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어요.

Otakhee: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당시 저는 소울스케이프 형과 친분이 거의 없었는데, 형을 찾아가서 〈Smoked Jazz EP〉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정식 앨범으로 제작, 발매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소울스케이프 형이 아니었더라면 〈Smoked

Otakhee: 레코드 숍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 음악 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조영남 음반을 찾는 중년부터 음원 차트에 있는 음악을 찾는 젊은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어떤 음악이 사랑받는지, 세대별, 유형별로 나뉘는 것도 보이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기다리고 갈구한다는 거예요.

Q16: DJ 활동도 보여줬지만, 많진 않아요. 아무래도 DJ보다 프로듀서로서 더 증명하고 싶은 건가요?

Otakhee: 저는 DJ보다 프로듀서의 성향이 더 강해요. 하지만 DJ로도 활동할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클럽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웃음)

Q17: 언더그라운드 뮤직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Otakhee: 음악 전체 신을 보면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 외적으로 주목을 받으려는 시도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음악의 본질을 탐구하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상업적 목표가 있는 음악이 있듯이, 음악적 시도와 탐구에 집중하는 뮤지션도 있어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다고 봐요. 좀 아쉬운 건,

“음악을 만들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똑같아요. 차이점이라면 음악적 니앙스와 탐구하는 방식 그리고 그 범위의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하러 갔어요. 그런데 미츠 더 비츠가 제 음악을 이미 들었다며 리믹스를 제안하는 거예요. 베테랑 뮤지션이기도 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몇 주 만에 완성해서 보내왔어요.

Q8: 2월은 실험적인 사운드로 가득한 〈Heavyweight Dancer〉를 발매한 지 1년이 되는 달이에요.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Otakhee: 뮤지션으로서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킨 앨범이에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요. 미국 래퍼 디클레임(Declaime)이 참여한 점도 그렇고, 전작에 비해 사운드가 더 정밀하게 짜인 느낌이 있죠. 자신도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점은 아쉽기도 해요. 이름과 달리 '고독한 댄서'가 된 것 같달까.(웃음)

Q9: 데뷔작 〈Smoked Jazz EP〉는 재즈 앨범이었어요. 다루지 못하는 악기를 배워가면서까지 직접 거의 모든 소리를 만들었죠.

Otakhee: 〈Smoked Jazz EP〉는 당시의 제 모습이 투영된 앨범이에요. 당시 저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탐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방가르드 재즈와 프리 재즈에 심취해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됐죠. 직접 악기를 배워가면서까지 소리를 만든 건 뭔가 육체노동이 들어간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음악에 대한

Jazz EP)는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Q12: 프리 재즈부터 테크노, 힙합 등 오타키의 디스코 그래피는 다양한 장르를 다뤄요. 그야말로 변칙적이죠. 내일의 오타키는 어떤 음악을 하고 있을까요?

Otakhee: 음악을 만들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똑같아요. 차이점이라면 음악적 니앙스와 탐구하는 방식 그리고 그 범위의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Q13: 더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이 남았나요?

Otakhee: 김오키와 기타리스트 이태훈. 기회가 된다면 즐겁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소라. 그의 보이스를 좋아하거든요. 답하우스 비트 위에 이소라의 목소리가 얹히면 어떻게 궁금해요.

Q14: 음반 중 바이닐 형태로 발매한 게 더러 있어요. 바이닐에 대해 생각하나요?

Otakhee: 저보다 뒷세대의 사람들에게 레코드는 오래된 음악 매개체로 인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저보다 어린 세대에겐 새로운 매개체예요. 바이닐 시장이 무너진 걸 아는 사람에게 추억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엔 신기한 문화인 거죠. 저는 레코드 숍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큼지막한 레코드 커버가 예쁘다는 이유로 사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Q15: 레코드 숍에서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며 음반을 소비하는 현장을 직접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미 국내엔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많은데, 이들을 서포트하고 성장시켜줄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점이예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요.

Q18: 1인 레이블 'Ironshop48 Records'를 설립했어요.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보인 거죠?

Otakhee: 음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는 '저만의 영역'이 필요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제 음반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싶어서였죠. 이런 의미를 종합해 'IRS48 RADIO'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제 방식대로 일주일에 한 번 믹스하고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선보이고 있죠. 음악을 찾고, 듣고, 재밌게 하려는 노력이에요.

Q19: 오타키가 음악을 만드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Otakhee: 저는 음악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쓴다는 건 강박적으로, 습관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 정도거든요. 쉬면서도 악기 연습을 한다거나, 음악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찾거나 해요. 딱 잘라 말하면 '본능'. 음악 안 만들면 죽을 것 같아요.

Q20: 정해진 목표가 있나요?

Otakhee: 생존하는 것. 언제까지 음악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살아남으려 노력할 거예요. ❶



her : editor yang boyeon assistant editor kim sunhee
model choyu stylist moon seunghee hair & makeup artist park seulgi location wildduck&co

티셔츠와 언더웨어는 모두 GUESS.
워커는 DR. MARTENS 제품

WILD FLOWER

타투이스트 초유는 자유롭다.

photography
by

Yoon Sukmu

언더웨어는 TIMING by ETAM,
쇼츠는 GUESS JEAN,
캡은 WHITE-COMPLEX 제품






몇 년 전 타투를 처음 했는데,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단순하죠?(웃음) 그렇게 타투이스트가 돼야겠다고 맘먹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는 스타일이 예요. 어릴 땐 수영을 했고, 대학교는 일본에서 다녔는데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어느 날은 커피가 좋아 바리스타 자격증도 땀고요. 지금처럼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살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런 제게 자유롭거나 여유 있어 보인다고 해요.

주로 만다라를 그려요. 만다라의 기원은 깨달음을 도형화한 것으로, 불교에서 시작된 그림이에요. 지금은 미술 치료용으로도 쓰이고, 인도에선 행복이나 행운을 가져다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뜻 자체도 매력적인 데다 예쁘기까지 하니 더 좋죠. 제가 처음으로 타투를 해준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만다라를 새겨드렸죠. 그다음엔 아버지에게도 가슴에 손바닥만한 만다라를 그려드렸어요. 초보 타투이스트 때라 손이 느껴서 7시간이나 걸렸는데, 지금도 미안한 맘이 있어요.(웃음)

저는 사진을 찍히는 게 좋아요. 가장 예쁜 나이의 나를 기록하는 만큼 나중에 돌아보면 추억이 될 테니까요. '내게 이런 젊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색수열한 사진도 마찬가지로요. 몸 사진도 청춘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자신감도 있고요.

타투이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셔도 SNS를 통해 지역 타투숍에 연락해 게스트 워크를 할 수 있거든요. 곧 싱가포르로 떠나는데 거기서도 지금처럼 만다라 타투를 할 거예요. 여행도 하고, 타투도 하고, 돈도 벌고, 재밌겠죠?

어릴 때 부모님이 시골에 데려가 자연에 풀어놓다시피 해서 키우셨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산에서 낙엽 더미에 누워 있거나, 해변에서 노는 사진만 있을 정도예요. 10년쯤 뒤엔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요. 파도 소리 들리는 곳에 집 짓고, 햇살 받으며 수영하고, 상상만 해도 좋아요.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자유로운 마음과 여유를 잃지 않았음 해요. 한결같이. 



워커는 DR. MARTENS,
양말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MUSEE DE LA PUBLICITE

18, rue de Paradis, Paris Xe



CENDRE ET ALCOOLS

Cendriers publicitaires de la collection Rodriguez

du 21 mars au 30 avril 1984

— de 12h à 19h sauf le mardi —

VA

KA
YV
MO
MO HO
P

273

openingstijde

ELEPHANT
CHOOSSES
TO STAND

AFFITI PATRULJEN

Wetenschap
en geschiedenis

AMST

Electric
Youth







언더웨어는 **TIMING by ETAM**,
쇼츠는 **GUESS JEAN**, 캡은 **WHITE-COMPLEX** 제품



THE FRONTIER

DANIEL KIM

야구해설위원 대니얼 김은 내일보다 오늘을 산다. 그 삶이야말로 야구를 닮았다.

photography
by
kim jiyang

Playboy: 비시즌 기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Daniel Kim: 시즌 끝나자마자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름 정도, 곧 가족들 보러 미국에 잠시 다녀올 예정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야구는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야구 팬들의 관심이 스토브리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오프시즌이 없는 느낌이지요.

Playboy: 야구 애호가들 중에선 스토브리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정규 리그의 실제 경기보다 더 즐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Daniel Kim: 정규 시즌은 경기 위주로 가지만 스토브리그는 드라마 같으니까요. 예를 들어, 얼마 전 강민호 선수가 떠났을 때 롯데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삼성 팬들은 너무 행복했죠. 그러다 며칠 후 롯데가 민병헌 영입과 손아섭 재계약을 성사시키니 롯데 팬들이 다시 기뻐하고, 보는 사람을 들었다 놔다 하는 재미가 있어요.

Playboy: 프로야구 해설위원, 메이저리그 전문가, 칼럼니스트...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세요?

Daniel Kim: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잘 모른다'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 더 플러스인 것 같고, 물론 해설위원 활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해요. 하지만 요즘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려면 해설만 해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도 상당히 다양해졌고, 공중파, 케이블, 종편,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 해설위원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순간 다른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겠죠. 잘 모른다는 마인드로 있다 보면 더 많은 걸 시도하게 되고, 더 많은 기회가 오는 듯해요.

Playboy: 처음 시작이 해설위원은 아니었어요.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 프런트 출신의 메이저리그 전문가로 한국 야구계에 등장했죠.

Daniel Kim: 2010년 처음 한국에 들어왔고, 첫 시작은 칼럼이었어요. <스포츠동아>에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칼럼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가면서 갑자기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준비하던 것도, 바라던 것도 아닌데,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프로야구 해설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길이 생기더라고요.

Playboy: 1990년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며 송재우란 비선수 출신 전문가가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류현진이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으며 다시 메이저리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겼죠. 류현진 선수에게 유독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나요?

Daniel Kim: 엄청나게 고맙죠. 제가 개인적 친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받진 못했지만 정말 기쁘고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일할 때 만난 김병현, 서재웅 선수 다 특별하지만 최근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이후 제 경력에 임팩트가 가장 큰 사람은 류현진 선수예요.

Playboy: 대부분의 해설위원이 선수 출신이에요. 간혹 기자 출신도 있고요. 프런트 출신 해설위원에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Daniel Kim: 장점이자 단점일 거예요. 좀 다른 각도와 시선으로 경기를 해석할 수 있겠죠. 선수 출신 해설위원은 대개 현역 때 아주 좋했던 선수들이에요. 야구선수로서는 천재죠. 근데 천재들이 왜 자기가 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팬의 입장에서 알아보기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나는 못하니깐 더 궁금해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런트 일이 경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팀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는 쪽에 가깝다 보니, 해설도 비슷한 관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즉각 경기 흐름을 좇기보다.

Playboy: 거시적 관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Daniel Kim: 그렇죠. 이를테면 선발은 몇 명에 어떤 선수들이 있고, 볼펜은 어떻게 꾸려야 하고, 어떤 선수는 투구 수가 몇 개까지 가능하고, 만약 그 투수가 못 버텼을 때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다 알고 있어야 해요.

Playboy: 야구에서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모두 다를 거예요. 크게 승리, 경기의 질, 재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테고요. 어떤 입장인가요?

Daniel Kim: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결과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고, 야구는 배트가 부러지거나 빗맞은 타구가 나와도 안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잘 맞은 타구도 야수 정면으로 가면 아웃이고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실패가 70%인 스포츠기 때문에 결과에 목매면 멘탈이 버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뒤 다음으로 가야죠.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결과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고, 야구는 배트가 부러지거나 빗맞은 타구가 나와도 안타가 될 수 있어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Playboy: 대니얼 김의 삶도 그렇게 '야구적'인가요?

Daniel Kim: 그랬더라면 지금 뉴욕 메츠 단장을 하고 있겠죠.(웃음)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왔다 말하긴 어려워요.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말처럼 쉽지 않을 뿐. 그래서 제가 나름 세운 원칙이 있어요. 야구에 빗대자면,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두지 말고 오늘 경기에 최선을 다하자. 내일 경기는 내일 생각하고, 어찌 보면 무책임하죠. 저한테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메이저리그 구단 프런트에 취직하셨어요?”인데, 그걸 막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한 게 아니거든요. 눈앞에 있는 걸 열심히 했고 나를 잘했기 때문에 다음이 열린 거예요. 어쨌면 그런 것도 과정이겠죠. 단, 목표가 없는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

Playboy: 야구인의 가장 이상적인 마음가짐 아닐까요? 야구는 축구나 농구, 올림픽이랑 다르게 매일 경기가 열리잖아요.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경기고, 이기든 지든 떨어내지 못하면 다음 경기에 다시 100%로 임할 수 없겠죠.

Daniel Kim: 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에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투수가 두들겨 맞고 만루 홈런 내주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견뎌야 해요. 무슨 방법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방법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서 강해지더라고요.

Playboy: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한 케이스로서, 다소 보수적인 야구계의 틈새를 느낀 적은 없나요?

Daniel Kim: 있었겠죠.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틈새 있을 만하죠. 선수들이 저를 보면 “재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00% 이해해요.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요. 물론 제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엔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고요.

Playboy: 그만큼 지지도 받고 있죠. 대니얼 김은 스포츠로서의 야구‘만’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야구를 더 즐겁게, 투박하기보다 세련된 관점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같죠.

Daniel Kim: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데, 저는 뉴욕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스포츠 라디오를 들었어요. 스포츠 라디오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교집합이죠. 출연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때로 공격적이기도, 웃기기도 하고.

Playboy: 유튜브 개인 방송 ‘DKTV’에서는 강력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KBO 리그 전체의 망신. 롯데 자이언츠는 프로 구단 맞는가?”라든가.

Daniel Kim: 이런 방송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TV 방송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니까요. DKTV는 작가도 없고 PD도 없고 미리 대본을 쓰고 녹화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DKTV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모바일로 볼 수 있는 프로야구 콘텐츠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부터가 유튜브를 즐겨 사용하거든요. 어딜 가고 싶거나 사고 싶으면 리뷰를 본다거나. 작년 이맘때 차를 샀는데, 유튜브에서 본 시승기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막상 야구 관련 영상은 하이라이트 정도를 제외하면 없더라고요. 매사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걸 만들려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퀄리티의 아웃풋이 될 수 있을까?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 편집 앱으로 마무리해요. 일단 만들어서 올린 거죠.

Playboy: 구단의 반응은 어땠나요?

Daniel Kim: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 관계자분들이 본 건 알고 있어요.

Playboy: 팬들의 반응은 꽤 격하기도 했죠.

Daniel Kim: 이슈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 필터링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겠죠. 악플도 달리고 욕도 많이

먹지만, 저는 그런 반응도 콘텐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구독자 수, 조회수는 늘어나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Playboy: ‘스웨그(Swag)’네요. 나를 욕해도, 시청자는 쌓이고 있어.

Daniel Kim: 맨 처음엔 500에서 1000, 그러다 2000에서 3000, 어느 순간 5000이 되더니 그다음엔 1만으로 뛰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100명 앞에서 말하는 것도 떨리는데, 만 명 앞에서 뭘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 동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나는 꼭 지상파에 나가야겠다”는 사고는 약간 구식인 것 같아요. 여건이 되면 모든 플랫폼에서 흥미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재밌거든요. 동시에 팬들도 좋아하니깐 ‘원원’인 거죠.

Playboy: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야구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환경에서 전문가는 어떤 특장점이 있어야 할까요?

Daniel Kim: 글썽요. 제 장점은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때로 칼럼니스트로 심각한 글도 쓰고, SNS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다음 날엔 중립 해설위원의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Playboy: 스페셜리스트보다는 다양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시대라는 말인가요?

Daniel Kim: 물론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도 멋진 일이죠. 곳곳에서 캐릭터는 달라도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저는 사실 어디에서도 선발에는 못 드는 식스맨 같은 느낌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Playboy: 해설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Daniel Kim: 한국에서는요. 지역 방송이 아니니까. 편파 해설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설위원이 편파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얻는 것도 없고. 단, 해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가지에 쫓힐 때가 있어요. 끝나고 방송 보면 자신도 느껴요. 그렇다고 한 팀을 응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주제로 길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해설위원이 그 정도의 선택권은 있다고 보고요.

Playboy: 아직도 야구 보는 게 즐겁나요?

Daniel Kim: 그럼요. 똑같은 팀이 만나도 경기 내용이 똑같진 않으니깐. 물론 재미없는 경기도 있지만, 한국 야구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이 많아서.

Playboy: 야구는 때로 참 신기해요. 한 자리에 사람을 세 시간, 길면 네 시간 넘게 묶어놓을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영화도 쉽게 못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열광을 사는.

Daniel Kim: 그건 간단해요. 고스톱을 생각해보면 돼요. 축구나 농구와는 리듬 자체가 달라요. 오히려 배구랑 비슷하죠. 고스톱 패 돌리고, 싸우고 금방 끝나잖아요. 중간중간 해설하고. 그리고 또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죠. 야구가 그렇잖아요. 타자 들어오고, 투수가 공 던지고 잡으면 끝. 그리고 또 다른 타자와 투수의 게임 시작.

Playboy: 하나의 세 시간짜리 게임이 아닌, 그 안에 최소한 아웃카운트 개수만큼의 게임이 있다는 말인가요?

Daniel Kim: 최소 54개의 게임을 세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Playboy: 야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Daniel Kim: 수비요. 수비는 정직해요. 홈런도 정직하지만 바람이나 구장 크기의 영향을 받긴 하죠. 타격이 어느 정도 하늘에 닿기는 거라면, 수비는 자기 앞으로 오는 공을 잡는 거니까. 쫓아가든, 앞뒤로 가든 온전히 선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❷



F E A T H E R

각자의 완벽한 몸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가벼운 순간.



육상, 화성시청
김의연

운동장 한 바퀴. 400m 올림픽 메달권 기록은 대개 40초대 초·중반에서 결정이 난다. 100m 우승권이 10초 안팎인 것을 생각해보면, 100m를 네 번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사인 볼트는 엄청 근육질이잖아요. 400m 선수는 근지구력이 뛰어난 잔근육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역기를 든다면 무거운 걸 정한 개수만큼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무게를 기진맥진해서 못 들 때까지.” 김의연은 400m가 주 종목으로, 2014년과 2015년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거머쥐었다. “남들에게 종목 소개할 때 ‘가장 힘든 운동’이라고 말해요. 실 틈 없이 뛰면서 지속적인 힘을 가해야 하거든요. 결승선 통과하고 나면 온몸 저리는 게 20~30분은 가요. 그 고통을 알기에, 시합 전 더 긴장하죠.” 환히든 좌절이든 공평한 통증이 뒤따르고야마는 전속력 레이스. 김의연의 최고 기록은 46초 99다. “대학 2학년 때인데 컨디션이 좋으면요. 트랙에서 통통 뛰는 맛이 있어요. 아, 가볍다. 그때 한국에 46초대 선수가 네 명뿐이었는데, 아파서 결선을 못 뛰었어요. 결국 아시안게임에 못 갔죠.” 다가오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는 내일 오키나와로 떠난다.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맘으로 할 거예요. 4월에 실업대항전이 열리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몸이 가벼운 순간을 느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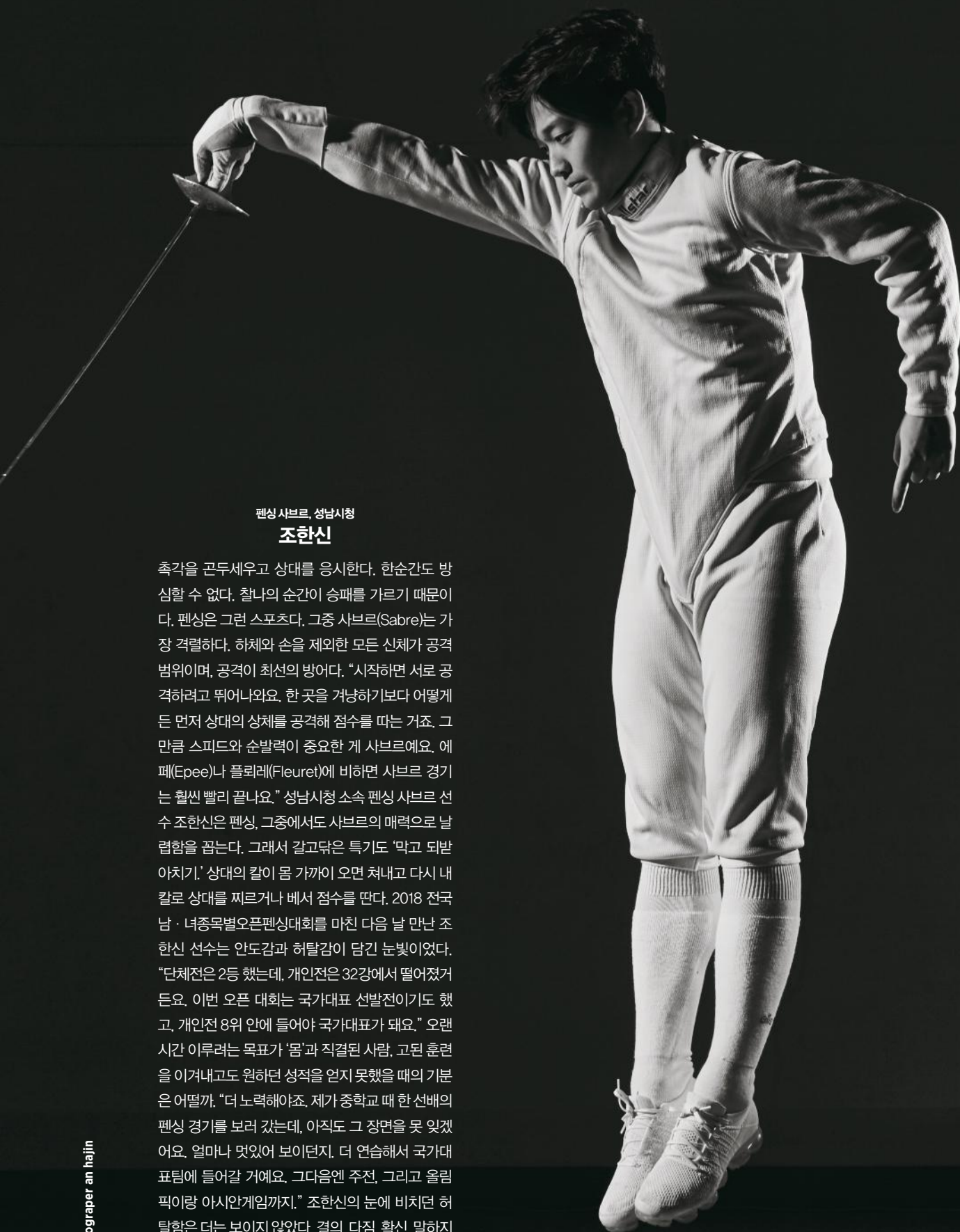
photography
by
an hajin, kim cham

W E I G H T



복싱, 인천대릉
박지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헤비급의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지만, 최경량급인 스트로급(46.270kg 이하)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체급이 있을까. 박지현은 2006년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 3대 기구 통합 챔피언(IFBA, WIBA, WIBF)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 그중 IFBA 챔피언으로는 무려 15차 방어까지 성공했다. 통산 전적 23승 2패 5KO. “원래 탁구를 쳤는데, 와일드한 성격이라 복싱이 끌리더라고요, 2004년 11월에 시작해 프로 테스트까지 22일, 데뷔전까지 7개월 걸렸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챔피언에 오른 경력만큼 주먹도 빠르다. “아령 들고 새도복싱을 하거나, ‘스피드백 치기’라는 훈련을 해요. 1초에 주먹 두 개 정도는 낼 수 있도록.” 동체급 경쟁자에 비해 키가 큰 편이라 보편적인 장신 선수들이 그렇듯 아웃복서인가 짐작하게 되지만, 박지현은 뒷걸음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저는 인파이터예요. 성격이죠. 자신 있는 거라면, 원투 페인트로 시야를 가린 다음 레프트 보디를 빈 곳에 딱 꽂아 넣는 거예요. 옆구리가 급소거든요. 제대로 맞으면 카운트 10 셀 때까지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는 3월 8일, 박지현은 오랜만에 도전자의 입장으로 일본 원정 경기를 치른다. WBO 아톰급 타이틀전. “아직은 미련이 남았다고 해야 하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올해 잡힐 모든 경기를 다 ‘승’으로 마무리하고 멋지게 은퇴하고 싶어요.”



펜싱 사브르, 성남시청

조한신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대를 응시한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펜싱은 그런 스포츠다. 그중 사브르(Sabre)는 가장 격렬하다. 하체와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가 공격 범위이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시작하면 서로 공격하려고 뛰어나와요. 한 곳을 겨냥하기보다 어떻게든 먼저 상대의 상체를 공격해 점수를 따는 거죠. 그만큼 스피드와 순발력이 중요한 게 사브르예요. 에페(Epee)나 플뢰레(Fleuret)에 비하면 사브르 경기는 훨씬 빨리 끝나요.” 성남시청 소속 펜싱 사브르 선수 조한신은 펜싱, 그중에서도 사브르의 매력으로 날렵함을 꼽는다. 그래서 갈고닦은 특기도 ‘막고 되받아치기.’ 상대의 칼이 몸 가까이 오면 쳐내고 다시 내칼로 상대를 찌르거나 베서 점수를 땀다. 2018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대회를 마친 다음 날 만난 조한신 선수는 안도감과 허탈감이 담긴 눈빛이었다. “단체전은 2등 했는데, 개인전은 32강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번 오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이기도 했고, 개인전 8위 안에 들어야 국가대표가 돼요.” 오랜 시간 이루려는 목표가 ‘몸’과 직결된 사람,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도 원하던 성적을 얻지 못했을 때의 기분은 어떨까. “더 노력해야죠. 제가 중학교 때 한 선배의 펜싱 경기를 보러 갔는데, 아직도 그 장면을 못 잊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더 연습해서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엔 주전, 그리고 올림픽 픽이랑 아시안게임까지.” 조한신의 눈에 비치던 허탈함은 더는 보이지 않았다. 결의, 다짐, 확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테니스, 한국체육대학교

안유진

이건 끝났다, 싶은 공을 뛰어가서 받아낸다. 테니스 코트 끝에 바짝 붙어 선 베이스라이너의 경기를 보는 쾌감이다. 단순히 어려운 공을 쳐냈다는 놀라움뿐 아니라, 곡예에 가까운 몸놀림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저는 빠른 발이 장점이에요. 수비하면서 공격하는 스타일. 주 무기는 드라이브 발리라고, 땅에 바운드 되기 전에 떠 있는 공을 치는 기술이에요. 상대의 무게중심을 흐트린 상태에서 재빨리 처리하는 거죠.” 현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시모나 할레프가 스스로를 ‘공격적인 베이스라이너’라 정의하듯, 당찬 대학 선수 안유진의 말 또한 그렇게 들린다. “경기가 2시간은 기본이니까 체력은 물론 눈도 빨라야 해요. 공을 놓치지 않아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체격이 크다고 힘이 센 건 아니에요. 상대가 세게 친 공을 반동을 이용해 얼마나 잘 때리느냐가 중요하죠.” 지난해 한국대학테니스선수권대회 단식 우승과 복식 3위, 전국주계대학테니스연맹전 단식 1위, 전국춘계대학 테니스연맹전 단식 2위 및 복식 1위... “아직 차근차근 쌓아가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면 국제 대회에서 더 많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요즘 호주 오픈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는 없지만, 다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안유진의 힘껏 때린 서브가 이제 더 먼 곳을 조준한다.



쇼트트랙, 한국체육대학교

손미래

차가운 얼음 위를 뜨겁게 내달린다. 스피드스케이팅처럼 10초 미만의 기록으로 승부를 보는 종목은 아니지만, 쇼트트랙은 그보다 오래 시간 빙상에서 속도를 겨룬다. “쇼트트랙은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장거리는 최대 8명, 단거리는 4명씩 뛰는데 팀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살아남는 선수가 이긴다는 것도, 마지막까지 살아남거나 버티는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쇼트트랙에서 극적인 순간은 단연 상대를 추월할 때가 아닐는지. “맨 뒤에 있다가 한 명씩 제치고 나아갈 때, 우린 ‘잡아먹는다’고 표현하거든요. 맨 앞에 있던 선수까지 다 잡아먹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기분이 좋아요, 속도도 잘 나가고, 스피드스케이팅과 다른 가속도가 붙은 상태의 날렵함이죠.” 쇼트트랙의 한 바퀴 거리는 111.12m, 남자 선수의 기록은 7초대, 여자 선수의 기록은 8초대로 돌파한다. “가장 뿌듯할 때는 개인 기록을 새로 쓸 때예요, 그럴 땐 ‘이 맛에 운동하지’ 싫어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빙상 종목도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빙상의 빙질 상태가 안 맞거나 스케이팅 날이 아침저녁으로 다르게 느껴질 때 기록이 잘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쇼트트랙 선수들은 넘어지는 방법도 배운다.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선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장 가까운 목표로 잡고 있는 건, 국가대표예요. 평창 올림픽은 못 나가지만, 쇼트트랙을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다시 노력해야죠.”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손미래는 다치지 않았고, 다시 스케이팅을 신는다.



피겨스케이팅, 한국체육대학교

김진서

피겨스케이팅만큼 우아한 스포츠가 또 있을까. 빙상을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달릴 땐 승패를 가리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잘 짜인 하나의 공연 같달까. 피겨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빙판에서 새처럼 도약하려는 순간을. “딱 1초? 콰드러플이나 트리플 악셀을 뛸 때 정말 날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만큼은 다른 종목과 비교할 수 없는 날렵함이 있어요.” 김진서의 입가에 미소가 묻어났다. 피겨스케이팅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훈련 과정은 혹독하기만 하다. “피겨에서 날씬함과 가벼움은 필수예요. 살이 찌면 점프가 안 되고 둔해지거든요. 물론 마르지 않아도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식단 조절을 해요.” 피겨는 빠르거나 고난도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주는 건 다른 요소다. 음악이 주는 어떤 ‘느낌’을 이해하고, 표정과 몸짓 하나에도 사력을 다해 표현해야 관객도 동하기 때문. “피겨를 할 때 저를 보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길 원해요. 저는 표정이 다양한 편인데,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절친이자 라이벌인 (차)준환이, (이)준형이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평창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된 건 솔직히 아쉽죠. 몇 년을 준비했으니까. 국가대표 선발전 2차를 준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일주일 만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또 기회가 오겠지’ 생각해요.” 아쉽지만, 그는 금세 털어냈다. 김진서는 촬영을 마치고 다시 빙상에 간다고 했다. 마치 반가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 표정으로.







태권도, 한국체육대학교

유혁

2016 전국체전 -54kg급 3위, 대통령기 3위, 2017년 전국체전 3위, 3등 전문 선수라기엔, 태권도는 “국가 대표 되는 것이 메달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양궁이나 쇼트트랙과 마찬가지로 종목일 것이다. 수많은 강자가 존재하고, 꾸준히 순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존중받아 마땅한 일. 잠시간의 나태도 용납되지 않는 종목. “계속 바뀌어요. 어린 선수들이 성장해서 올라오고, 그래도 국가대표는 한번 해보고 싶죠. 태권도 하면서 태극마크 달아보고 싶잖아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까지 갔는데, 떨어진 적이 있어서.” 경량급 중 경량급, 남자 태권도 선수 중 가장 날렵한 체급의 몸을 가진 유혁은 꽤 다부진 근육질이다. “키가 작아요, 163? 상대는 대부분 175 정도 되고요, 스텝과 스피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힘에서도 밀리면 안 되니까 상체 운동도 많이 하는 편이죠.” 리치가 짧으면 가까이서 싸워서 승산이 있다. 모든 투기를 막론한 공통 상식. “키 큰 선수들 이겨서 편견을 깨고 싶어요. 체력으로 약착같이 상대를 흔들고, 앞으로 다가오게 유인해야 해요. 한 번 차고 뒤로 빠지면 안 되고, 순간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정신 못 차리게 해야죠. 그래서 제 경기는 재밌어요. 전자호구로 바뀌기 전의 옛날 스타일로 파이팅 넘치게 하고 싶고요.” 작은 선수는 살아남을 수 없다. 태권도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 유혁의 발차기가 하늘을 가른다.

역도, 한국체육대학교

최유림

“53kg급이에요. 여자 역도 체급 중에선 두 번째로 가볍죠. 인상 90kg, 용상 110kg을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역도는 단순히 힘만 쓰는 운동이 아니다. 매일 같은 운동과 단련으로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가끔 ‘역도 할 때 드는 거 안 무겁냐’는 물으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예요. 무거운 걸 매일 반복해 들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오거든요. 맨날 같은 근육을 쓰니까, 그에 맞춰 근력이 늘어나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무거운 바벨을 힘만 써서 드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다. “역도 선수들끼리 쓰는 말인데, ‘뽕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역도시합은 1차부터 3차 시기까지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죠. 저도 2차 시기까지 실패한 적이 있어요. 3차는 가장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데 어찌나 했죠. 거의 울면서 들어갔는데, 들었지 뭐예요. 내려와서 엉엉 울었어요.(웃음)” 역도는 세 번의 기회를 주지만, 거듭할 때마다 자신이 정해둔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승산이 있다. 자신과의 싸움. “저인 터뷰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역도나 힘쓰는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나 편견. 운동선수 건드리면 안 된다. 욕한다. 때린다. 이런 것들요. 아니, 사람을 왜 때리죠?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우리가 더 약할 수도 있어요.(웃음)”

TRUE COLORS

사진가 은효진이 바라본 색보다 진한 몸.

photography
by
eun hyojin



정제 1999

“색채는 훨씬 더 설명적이다. 시각에 대한 자극 때문이다. 어떤 조화는 평화롭고,
어떤 것은 위로를 주며, 또 어떤 것은 대담하여 흥분을 일으킨다.”

—
폴 고갱

은효진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슬픈 천사들의 밝은 미소>와 <은효진의 세계여행> 등을 발간했다.
또한 누드모델 권은진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촬영한 누드 사진집 <시간속의裸>를 내기도 했다. 현재 APC뉴스 발행인을 맡고 있다.

PLAYBOY

LOVES:

숨시당 같은 목소리와 공격적인 볼륨, 그리고 건강하며 독립적인 세계관. 2월의 〈플레이보이〉가 사랑하는 여자들이다.



레트로 블루와 파란의 스트랩 투브 룩과
V컷 보텀은 모두 DAZE DAYZ.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은 모두 BELL & NOUVEAU 제품

PLAYMATE - US PLAYMATE - PLAYGIRL - PLAYGIFT

2월의 플레이메이트는
폴댄서 바다다.
기다란 풀을 오르내리는 그녀의 몸짓을
주목하라.



튜브 원피스 수영슈트는 DAZE DAYZ,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은 모두 BELL & NOUVEAU 제품

*B
L*

photography
by
yoon sukmu



튜브 원피스 수영슈트는 DAZE DAYZ.
브레이슬릿은 BELL & NOUVEAU 제품.
플랫폼 슈즈는 모델 소장품

어시메트리 컷아웃 원피스 스웨트슈트는 DAZE DAYZ.
브레이슬릿은 BELL & NOUVEAU 제품.
줄맞춤 슈즈는 모탈 소창품, 이어링은 에디터 소장품



킷아웃 크롭 톱과 V컷 보텀은 모두 DAZE DAYZ,
이어링과 브레이슬릿은 모두 BELL & NOUVEAU 제품,
플랫폰 슈즈는 모델 소장품





이여립과 브레이슬릿은 모두 BELL & NOUVEAU 제품,
보디슈트와 플랫폼 부츠는 모두 모델 소장품



어시메트릭 컷아웃 원피스 스웜슈트는 DAZE DAYZ,
이어링과 브레이슬릿은 모두 BELL & NOUVEAU 제품, 플랫폼 부츠는 모델 소장품



레트로 블록 패턴의 스트랩 튜브 톱과
V컷 보텀은 모두 DAZE DAYZ,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렛은 모두 BELL & NOUVEAU 제품,
플랫폼 슈즈는 모텔 쇼핑몰







생일 10월 11일
별자리 천칭자리
혈액형 AB형

BADA

외향적인 소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평범한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남달랐던 점이 라면, 응원단장과 육상 선수 활동을 했다는 것 정도? 공부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 정도?

마치 자석에 끌리듯 어릴 적 TV로 본 외국 영화에서 처음 폴댄스를 접했어요. 파란 조명이 깔린 무대 위에 예쁜 여자가 폴에 매달려 춤을 추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는 장면이었어요. 어린 제 눈엔 마냥 환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폴댄스를 외설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릴 땐 그런 시선 따윈 몰랐으니까. 환상이 현실로 이뤄진 건 4년 전이에요. 패션 쪽 일을 하다 허리가 안 좋아 저 1년 동안 재활과 운동에 전념했거든요. 우연히 동네에서 폴댄스 학원을 발견하고, 자석에 끌리듯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됐죠.

광장이라는 이름의 무대 최근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울시 문화의 밤 행사에 참여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거기 온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폴댄스를 선보이는 자리였거든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앞이었어요. 저는 공연 팀을 갖고 있는 공연 기획자이자 안무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폴댄서예요. '아이들 앞에서도 공연하는 날이 오다니!'라고 생각하자 자괴심이 생길 거라고요. 폴댄스의 예술적인 면을 대중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짜릿했던 밤 바다를 좋아해요. 오죽하면 바다로 이름까지 개명했겠어요. 등산도 좋아해요. 가까운 북한산에 자주 가는데, 백운대 코스를 밤에 가요. 새벽 4시에 출발해 일출 보고 내려오는 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그러고 보니 밤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네요.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갔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벗기 시작해서 결국 다 훌쩍 벗고 헤엄치며 놀았어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밤이라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상관없었죠.

진정한 플레이보이 자신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이 섹시하더라고요. 본인이 정한 룰을 따르는 사람이요. 진정한 플레이보이라면 심지가 굳어야죠. 그런 사람에게 여자들도 끌리지 않겠어요? 🤔



@badapoledancer





트라이앵글 톱과 스트라이프 패턴의
V컷 보텀은 모두 DAZE DAYZ,
브레이슬릿은 BELL & NOUVEAU 제품, 플랫폼 슈즈는 모델 소장품

2월의 플레이메이트 메건 삼페리는
당신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안겨줄 준비가 되었다.

당신이
그녀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SCC

photography by
christopher von steinbach

ORE













MEGAN

SAMPERI

나이
24세
태어난 곳
미국 플로리다주 주퍼터
사는 곳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Megan Samperi



@megan_samperi

“오토바이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사륜구동 자동차 타는 걸 좋아해요. 진짜 재밌잖아요.” 메건 샴페리가 커다란 푸른색 농동자를 껴뽀이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속도 내는 게 좋아요. 남자처럼 거칠게 차를 몰곤 하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왼쪽 다리는 접어 올리고, 음악을 즐기면서요. 남자친구들은 운전하는 제 모습에 무섭다고들 하더군요.” 용감하면서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섹시한, 그야말로 남자들의 꿈속에서나 존재하던 여자. 2월의 플레이메이트는 바로 그런 여자다. 풋볼과 아이스하키, 그리고 모닥불 앞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스물네 살의 모델. 메건 샴페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건, 그녀의 생물학 학사 학위다. “한때 공부 좀 했어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학위를 따자마자 로스앤젤레스로 넘어와 제 꿈을 좇기 시작했죠.” 메건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 꿈이란 바로 연기와 음악. 이를 위해 어쿠스틱 기타를 오랜만에 다시 잡았다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서핑은 요즘 그녀의 최대 관심사다. “언젠가는 파도를 탈 수 있겠죠. 아직 기술을 연마하는 중이지만요.”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150km 정도 달리면 나타나는 도

시 주퍼터. 플로리다의 해안 지역인 이곳에서 메건은 나고 자랐다.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이 도시에서 그녀는 자연 그리고 승마를 사랑하게 되었다. “말에 뛰어오르곤 했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말과 함께 무엇을 하든, 먼저 말과 교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일 헛간에서 말을 씻고 빗겨준 다음엔, 안장 없이도 올라탈 수 있어요. 그 순간의 짜릿함이란!” 무엇이든 똑 부러지는 메건에게 남자 취향을 묻자 그녀는 되물었다. “모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남자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맞는 말이다. “외향적이고 지적인 남자가 좋아요. 믿음을 전제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 좋겠어요. 남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거. 참 섹시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 역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한다. “다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저일 뿐이죠. 나만의 삶을 살자는 게 제 신조예요. 흐름을 따를 것. 여행할 것. 그러다 보면 멋진 일들이 생겨요.” 긍정과 에너지, 도전.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다려지는 이유다.

자신의 여성을 숭배할 것 진짜 남성들은 무슨 애기인지 알 거예요. **다이빙** ‘스피어피싱’이란 게 있어요. 스킨다이빙을 하면서 스피어 건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거죠. 정말 재미있지만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할 거예요. 물속에서 기절한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물속으로 가장 깊게 들어가본 건 15m 정도? **친구들** 아직 싱글이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 친구로 지내려 해요. 그러다 멋진 유머 센스를 가진 남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알아볼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아웃도어 라이프** 사냥도 동물도 좋아해요.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한 적도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수사슴을 사냥으로 잡았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어떤 동물들은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 또는 다른 종을 병으로 죽이기도 해요. 결국 저도 누군가를 살린 셈인 거죠! **단순한 즐거움** 일을 제외하고는 서핑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커피를 음미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하이킹하는 게 좋아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편이 좋고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무례한 소리를 해놓고 상대방에게 “아 미안해, 널 공격하려던 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자폭 개그를 한 뒤 사라지곤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 패턴을 좋아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저니까요. **차려입기** 톱보이 같은 저도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그것 없이도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믿어요. **톱보이처럼 살기** 남성들은 말해요. 크롭트 톱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반스 신발을 신은 여자를 원한다고. 그게 저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던 남성들은 결국 30분간 하이힐을 신기 위해 레스토랑에 가는 여자와 땀어지더라고요. ❶



GIRL ON TOP

다니엘라 보테로는
막 창간한 콜롬비아
〈플레이보이〉의
첫 번째 커버
모델이다. 해발고도
1000미터의 도시,
칼리에서 태어난
여자가 보는 뉴욕의
마천루는
어떤 인상일까?





photography by *richard bernardin*









creative director **diego ortiz**
stylist **ana-carolina gonzalez**
hair artist **dj quintero**
makeup artist **bobby bujic**

ROCK ME SWEET

이번 밸런타인데이엔 누구보다
달콤한 당신의 연인에게 반짝임을
선사하라.



*“Opportunity knocks for every man, but you have to
give a woman a ring.”*

기회는 모든 남자들에게 주어져요. 하지만 구애가 성공하려면 반지를 선물해야죠.

매 웨스트

PLAYBOY

REMINDS:

아트, 소설, 고전 인터뷰 등 2월,
〈플레이보이〉가 문득 리마인드해주는 것들.

빛이 드는 공간, 2017, 102×80×4cm, 강화유리에 샌딩, 유리 전사, LED

ARTIST IN RESIDENCE - CLASSIC - BOOK - CARTOON - FICTION - INTERVIEW CLASSIC

MAN IN THE MIRROR HWANG SEON TAE

황선태의 본질이 되는 선과 빛은
가장 단순한 요소로서
'다시 보기'라는 거대한 감각을 들춰낸다.

by
박선영



박제된 글자들, 2009, 39×26×18cm, 유리, 유리 샌딩

의자가 놓인 거실의 적요한 창가를 응시한다. 그리고 빛이 드리워지는 순간, 그 공간은 사물을 둘러싸고 있던 잠재된 원가를 드러낸다. 황선태 작가의 '빛이 드는 공간'은 유리 위에 만들어낸 풍경이다. 유리는 캔버스로부터 치열한 사색 끝에 옮겨간 그의 새로운 화면이 되었고, 그림 속 너울거리는 빛은 강화유리를 깎아 만든 다층의 화면 뒤에 LED 빛을 투과해 표현했다. "유리라는 매체는 다른 사물을 투영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투과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창 역할을 하는 거죠. 저 뒤에 보이는 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물으면서 상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화에 의문을 제기하던 시절, 황선태는 우연히 주변의 사물을 파헤치고 분해하며 주체자로서 사물을 본다는 개념을 뒤집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물은 절대적 혹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내가 주체가 아닐 수 있다는 '중심의 괴로움'은 그에게 글자들이 겹쳐져 읽을 수 없는 '유리 책' 작업의 실마리를 안겨주었다. "책 속의 모든 주장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글은 읽는 사람에 따라 혹은 여러 조건에 의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한번 깨지면 회복할 수 없는 유리라는 속성에 담아본 거죠."

오랜 역사 속에서 절대적 권력을 획득한 책들의 허상을 표현 가능케 했던 유리는

우연히 '빛'이라는 요소와 더해져 황선태의 새로운 풍경을 사유한다. "어느 날 책상에 놓인 유리판 위로 햇빛이 드리운 걸 봤어요. 그 순간 사물을 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물을 규정하는 그 빛을 통해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싶었죠." 빛을 드리우기 위해 만든 가장 기호적이며 중성적인 녹색 선으로 그려낸 창문이 있는 실내 공간, 숨어 있다가 빛과 함께 나타나는 창밖의 자연 풍경 사진 그리고 그 공간을 진짜 빛이 침범하는 그때, 황선태의 그림이 가장 깊고 복잡한 층위를 발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불이 켜지면 실제의 빛이 그림 속의 빛으로 함몰되죠. 그리고 그 빛이 다시 실제 공간까지 비치면서 현실이 돼요. 그렇게 현실과 가상 사이를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황선태의 작업을 통해 세상과 사물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가장 엄격하게 고수하는 예술 방식을 본다. 그런 그에게 예술의 의미 역시 저 깊은 곳에서 길어올려야 할 아득한 시도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움은 너무 쉽게 파악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인간 심연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이 가져오는 울림처럼 말이다. ②



빛이 드는 공간.
2017, 102×80×4cm,
강화유리에 샌딩,
유리 전사,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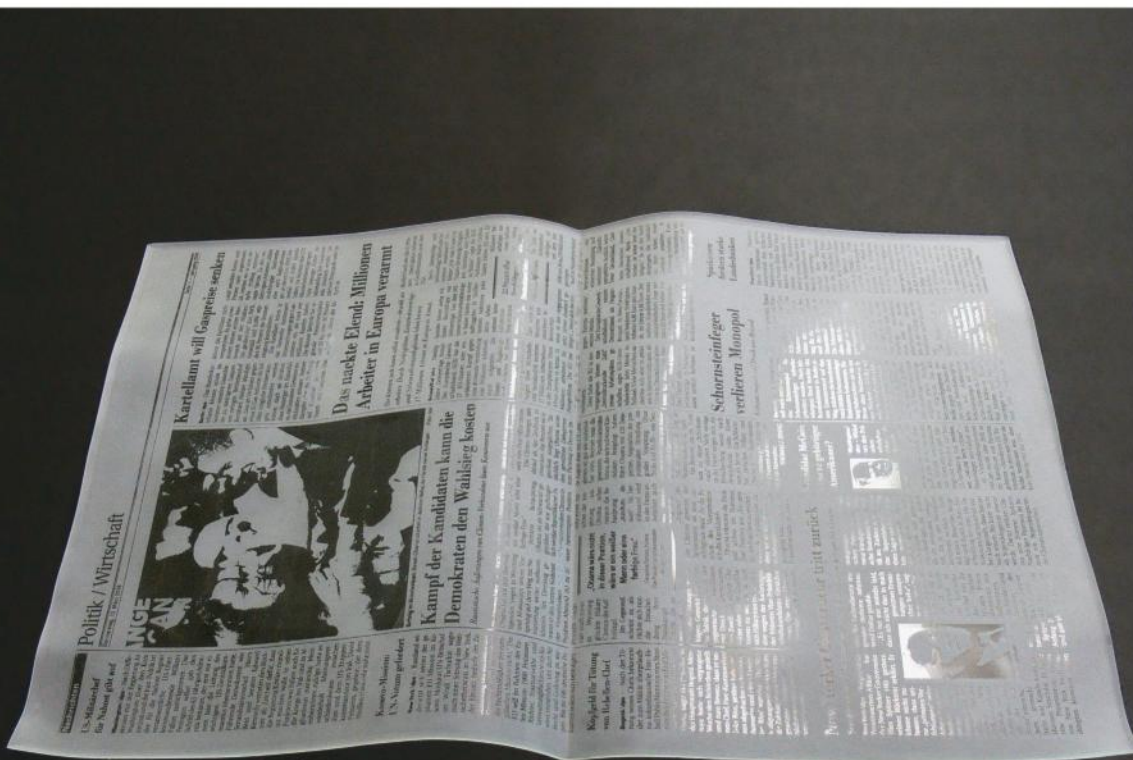


샤워,
102×80×4cm,
강화유리에 샌딩,
유리 전사,
LED

빛이 드는 공간.
2017, 202×87×4cm,
강화유리에 샌딩,
유리 전사,
LED



빛이 드는 공간.
2017, 43×33×2cm,
에폭시,
안료,
LED



숨겨진 이야기,
2008, 35×52cm,
유리,
유리 샌딩

박선영은
여러 매체에 아트,
디자인, 건축, 여행과
관련된 글을 쓰며,
특히 아티스트들과의
인터뷰를 특별히
즐거워한다. 한국에
숭종합학교에서 미술
이론을 공부했다.

〈음예공간예찬〉

JUNICHIRO

〈음예공간예찬〉을 읽은 뒤, 대체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냐 반문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난방 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이런 구절에서 그렇다. “스토브라는 이름이 붙은 것 중에서 다다미방에 조화를 이룰 만한 형태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한 점에서 이상적이라고 하는 전기 스토브로 해도 형태가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저자인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그 대신 화로를 만들어 전기탄을 장착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형태’를 기어이 갖추고 만다. 그리고 탁한 색의 욕, 나무로 만든 변기, 고풍스러운 쪼대, 어두운 칠기, 색이 바래 불그스름한 양갱, 차양이 긴 지붕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음예공간예찬〉의 ‘음예’는 영어로 그림자(Shadow)로 번역되었지만 그보다는 ‘그늘도 그림자도 아닌 거무스름한 모습’을 일컫는다.



TANIZAKI

탐미주의자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글로 쓴
깊고 거무스름한 공간.

일본적인 것 혹은 동양적인 것. 그리고 덧붙인다.
“풍류는 추운 것인 동시에 누추한 것.” 첨단 21세기, 풍류에 대해 생각하고 <음예공간예찬>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이것이 ‘예찬’이란 이름을 단 수필인 만큼 때로 개인적이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하지만, 펜 끝을 뽀족이 다듬는 데는 망설임이 없다.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는 것에 물론 이의는 없지만, 왜 좀 더 우리의 습관이나 취미 생활을 중시하여 그것에 순응하도록 개선을 더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점이었다.” 나아가, “(난방 기구에) 빨간 불이 보이지 않으면 겨울다운 기분이 나지 않고 가족의 단란함에도 불편하다.” 개인과 인간의 습관, 취미, 기분이라는 말. ‘동양 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린다’라는 공식 같은 서평보다, 85년이라는 시간(이 책은 1933년에 쓰였다)이 무색한 이 간결하고 영원한 핵심이야말로 음예공간의 철기에 탁하게 담긴 된장국처럼 곧장 보이진 않지만 “심오한 맛이 있을 것 같은 색”인 것이다. ‘하이테크’한 펜촉보다 곳곳이 세운 붓의 털끝이 필자의 숙련도에 따라 끝내 더 날카로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음예공간예찬>에 있다. ❶



우리는 빛을

조해진의 소설 <빛의 호위>에서 느리게 발견한 차가운 친절의 힘과 빛.

따라가야 해

by 박준석

차가운 친절.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표현 같다. 따뜻한 친절만을 진짜 친절로 여기고, 지나침과 과함을 미덕으로 삼는 '과한민국'에서는 차가운 친절은 선뜻 외닿지 않을지 모른다. 따뜻한 친절일수록 환영받는 문화에서 어느덧 친절은 노동이 되었고, 지나치게 친절하려다 우리는 친절에 지쳐간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같은 말은 따뜻한 친절에만 어울린다. 차가운 친절은 서비스도, 대접도, 베푸는 것도, 주면 되받아야 할 것도 아니다.

따뜻한 친절이 내용이라면, 차가운 친절은 형식이다. 차가운 친절이란 그저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깝게 연결하는 태도다. 원래 친절이라는 말의 어원처럼, 낯선 타인을 친밀한 사람처럼 대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자신의 차가운 친절을 굳이 기억하는 일은 우스꽝스럽고, 타인의 차가운 친절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치다. 차가운 친절은 연민과 동정 없이도 우리를 연대로 이끈다.

조해진의 <빛의 호위>는 차가운 친절의 미덕을 '느리게' 깨닫는 남자의 이야기다. 잡지사 기자인 '나'는 분쟁지역에서 보도사진을 찍는 사진작가 권은을 인터뷰한다. 권은을 만난 이후 '나'는 기억의 뒤편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순간에 서서히 다가간다.

가난한 골방에 홀로 남겨진 권은은 삶의 태업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쩌다 골방의 비참함을 마주한 '나'는 안방 장롱에서 아버지의 카메라를 훔쳐 권은에게 갖다줬다.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른 채, 권은에게 카메라는 증고품으로 팔 수 있는 돈뭉치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 권은을 골방에서 꺼낸 사람이 바로 동급생인 '나'였던 것. 멋모르고 한 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잊혀진 기억을 되살려내는 과정에서 '나'는 권은과 연결된 다른 시공간의 인물들을 알아가게 된다. 권은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기자인 헬게 한센이 찍은 다큐멘터리에서 이어진 사람들. 먼저, 장, 나치의 핍박으로 곤경에 처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를 숨겨준 장은 평생 작곡가를 꿈꾸었으나 단 한 곡도 발표를 못한 무명의 호른 주자일 뿐이었다. 장은 2주에 한 번씩 물과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은신처를 찾아왔고, 그 바구니 밑바닥엔 때면 자신이 작곡한 악보 한 장씩을 깔아놓았다.

빵은 보름을 버티기엔 늘 부족한 양이었지만, 장이 숨겨준 바이올리니스트인 알마는 그 악보들에서 힘을 얻는다. "그 악보들은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서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던 내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빛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알마는 미국으로 탈출하고 장은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 알마는 자신이 장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그제 장의 친절에 대해 자신

이 보일 수 있는 '인간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알마의 아들 노먼은 어머니를 구한 장에게 직접 은혜를 갚는 대신,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기념'해 주고 싶어 한다. 장이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재현해주자는 다짐'을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호품을 구입한 노먼은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러 가다가 피격을 당해 사망한다.

이들의 인생을 우회하며 권은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나'가 느리게 깨달은 것은 뭘까. '나'는 어린 시절 멋모르고 권은에게 카메라를 건넨 행위가 친절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차가운 친절, 형식으로 가라앉은 친절은 누군가의 삶을 감싸주는 '빛의 호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친절은 그렇게 빛이 된다.

'나'가 이걸 느리게 깨달은 이유는 우선 느려도 괜찮아서였다고 말해도 좋다. 안정된 환경에서 무탈하게 자란 '나'는 건실한 일상을 꾸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을 살아남게 하는 무엇과 만난 적이 있었을까. 살기와 살아남기의 차이, 생활과 생존의 차이, 그래서 나와 권은(들)의 차이. 세계의 그늘에 내던져진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친절은 그저 친절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감싸안는 빛이 된다.

생존은 단어의 뜻에서 이미 지속을 내포하지만,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순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때 빛이 퍼진다. 동시에, 거기에 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특별한 순간을 특별하지 않게 만든다. 빛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빛은 머물지 않고 퍼지니까. 이렇게 특별하면서 특별하지 않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미덕은 친절이라고 부르면 충분하다.

느리게 깨달았다는 말에서 느리게를 늦게로 고쳐도 될까? 느리게와 늦게를 구별하는 감각이 소설이 말하는 '빛의 호위'에 다가가는 시작이다. 늦게 깨달았다는 말에는 아직 애고가 많다. 느리게 깨달았다는 말이 깨달음의 과정에 집중한다면, 늦게 깨달았다는 말에는 깨닫는 주체를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르시즘이 남는다. 느리게 깨달아서 차가운 친절에 이를 수 있었던 '나'가 만약 늦게 깨닫는 인물이었다면, 소설은 따뜻한 친절로 치장한 애고가 길게 드러운 '빛의 허위'가 됐을지 모른다.

변명과 연민이 뒤섞인 불쌍사나운 반성 대신 자신이 느리게 거처온 깨달음의 과정을 정직하게 드러내던 소설은 '악기상점의 쇼윈도우에 반사되는 햇빛이 오직 그녀만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나'가 자신의 친절이 권은(들)의 친절, 더 친절한 세상을 만들려는, 그렇게 '빛 무더기'를 확산하려는 친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지만 여기에 무슨 책임을 느껴야 할까. 알마가 얘기했던, 알려 했다면 알았을 것들을 모른 척해놓고 나중에야 자신은 몰랐으므로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하는 '천진한 기만'이므로 자책해야 할까. 자신이 친절했던 '세계에 사는 주민은, 언제나 권은 한 사람뿐'이었던 '나'는, 권은을 통해 연결된 인물들을 알아가면서 사는 동안 더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랬던 자신에 대해 후회해야 할까.

어쩌면 다행히도 '나'는 말한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 하나하나가 다 빛이듯, 모든 친절은 다 친절이니까. 누군가를 비추기만 한다면, 차가워도 희미해도 가늘어도 빛이다. ❶

박준석은 201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문학평론가로 다양한 매체에 칼럼과 비평을 발표하고 있다.



조 해 진
소 설 집

빛
의
호
위



IS THIS GUY FOR R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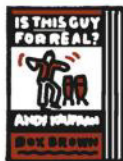


ANDY KAUFMAN



SUSAN SMITH

1981년 10월엔 〈플레이보이〉가 개최해서 가능했던 경기가 있었다. 부조리하기로 이름난 코미디언이자 행위 예술가인 앤디 카우프먼과 1981년 9월호 플레이메이트인 수잔 스미스의 레슬링 매치가 열린 것. 카우프먼은 스미스의 대결 신청을 고민 없이 승낙했다고 한다. 그는 이미 수년간 여러명의 여성과 레슬링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설로 남을 만큼 뜨거웠던 이 경기는 미국 〈플레이보이〉 1982년 2월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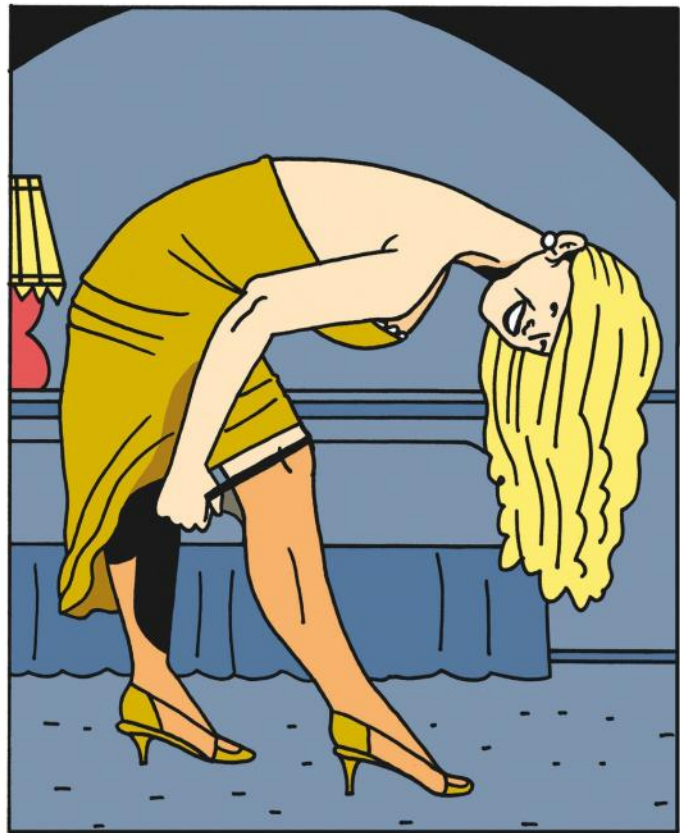
이 남자 실화야?
믿을 수 없는 사내 앤디 카우프먼

by *box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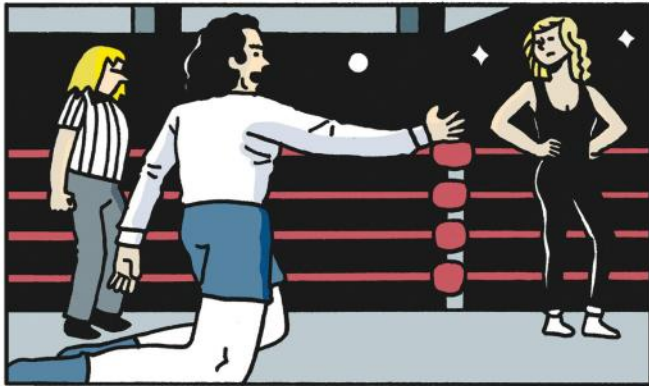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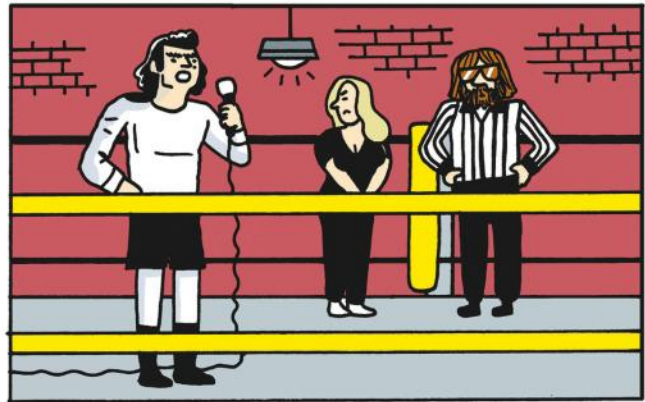
카우프먼의 레슬링 커리어와 페티시에 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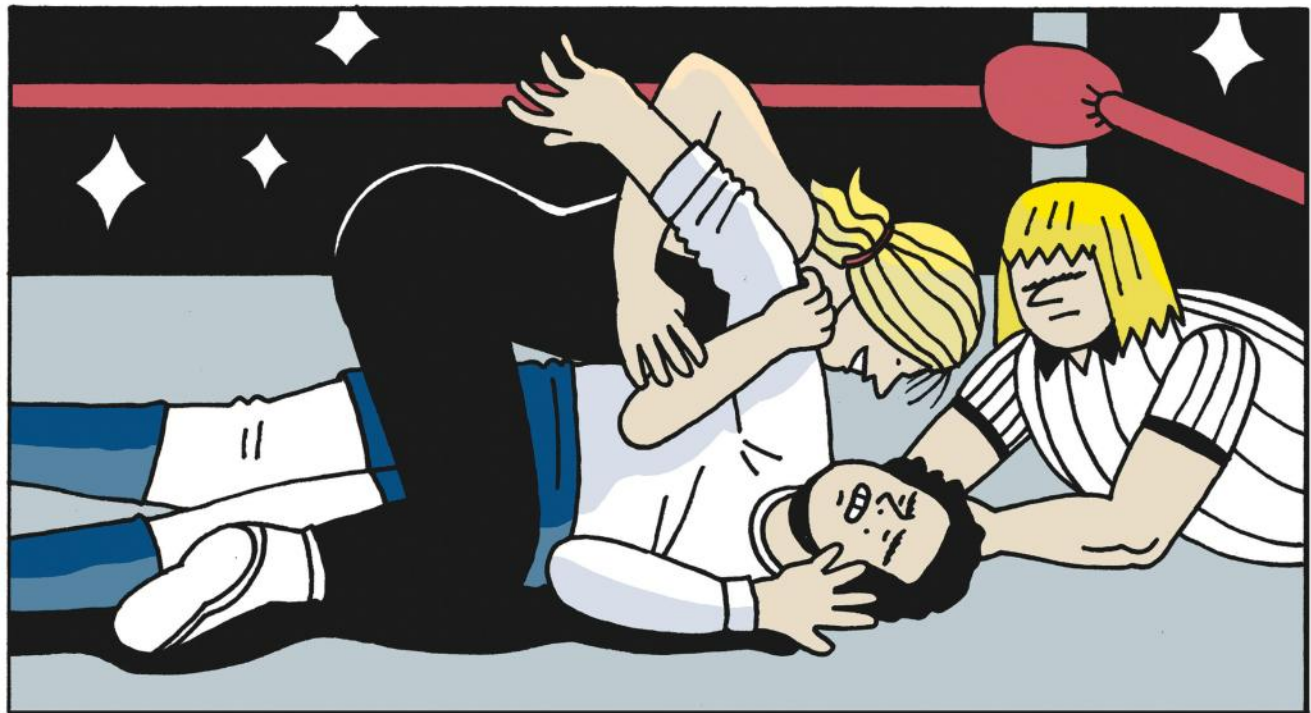
카우프먼은 1980년대 우후죽순 늘어난 클럽처럼 레슬링 클럽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었다. 여성과 레슬링을 한판 하고 나면, 같은 상대와 침대에서도 한판 하게 되리라 생각한 거다. 그는 경기 중 여자 관객들에게 1000달러를 걸고 레슬링으로 자기를 눌힐 도전자를 모집하곤 했다.



자칭 혼성 레슬링 챔피언으로서 무패를 자랑하던 카우프먼은 대결한 상대 중 70%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날의 상대인 스미스는 위스콘신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소꿉친구를 짜며 자랐고, 마운틴 바이크를 즐겨 타며, 가라테를 수련한 특별한 숙녀였다. 그런 그가 경기를 위해 레슬링 코치와 특훈을 했으니, 어떤 경기가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나?



시합은 1981년 10월 11일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호텔에서 열렸다. 계체량이 열리자 카우프먼과 스미스는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했고, 기자회견에서 말싸움도 벌였으며, 그 결과 카우프먼이 회견장에서 퇴장당하는 불쌍사나운 일까지 벌어졌다. 그날 밤 카우프먼이 스미스를 마주하기 위해 링에 올랐을 때, 그는 관중석에서 뽑은 지원자 중 여섯 명의 여성과 치른 예선전에서 모두 승리한 상태였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심판의 편파적 판정이 큰 몫을 했다는 것.



그러나 메인 이벤트는 예상보다 철저하게 준비됐다. 유명 프로 레슬러인 '금발의 프리티 보이' 래리 사피가 심판을 맡았으니까.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 스미스는 재빨리 뛰어 난 운동신경을 과시하며 카우프먼의 다리를 걸고, 헤드록을 빠져나왔으며, 넘어뜨리고는 등 뒤를 공략했다.

샤피에 의해 나중에 밝혀진 건,
카우프먼이 시합 내내
스미스의 꺾기에 대고
떠들어댄 말이다.
“다 알아, 나랑 침대에서
한판 하고 싶지?”
그는 빌리 진 킹과 1973년
테니스로 성대결을 벌여
패했던 보비 리크스의
스테로이드 버전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상과 달리 시합은 전형적인 프로 레슬링 쇼처럼 끝났다. 스미스는 두 번이나 카우프먼을 완벽히 제압했으나 그때마다 심판 샤피는 갑자기 링 위로 난입한 다른 심판을 밀어내느라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 카우프먼이 역전시켜 스미스 위에 올라가자 그제야 심판은 카운트를 시작했고, 〈플레이보이〉가 역대 가장 빠른 카운트로 칭할 만큼 눈 깜짝할 사이 숫자를 셸다. 스미스의 어깨가 링에 닿지도 않았는데, 경기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렸다.



심판이 왜 그렇게 빨리 카운트를 했는지, 카우프먼이 돈을 먹인 건지, 혹은 애초에 짜여진 각본대로 경기가 진행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18분 35초가 흐르고 경기는 끝이 났다. 카우프먼은 혼성 레슬링 챔피언 타이틀을 방어했다. 그리고 3년 뒤, 그가 갑작스레 사망할 때까지 그는 타이틀을 지켰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사나이였던 거다.



THE DOMESTIC LIVES

피트는 평범한 남자지만,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인지 모른다.

by *john hornor jacobs*



OF SUPERHEROES

“자기한테 초능력이 생긴다면.” 그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 털을 돌돌 감으며 물었다. “어떤 초능력이면 좋겠어?” 뺨속까지 저널리스트군, 피트는 생각했다. 침대에서조차 그랬다. 그녀는 항상 섹스 전 이런 장난을 치며 그의 물건을 움켜쥐고 말했다. “늘 단단하게 있거라!”

그런데 오늘, 우주에서도 손꼽히도록 안전한 방의 침대에서 피트가 말했다.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초능력을 없애버리는 능력을 가질 거야.”

“응? 초능력을 훔치는 능력 같은 거 말이야?”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것을 없애버리는 능력 말이야. 영원히 없애는.” 그는 누운 자리에서 텅 빈 천장 표면을 바라봤다. 여러 합금과 원소로 만든, 감히 성분을 가늠해보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재질로 구성된 따분하기 그지없는 검정 표면을. 한 가정의 부인이 은밀하게 보내는 시간과 비밀스러운 생각과 행동거지를 숨기기 위해 불가해한 물질로 제작한 나무그늘 같은 곳을. 그가 말했다. “모든 남자들이 평등한 세상을 창조할 거야.”

“남자들?” 그녀가 그의 가슴에서 손을 치우고 알몸으로 일어섰다. “크리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녀는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듯 주위를 둘러봤다. 순전히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었다. ‘블랙박스’ 밖이라면 그들을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 리그 오브 히어로즈(the League of Heroes)의 리더이자 그녀의 남편인 크리스는 세상 곳곳의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었고, 벽을 뚫고 사람의 피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순간이동을 하는 능력까지. 하지만 블랙박스 안까지 그러지는 못했다. 블랙박스엔 보호막이 있었다. 리자는 그들 부부가 여기로 이사 올 때 그걸 장만하자고 고집했다.

피트는 리자와 함께 일어나 청바지를 입고 벨트 버클을 채웠다. 그는 대단한 근육질이거나 엄청난 미남은 아니었다. 키도 크지 않지만 몸은 꽤 탄탄했다. 그리고 셔츠 단추를 채웠다. 단추 하나하나가 제대로 잠겼는지 느긋하게 확인하면서. 흰 셔츠는 포옹 때문에 약간 구겨졌고, 둘이 뒤엉키며 발산한 열기 탓에 뺨뺨하게 세운 줄과 풀 먹인 깃은 늘어져 있었다. 그들이 사랑을 나누며 배출한 습기

가 증발해 블랙박스 내부의 모든 것을 적셨다.

그녀는 옷을 걸치는 피트를 보자 화가 났다. 앞선 밀회에서, 그는 알몸으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그녀가 옷 입을 걸 지켜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벗은 모습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언젠가 한번은, 섹스를 끝내고 옷을 입은 그녀가 힐을 신고 발을 그의 은밀한 부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다. 그녀가 가한 가벼운 압박은 많은 걸 시사했다. 그 행위에 담긴 감정은 뚜렷했다. 그녀는 그를 나약하게 만들고 파괴할 수 있었다. 피트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리고는 외부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은 차가운 가족의 감각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화가 나 있다. “이 일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야.” 그녀가 말했다. “이건 불장난일 뿐이야. 진심에서 우러나 하는 일이야. 나는 크리스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피트는 리자를, 그녀의 동그란 얼굴과 기다란 목을 살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활짝 열린 몸에 그의 몸이 다시 닿았을 때, 코끝에 땀이 맺혔다. 그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땀방울이 그녀 목의 가장 움푹 파인 부위에 떨어졌다.

“당신이 크리스 곁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아.” 피트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저 밖에는 아직도 스커지(the Scourge, 재앙이라는 뜻)가 있어. 세상은 크리스(호출부호 ‘블레이드’인)가 필요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그가 당신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면 안 되잖아.” 그는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나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고.” 피트는 전화기와 지갑, 열쇠를 모두 챙겼는지 확인하려고 주머니들을 토닥거렸다. 불륜 행각에 수반되는 까다로운 절차. “물이 새는 수도꼭지가 어느 건지 알려줘, 리자.”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잖아? 가기 전에 손볼게.”

리그 오브 히어로즈가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부양하는 곳을 하인드 파크(Hind Park)라 불렀다. 그는 하인드 파크에 대해, 또는 자신이 아내 비비안의 최대 약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그는 부모님과 고향 노스캐롤라이

나가 그리웠다. 고향에서 하던 야구 경기와 공원에서 먹던 바비큐, 네티할라강과 채투가강에서 하던 카약 타기, 애팔래치아 트레일을 따라 걷던 하이킹도. 스커지는 피트에게서 그런 생활과 추억을 앗아갔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차례로 그들의 표적이 됐고, 몸값을 풀어내기 위해 감금됐다 살해당했다. 리그 오브 히어로즈(이하 리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神)에 버금가는 첨단 기술을 몽땅 동원했음에도, 그들의 노력은 매번 좌절되었다. 스커지의 술책과 능력은 그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했다.

피트는 하인드 파크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7년간 여기서 살았다. 그는 자신이 여기 있는 건 스커지와 그 부하들로부터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리그에서 ‘메즈메라’라는 공식 페르소나를 부여받은 아내가 자신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개략적으로는 이해한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사랑은 취약점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 그는 하인드 파크를 고향으로 여긴다. 밀러스 필드 변두리에 열린 블루베리 또는 방벽(the Wall) 너머를 감시하는 초병처럼 서 있는 단풍나무와 너도밤나무 잡목림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이곳에서는 미시간주 느낌이 난다. 피트가 과학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거친 두 손은 목공 일과 집 안을 유지 보수하는 데 적합했다.

지금은 가을이다. 피트는 시장이 있는 광장으로 이어지는 아버 레인을 걸었다. 오크나무가 이파리들을 떨구기 시작했다. 도토리들이 발에 밟혀 으깨졌다.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슈퍼마켓과 도서관이, 그 너머 방벽 근처엔 학교가 있다. 전기가 흐르는 방벽의 겉면과 공중을 방어하는 미사일 회전포탑, 쉬지 않고 이리저리로 몸을 돌리는 레이더 안테나를 제외하면 이곳은 미국의 흔한 소도시와 다를 게 없다. 각각의 주택에는 널따란 잔디밭과 보기 좋게 손질한 정원이 있다. 여러 도시에서 공중전투를 벌이고 악당들을 진압하며 긴 하루를 보낸 히어로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영장과 저쿠지도, 주택은 수백 채나 되는데, 그중 대다수는 빈집이다.

민간인 복장의 군인들이 광장에 세운 냉동 트럭에서 박스를 꺼냈다. 피트는 잔걸음으로 다가가면서 짐수레의 폭 잡과 생선 필레 상자, 오렌지와 상추 다발, 우유통과 주스통을 점검했다. 박스의 목적지인 슈퍼마켓은 비어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채 줄지어 놓인 통조림과 다른 청과물 위에서 형광등이 환히 빛났다.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건 내가 점검합니다.” 피트가 한 군인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이걸로 할 요리가 있어서요.”

군인이 빙긋 웃었다. “당신, 리그 멤버의 남편이죠? 어떤 멤버인가요?”

피트는 어깨를 으쓱했다. “메즈메라.”

군인은 몸을 떠는 시늉을 했다. “세상에, 당신은 성인군자처럼 살 수밖에 없겠네요. 마누라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세상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피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늘 정직하게 살아요.” 그는 전화를 꺼내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육류 배달됐음. 우동 갈빗살. 연어도 조금 있음. 원하는 걸 알려주면 포장해서 대기시키겠음.’ 그 즉시 리그 멤버 몇 명이 답문을 보냈다. 베스는 ‘연어!’라는 문자, 크리스는 ‘스테이크 좀 남았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브랜디 차일드리스의 답문은 이랬다. ‘애들 먹일 갈빗살 여섯 덩이하고 돼지고기 소시지 좀 부탁해! 그리고 나 대신 M&M 좀 집에 데려다줄래? 우리는 4시면 귀가할 거야.’

그는 전화기의 반짝이는 표면을 응시하며 각각의 문자에 답문을 보냈다. 피트는 고기를 포장하고 라벨을 붙인 다음 유리문이 달린 냉장고에 넣었다. 모든 게 제자리에 놓이자, 식구들이 먹을 저녁거리로 갈빗살과 시금치를 모아 봉지에 싰 다음, 난초 화분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로 나왔다.

학교에 도착한 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하인드 파크에 있는 학교는 둘로 나뉘어 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또는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아이들이 다니는 방벽 너머까지 확장된 부분, 그리고 그 나머지를 위한 방벽 내부의 구역.

피트의 아들 행크가 함성을 지르고 백팩을 휘두르며 학교 정문에서 쓴살같이 뛰어 나왔다. 비비안은 그에게 행크가 텔레파시에 소질을 보인다고 말했다. 예지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감각, 투시력. 아이는 조만간 방벽 내부에 있는 학교로 옮길 것이다. 브라이스와 리지가 오빠 뒤를 따라왔다. 여덟 살 쌍둥이의 관계는 복잡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피트는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정확히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몰랐다.

피트는 행크의 머리를 형클어뜨리고는 쌍둥이를 모두 안아 올려 팔 그네를 태워줬다.

“아빠, 블레이크 부인하고 같이 있었네요.” 리지가 말했다.

“그 아줌마는 예뻐요.” 브라이스가 말했다.

“그래, 예쁜 아줌마지.” 피트가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잘못 말한 그녀의 이름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학교는 어땠니?”

“우리가 이겼어요.”

쌍둥이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코딩 시험에서?”

“예, 간단하게 이겼어요.” 아이들이 말했다.

“애들아, 한 번에 한 명만 말해야지.”

“정보를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앱을 코딩하는 거였어요.” 리지가 말했다. 브라이스의 입술이 리지와 교감하며 들쭉거렸다.

“와! 그거 편리하겠는걸.” 피트가 말하면서 브랜디와 실베스터 차일드리스 부부의 아이들인 마커스와 미카엘라(M&M)에게 손을 흔들었다. 미카엘라가 아이들 특유의 사랑스러운, 뭔가 어색한 몸놀림으로 피트를 향해 달려왔다. 마커스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며 피트에게 하이파이브를 청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소시지 좀 다 챙겼니?” 피트가 물었다.

그는 차일드리스네 아이들의 집으로 갔다. 실베스터와 브랜디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피트는 아이들 간식으로 땅콩버터를 바르고 젤리를 올린 크래커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물에 뛰어들었다. 마커스는 열세 살로, 물속에서 숨을 쉬며 격렬한 물살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피트는 미처 챙겨오지 않은 수영복을 찾기 충분할 정도로 오랫동안 편히 아이들을 내버려뒀다. 실베스터와 브랜디 부부의 침실에 들어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큼직한 벽장 앞에 섰다. 그리고 수영복이 보일 때까지 서랍을 뒤졌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자신의 옷을 단정히 팔에 끼고 아래층으로 돌아갔다. 쌍둥이의 다이빙에 접수를 매기고, 행크를 공중에 던져 올려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물속에서 마커스와 레슬링을 했다.

피트가 수영장 벽에 몸을 기댄 채 물장구치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실베스터와 브랜디가 웃으며 집으로 들어섰다.

“안녕, 피트!” 브랜디가 말했다. “애들 챙겨줘서 고마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딱히 다른 할 일도 없었어.”

“어어, 이봐, 지금 그제 자네 속옷이야?” 실베스터가 물었다.

피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자네 수영복 좀 빌렸어. 근데 나한테는 좀 크네.”

실베스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브랜디를 힐끔 봤다. 실베스터의 두 팔과 두툼한 목, 양 어깨에서 두꺼운 바줄 같은 근육이 볼록거렸다. 사람들은 그를 록폴(Rockfall, 낙석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그에게 이 호출부호가 주어졌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게 들리네요”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비비안에게 들었다. 그는 무슨 광물질이란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눈빛이 오갔다. 브랜디의 눈빛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다고, 피트는 확신했다. “갈빗살하고 돼지고기 소시지는 냉장고에 넣어놔.” 피트가 말했다. 실베스터가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을 따라간 브랜디가 몇 분 후 근육질 체구를 돋보이게 하는 원피스 차림으로 돌아왔다. 맥주 세 병을 가져온 그녀는 한 병을 피트의 머리 근처에 놓고는 몸을 낮췄다.

“당신,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네.” 그녀가 말했다.

“실베스터는 자기 물건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 형제자매가 많은 집에서 자랐거든.”

피트는 맥주를 들이켰다. “아하, 난 외동으로 자랐지.” 그가 말했다. “우리 집은 외톨이인 나만 있는 탁 트인 공간이었어. 광활한 평원에 사는 히스클리프(〈폭풍의 언덕〉의 주인공)였다고나 할까.”

“히스클리프가 사는 데는 황무지야, 피트. 자기를 풍경에 비유하자면 광활한 평원은 아냐. 그건 정말 확실해. 자기는 젖소 방목지랑 더 비슷한 사람이야. 똥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피트가 눈썹을 치켜세우고는 미소 지으며 맥주를 한 번 더 들이켰다.

“자기 관련 서류를 읽어봤어.” 브랜디가 말했다.

“형제들과 누이가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형제자매가 하나도 없지.”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이 혀끝까지 나왔지만, 입을 닫은 후 머리를 적시고는 물속으로 잠수했다. 그녀의 가슴이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났다. 상실한 것, 실패한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트는 젖은 손가락 하나를 그녀의 머리에 얹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다. 몇 년 전의 하룻밤을, 그 크리스마스 밤을 제외하면, 그날, 모두가 에그노그와 술을 마시려고 그리슨의 집에 모였다. 비비안은 지휘본부 호출을 받아 자리를 비웠다. 크리스마스캐럴이 지겹도록 울려 퍼질 때, 베스 마이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별 아이브스는 이제 그만!” 그런 다음 스테레오를 잠궜다. “이제 제대

영덩이를 흔들어대던 브랜디는 피트의 손을 잡고 그를 춤판으로 잡아당겼다. 그는 그녀의 육신을, 그녀가 뿜어내는 열기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의식하기에 충분한 양의 스카치를 마신 상태였다. 열기가 온몸에 고스란히 퍼졌다. 그녀는 그의 아랫도리를 힐끔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그걸 알았다. 둘은 춤을 멈추지 않았다.

로 된 파티를 시작해보자고요.” 앨 그린의 음악이 시작될 때 그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러 갔다. 모두 큰 소리로 웃어댔다. 실베스터와 그리슨은 계린 부부와 함께 주방에서 잡담을 나눴고, 영덩이를 흔들어대던 브랜디는 피트의 손을 잡고 그를 춤판으로 잡아당겼다. 그는 그녀의 육신을, 그녀가 뿜어내는 열기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의식하기에 충분한 양의 스카치를 마신 상태였다. 열기가 온몸에 고스란히 퍼졌다. 그녀는 그의 아랫도리를 힐끔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그걸 알았다. 둘은 춤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얹은 그의 손을 치우고 몸을 세웠다.

“새 커플이 이사 올 거라는 소문이 있어.” 브랜디가 맥주를 다 마시고 다른 병을 마시기 시작했다. 실베스터는 자기 몫의 맥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여자를 플라스마코일, 남자는 닥터 헬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어. 내가 보기엔 조금 연극 대본 느낌이 나는 이름 같아.”

피트는 미소 지었다. “작명 솜씨 좋은 사람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름을 그냥 헬리오스라고만 붙이면 좋았을 거야. 헬리오스, 태양의 신, 그 사람, 눈으로 레이저나 그런 걸 쏘는 거야?”

“전혀 모르겠어. 메즈메라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입주 관련 안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비비안은 집에 늦겠군.”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은?”

“생기기 직전. 그 여자, 배가 볼록하데.”

“잘됐군.” 피트는 침묵에 빠졌다. 브랜디는 그를 주시했다.

“도통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할 줄 알잖아.” 그녀가 말했다. 집 안을 쳐다보고는 다시 피트에게 눈길을 돌렸다. “리그 홀에는 언제나 애기가 돌아.”

“세상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물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늘 수다를 떨지, 슈퍼히어로조차 그래. 맥주 고마웠어.

실베스터한테 수영복은 아침에 돌려주겠다고 전해줘.” 그는 수영장으로 몸을 돌렸다. “애들아!”

피트의 집은 현대적 느낌이 물씬한 식민지 시대 양식으로, 하인드 파크에서 가장 전통적 스타일인 면서 가장 오래된 집이다. 스커지 조직 신디케이트가 캡틴을 N차원에 밀어 넣는 데 성공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그가 여기 살았다.

샤워를 한 피트는 체육복 반바지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힐의 지명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 그는 식당 테이블에서 행크가 대수학 숙제를 하는 걸 도와줬다. 브라이스와 리지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대다수 과목의 실력이 피트보다 뛰어났지만, 행크는 여동생들한테 가르침 받는 걸 거부했다. 숙제를 마친 후엔 다 같이 탁구를 쳤다. 피트가 만드는 중인 거대한 흰색 삼나무 카누 키트가 차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인드 파크에는 차가 한 대도 없다. 그래서 피트는 차고가 왜 있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인드 파크에는 도로가 있었다. 언젠가 이곳이 바깥세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N차원에 갇힌 캡틴처럼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남지 않을 거란 뜻 같았다. 리그 멤버 대다수는 하늘을 날 수 있었다. 리그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그리슨이 피트에게 골프카트를 권한 적이 있었다. “그래, 당신이 나한테 주려는 게 그럴싸하게 꾸민 휠체어인가요?” 피트가 말했다. “내가 머글(〈해리 포터〉에 나오는 마법을 쓰지 않는 일반인) 문신을 새기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그건 어떨까요?” 당황한 그리슨은 말을 더듬었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자 비비안은 남편에게 격한 소리를 퍼부어댔다.

피트는 파티오에서 황혼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느릅나무와 오크나무를 주시하다, 이미 대지의 테두리를 넘어간 태양이 쏟아낸 빛을 받으며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회청색 하늘을 가로지르며 남쪽으로 높이 날아가는 거위들을 지켜봤다. 하늘은 리그의, 아내의 운동장이지만 하늘이 그를 위한 공간인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래도 그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낙엽이 떨어졌

고, 베스 마이어가 키우는 골든리트리버 중 한 마리가 희미해지는 햇빛을 향해 목이 쉬도록 짖어댔다. 집 안으로 돌아간 그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아이들 모두 글을 굉장히 잘 읽는데도) 책을 읽어줬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침대에 밀어 넣으며 뽀뽀를 해주고 침실을 나설 때 가져가려고 아이들의 전화기와 아이패드를 챙겼다.

“엄마가 집에 곧 올까요?”

“물론이지.”

“우리한테 뽀뽀하라고 엄마를 보낼 거죠?”

“당연히 그럴 거야.”

그는 빨랫감을 챙기고 불을 켜다.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스카치를 한 잔 따른 뒤 알몸으로 침대에 들어가 그걸 마셨다. 비비안이 귀가했을 때도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긴 하루였지?”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다 스카치 냄새에 코를 찡그렸다. “맞아. 새 커플이 왔어. 그리슨하고 내가 입주 관련 안내를 해야 했어. 우리 집에서 세 집 아래로 이사 올 거야. 그 어머머마하게 크고 넓은 튜더 스타일 집으로.”

“실베스터하고 브랜디한테 얘기 들었어. 밥은?”

“스무디 한 잔으로 때웠어.”

그녀는 옷을 벗었고 피트는 그걸 지켜봤다. 비비안은 의사의 딸이자 성공회 목사의 손녀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의 후예다. 그녀는 우아하고 고상한 코부터 섬세한 턱까지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영덩이의 멋진 곡선과 우아한 두 팔, 표현력이 풍부한 손까지. 두 사람은 대학에서 만났다. 그녀의 공중부양, 텔레파시, 최면술의 재능을 발견한 건 피트였다. 리그에 들어가보라고 등 떠민 것도, 비비안과 관련된 모든 비범한 것은 피트와 관련된 모든 평범한 것들과 잘 어울렸다.

비비안이 침대에 올라오자, 그는 두 손을 아내의 넓적다리와 영덩이 아래로 놓았다.

“안 돼, 피트.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당연히 그렇겠지, 허니.”

“화내지 마.”

“화내긴, 당신은 할 일이 아주 많았잖아.”
“자기도 여기서 할 일이 잔뜩 있었잖아. 애들은?
어땠어?”
“자기가 들어오면 애들한테 뽀뽀하게 만들겠다고
애들한테 말했는데.”
“뽀뽀했어. 그렇게까지 정신없는 여자는 아냐.”
“애들은 착하게 굴었어. 리지하고 브라이스가 코
딩 시험에서 이겼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
기, 나를 읽고 싶어?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볼래?” 그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그녀를 향한
친밀함을 표명했다.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린 건 두
번째 질문이었다.
그녀가 그가 벌린 두 팔 안으로 들어가 그의 얼굴
과 입을 만졌다. 우아하고 귀족적인 손가락이 그
의 피부를 훑고 다녔다. “오, 피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그냥 자면 좋겠어. 스커지가 벨기에 핵 과
학자를 납치하고, 사용 후 플루토늄 봉들을 훔쳐
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초능력으로 그것들의 행
방을 알아봐야 했어.”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폭탄이야?” 그가 물었다.
“아마도.” 그녀가 그에게 키스했다. 그는 친숙함
에서 비롯된 안락한 느낌에 마음을 놓았다. 그녀
의 품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육신이라
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뗏목. 둘은 사랑을 나눴다.
그녀는 그를 잊지 않았다.
밤중에 그는 침묵에 잠긴, 칠흑같이 어두운 집에
서 깨어났다. 비비안은 부드럽게 코를 골았는데,
피트는 그런 아내를 늘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왔
다. 피트는 일어나 아래층으로 향했다. 알몸 그대
로 차고로 들어갔다. 그가 흰 삼나무로 만드는 카
누가 있었다. 목재 블록으로 싸인, 고운 입자의 샌
드페이퍼를 집어든 피트는 점점 가늘어지는 곡면
부를 사포질하기 시작했다. 조금 뒤 그는 카누에
착색제를 바른 다음 유리섬유를 씌울 것이다. 그
런 후에야 옷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곳에 존재하는 건 삼나무 나뭇결을 가로지르며 움
직이는 그의 두 손과 코끝으로 피어오르는 삼나무
향기가 전부였다. 톱밥이 그의 다리털과 사타구니
로 퍼졌다. 하인드 파크에는 바다가 없다.
토요일 늦은 오후, 피트와 비비안이 적당히 차려
입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은 수영복을 입고 어깨

에 타월을 걸쳤다. 해가 희미한 노란색으로 빛났
고, 겨울이 곧 닥칠 거라는 조짐이 깃든 바람이 약
하게 불었다.
하인드 파크에 새로 도착한 휘트먼 부부를 위해
개최한 파티였다. 피트와 비비안은 파티장으로 걸
어갔는데, 그녀는 전화기를 거둬 확인하며 판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피트의 질문에 건성건성 대
답했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프라하에서 기
이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는 중이야. 인공지능
이 급증한 암호화 감시 정보를 수집했어.” 그렇지
만 그녀는 클러크 부부의 집에 가까워지자 디바이
스를 치워버렸다.
블레이드와 리자 린 부부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
다. 비비안과 피트는 굳이 노크를 하지 않고 현관
을 가로질러 큼직한 흰색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먹을 음식을 챙겼다. 피트는 그의 발밑 지
하실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희미하게 깨달았다.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우렁찬, 클러크 부부의
탁 트인 파티오로 걸어간 그들은 많은 이들의 인
사를 받았다. 피트는 비비안보다 인기가 좋았다.
수영장 너머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게린 부부가 그
를 불렀다. 마커스와 미카엘라도 손을 흔들었고,
베스와 준의 아이들도 그들을 반겼다. 그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을 숯 냄새로 채웠다. 리
틀스미스 부부, 차일드리스 부부, 준과 베스가 거
기 있었다.
“그분이 오셨군.” 스티브 게린, 스핏파이어가 말
했다. “궁궐(court, ‘배드민턴 코트’라는 뜻도 있
다)이 지옥 같아웁니다, 피트 황제 폐하.” 그는 피
트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넘겼고, 피트는 그걸 공
중에서 잡아챘다.
“여기가 궁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마흐린다
게린이 말했다. “여긴 경기장이야. 안녕, 피트.” 그
녀는 피트의 양 볼에 에어키스를 했다. 피트처럼
일반인인 그녀는, 리자와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돈
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아낸 몇 안 되는 배우자
중 한 명이었다. 방갈로르와 런던 사이를 오가며
자란 마흐린다는 7개 국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번
역하고 연락관 노릇을 하고 있다. 배드민턴을 썩
잘 치지는 못하지만,
앞치마를 걸친 크리스가 공기를 몰아내며 피트 앞

에 나타났다. “여기 있어, 브라더.” 크리스는 연한
녹색 거품이 넘쳐흐르는 빨간 플라스틱 컵을 피트
에게 건넸다. “테킬라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블
레이드는 알코올을 처리하는 대사 능력이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다. 피트는 카테일을 조금 삼켰다.
“황금 비율 딱 맞췄어, 크리스.” 피트가 말했다. 크
리스는 미소를 짓더니 순간이동으로 돌아갔다.
브랜디와 피트는 게린 부부와 배드민턴 시험을 하
며 점수가 나는 사이사이에 각자의 마가리타를 훌
쩍었다. 집 상공에서는 나이 많은 아이 넷이 격한
술래잡기를 했는데, 가끔은 기분이 동한 어른들이
놀이에 끼어들려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술을 다
마신 피트는 장신의 금발 여자와 그녀보다 키가
큰 남자 근처에서 있는 리자를 향해 걸어갔다.
피트는 리자의 뺨에 입을 맞쳤다. 가까운 친구 사
이에서는 용인되는 친숙한 행동이다. 파티의 안주
인인 리자는 모든 곳에 있어야 하고 모든 손님에게
음식을 권해야 한다는, 힘에 부치는 압박을 느끼
고 있었다. 그녀에게 빈 술잔이나 접시는 당장 진
화해야 할 불길 같은 거였다. 소개받지 못한 손님
두 명도 다르지 않았다. “피트, 이쪽은 닥터 제프
휘트먼이고 이쪽은 부인인 조지애나야.” 피트는
두 사람과 악수를 하고는 남자의 호출부호가 어째
서 닥터 헬리오스인지 궁금해하며 키 큰 남자를 살
펴봤다.
“안녕하세요, 거참 잘됐네요, 닥터. 요즘 저한테
난 뽀루지가 날마다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
번 봐주실 수 있나요?” 피트가 말했다.
리자는 발끈한 표정이었지만, 조지애나와 제프는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정확히 그런 종류의 닥터는 아닙니다. 입자
물리학 계열에 더 잘 어울리는 닥터죠.” 제프가 말
했다.
“피트는 우리의 상주 코미디언이자 가사 돌보미예
요.” 리자가 말했다.
“그게 제 호출부호입니다.” 피트가 덧붙였다. 그
는 보드빌 공연이 펼쳐지는 대형 천막의 윤곽을 그
리듯이 두 손을 벌렸다. “더 핸디맨.”
리자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흐음, 저는 닥터 헬리오스입니다.” 제프가 피트
와 똑같은 방식으로 두 손을 벌리며 말했다. “호출

그녀가 그가 벌린 두 팔 안으로 들어가 그의 얼굴과 입을 만졌다. 우아하고 귀족적인
손가락이 그의 피부를 훑고 다녔다. “오, 피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그냥 자면
 좋겠어. 스커지가 벨기에 핵 과학자를 납치하고, 사용 후 플루토늄 봉들을 훔쳐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초능력으로 그것들의 행방을 알아봐야 했어.”

부호에 '닥터'라는 접두어를 붙이는 건 조금 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크리스가 그들 옆에 나타났다. "하지만 리그에는 헬리온도 있었고 허니악도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헤스파토스, 헤카테 같이 비슷하게 들리는 호출부호가 엄청 많았어요. 아무튼 당신은 브랜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요."

피트가 조지애나에게 몸을 돌리고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임신부조, 보시다시피." 그녀가 대꾸했다.

허를 찔린 피트는 말을 더듬었다. 휘트먼 부부는, 특히 리자는 그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는 배꼽을 쥐고 웃었다. 크리스는 "햄버거 있습니다!"라고 고함치더니 다시 자취를 감췄다.

"당신 호출부호가 플라스마코일이던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조지애나가 양손을 배 위에 올렸다. 그녀는 거구였다. 피트는 무의식중에 그녀의 몸을 훑어보았다. 탄탄한 근육질이지만, 브랜드의 거대한 근육처럼 외형적이며 거친 방식으로 강인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비비안과도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만난 어떤 여성하고도 달랐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아." 조지애나가 제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임신했을 때는 이걸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녀는 양 손바닥을 배에서부터 올리면서 순수한 에너지로 이뤄진 실과 리본을 꼬집어냈다. 공기가 치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동치는 플라스마 공을 양손에 쥐고 있었는데, 피트는 그 공 안에 전기로 만들어진 유령 같은 배아가 보인다고 상상했다. 조지애나가 불과 몇십 센티미터이기는 했지만,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피트는 이 치직거리는 전기로 만든 존재의 내부에서, 지도에 없는 사랑과 기쁨이 만들어낸 영토를 볼 수 있었다. 그에게도 사랑과 기쁨은 충만했을 것이다. 부모님과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죄책감이 그의 내면에서 사라졌다. 그나마 자그마한 불꽃으로 타오르던 것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조지애나의 내면에서, 육신의 방대함(엄밀히 말하면, 그녀의 몸은 한없이 넓은 듯 보였기에 육신보다 큰 공간)에서 그는 내면의 공허한 부분과 균형을 맞춰주는 평행주를 감지해냈다. 그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는 부풀어 오르면서 성장할 것이다. 한없이 왜소해지지만 하던 시절은 끝이 날 것이다.

"피트." 리자가 그의 팔꿈치를 톡 쳤다. "잠깐 얘기 좀 할까?"

피트는 사과하는 눈빛으로 제프와 조지애나를 쳐

다봤다. "두 분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그는 리자에게 이끌려갔다.

주방에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리자, 이걸 말도 안 돼. 나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시킨 건 당신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바보천치가 아냐."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는 파티오 너머를 쳐다봤다. 크리스가 햄버거를 굽고 마가리타를 섞고 나이 많은 아이들과 프리스비를 던지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저 친구 저러다 버거를 태워먹을 거야." 피트가 말했다.

"크리스는 무슨 일이든 실패하는 법이 없어."

"우리, 이 문제는 블랙박스 안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아." 피트가 말하면서 그녀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댔다.

"지금은 안 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서 뭔가가 느껴졌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알았어.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지, 뭐."

"절대 안 돼." 그녀가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었다. 피트는 파티오로 돌아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크리스는 그릴 앞에 미동도 않고 서서 버거를 태워먹고 있었다. 결코 실수하지 않는, 남의 속을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능력이 온전히 피트에게 쏠리고 있었다. 피트는 비비안이 진실을 살피고 있다는 걸, 그의 의식이란 그물 안으로 피라미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들어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했다. 놀던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공중의 동맥 같은 항로를 선화하고 다니던 10대들은 움직임을 중단한 채 제 자리를 땀물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천공을 갈랐다. 전화기들이 알람을 발령하며 짹짹거리기 시작했다. 피트에게 오랫동안 시선을 두고 있던 크리스가 전화기를 꺼내더니 자취를 감췄다. 주걱이 땅에 떨어졌다.

스커지가 다시 악행을 벌였다. 베스와 준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비비안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나, 있잖아." 그녀가 입을 열다가 말을 멈췄다. "애들 집에 데려가. 헬리오스하고 플라스마코일. 당신들은 밖에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당신들한테는 시간이..."

제프가 입을 열었다. "이해했어요." 그는 조지애나의 손을 잡고 클러크 부부의 집 현관 밖으로 나섰다. 제프의 피부가 빛을 내뿜으며 얼룩덜룩해지고 있었다. 그가 입은 옷이 불에 타서 떨어져나갔다. 그리고 수목한계선 위로 날아올라 새로 태어난 별

이 됐다. 조지애나가 자궁에서 플라스마 공을 꺼내더니 그걸 자기 앞으로 가져갔다.

"어서, 애들아!"

"나도 뒤에 남을게." 브랜드가 비비안에게 말했다. 비비안이 피트들의 눈길을 피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파크를 보호하도록 해."

스티브 게린이 리그의 구호인 "모두 하나 되어!"를 외치며 비행 능력이 없는 멤버들에게 서로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모이라고 손짓했다. 빛이 번쩍 하더니 한 몸이 된 그들이 사라졌다. 10대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트는 아내가 공중으로 솟구쳐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그녀의 비행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그녀의 머리칼과 옷에 파문이 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방벽 쪽을, 레이더와 회전포탑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는 듯 보이는 곳을 응시했다.

"어서, 피트." 브랜드가 말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필요할 거야."

그는 그의 아이들, 쌍둥이와 행크를 부르려고 몸을 돌렸다. 마커스와 미카엘라는 조금 기다린 끝에 집에 갈 준비를 마쳤다. 피트는 크리스의 집에 들어가 리자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브랜드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당신,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냐? 피트, 이 빌어먹을 인간아, 스커지보다 더 위험한 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브랜드의 두 어깨가 굳어졌다. 그녀 주위의 공기가 비틀리며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불쾌감을 느끼며 뜨거운 오븐의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인센디아(Incendia, 라틴어로 '불'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세상의 모든 정원에는 뱀이 필요해. 그런데 당신은 뱀 중에는 끈질긴 뱀이야. 무력함과 연약함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뱀이지. 크리스나 비비안이 지금 스커지에만 온 정신을 쏟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피트는 소리 내어 웃었지만, 그게 올바른 짓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떠나려고 애썼다. 그녀의 손아귀가 그의 팔을 더 세게 조이며 앞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말이 맞아." 브랜드가 말했다. "나는 늘 상투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세상의 모든 악당은 자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

그녀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흰색 주방에서 있는 그를, 음식이 한껏 차려진 연회 테이블 근처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는 그를. ❶

그는 한때 궤직직한 포크 가수였다. 그 후에는 비틀스를 롤모델로 삼은 팝 밴드 '더 버즈'의 멧쟁이 리더였다가, 약에 취한 듯 몽롱한 분위기를 풍기며 밴드 '스파이더스 프롬 마스'를 이끄는 빨간 머리 기타리스트였다. 그다음은 소울 가수, 그다음은 영화배우. 그리고 마침내 말끔한 옷차림의 엔터테이너가 됐다. 데이비드 보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전

별난 커리어를 쌓고 있는 그에겐 한 가지 목표가 있다. '대중의 관심'. 이것이 없다면 그는 아마 시들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더라도, 가급적이면 두둑한 지갑을 열고 돈을 내어줄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떠날 거다.

1975년 4월, 보위는 록 음악을 관두겠다고 요란하게 선언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지루한 로큰롤

월,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영국의 유명한 토크쇼 호스트인 러셀 하티와 위성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새로운 로큰롤 앨범 〈Station to Station〉을 홍보하기 위해 심지어 6개월간 월드 와이드 콘서트에 곧 나설 것이라는 기습 발표까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스페인 정부에서 프랑코 총통의 서거를 전 세계에 공표하기 위해 그의 인터뷰에 동원된 위성을

〈자구에 떨어진 사나이〉(1976)의 외계인, 토머스 제롬 뉴턴을 연기한 보위



THE SEXUAL SWITCH-HITTER, DAVID BOWIE

by
cameron crowe

photography
by
andy kent

관능적 패션과 독특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화려한 메이크업. 언제나 파격적이던 데이비드 보위는 글램 록의 선구자를 넘어선 문화의 아이콘이었다.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수많은 아티스트의 우상으로 영원히 기억될 '음악계의 카멜레온'. 1976년, 29세의 보위가 〈플레이보이〉에 솔직하게 풀어낸 이야기를 되돌아본다.

할 것 같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온 성공을 쟁취한 지금, 그는 높은 곳에 머물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본명은 데이비드 존스, 출신은 영국 브릭스턴, 나이는 29세. 보위는 다른 록 스타와는 생판 다른 사람이다. 이렇다 할 요령도 두려움도 없는, 혼자만의 구상으로 언론을 조종하는 능력이 가진 사람. 다방면에서

의 세계는 이제 끝났다. 내가 록 음반을 발표하거나 투어를 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아무썽에도 쓸모없는 옛 같은 록 가수야말로 내가 정말 되고 싶지 않은 존재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73년 런던에서 열린 콘서트의 앙코르 공연 중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음반 〈Diamond Dogs〉를 발표하며 3개월간 미국 투어에 나섰다. 이번에는 훨씬 더 불만한 광경이 연출됐다. 1975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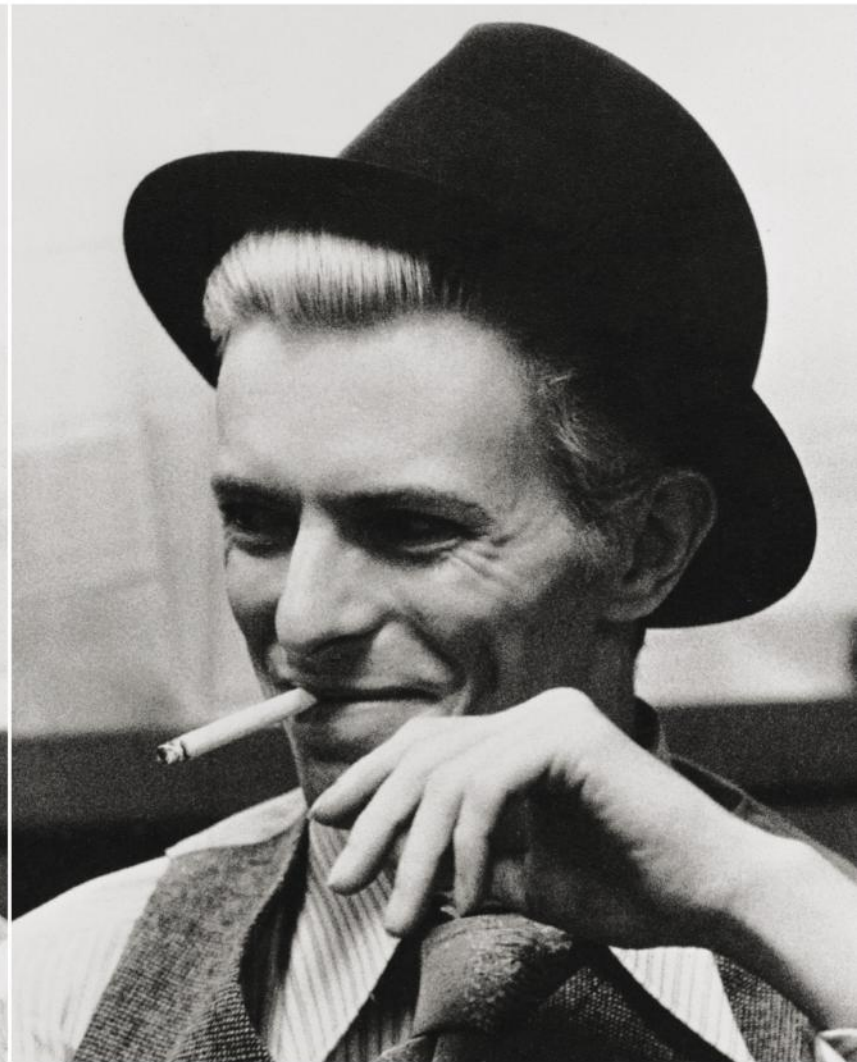
사용하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악동 기질을 한시도 앓는 법이 없는 보위는 인터뷰 중단을 거부했다. 보위는 대중음악계가 애지중지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온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 처음 진출한 1972년, 그는 메이크업을 하고 화려한 여성용 의상을 뽐내며 기타리스트와 함께 아련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 순간, '글램 록'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글램 록은 순수의 영역에

머물던 록을 바깥으로 거칠게 꼬집어냈다. 믹 재거, 롤링 스톤스, 엘튼 존, 앨리스 쿠퍼, 토드 룬드그렌, 루리드, 퀸, 록시무직, 슬레이드, 티렉스, 코크니 레벨까지. 수많은 글리터 밴드들이 그 뒤를 이었다. 보위가 미국 투어를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하자, 불운한 록 음악의 신을 다룬 앨범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그의 퇴폐적 행각에 맞서기 위해, 여러 뮤지션과 평론가가 힘을 합쳤다. 하지만 보위는 이미 새로운 가면을 쓴 뒤였다. 예전처럼 새롭고, 여전히 터무니없는, '디스코 소울'이라는 가면. 연약해 보이던 하드 록커는 느닷없이 야윈 몸을 흔들며 리듬 앤 블루스 음악을 설 새 없이 발표했다. 그리고 대중에게 아주 잘 먹혔다. 'Young Americans'와 'Fame'이라는 엄청난 히

국가에서 매진을 기록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둔 1976년, 록의 황제이자 록의 여왕인 데이비드 보위는 이번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진정한 영화계 스타가 되겠다고 하니, 니컬러스 워그 감독의 최신작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1976)에 출연해 극찬을 받았다. "미스터 보위는 비범한 사나이를 연기했다." 〈뉴욕 타임



Mars)가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먼지만 쌓여가던 이전 음반 세 장도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언론에서는 그를 '비틀스 해체 이후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차세대 거물'이라 묘사했다. 그러나 뜨거운 열광만큼,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그를 향한 공격도 거셌다. 양성적 분위기를 풍기는 보위의 홍보 활동에는 꽤나 불건전하다고 여겨지는 뭔가가 있는 듯했다.

트록이 탄생했고, 세상은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흑인 음악을 주로 다루는 미국의 TV 프로그램 〈소울 트레인〉의 초대를 받은 몇 안 되는 백인 중 한 명이다. 그 후 보위는 성공을 통해 얻은 명성에 걸맞도록 격식 있는 엔터테이너 같은 태도를 보였다. 화이트 셔츠 위에 베스트를 걸치고, 블랙 팬츠를 입었다. 〈Station to Station〉은 '판매액 5억 원 돌파'라는 성스럽고 찬란한 명예를 얻었다. 월드 투어 공연은 모든

스)에 따르면,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를 연기할 배우로 보위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나선 보위의 대장정에 동행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970년대를 휘어잡은 가장 오만한 슈퍼스타'를 상대할 인물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롤링 스톤〉의 컨트리뷰팅 에디터 캐머런 크로를 파견했다. 다음은 그가 제출한 보고서다.

“보위와 나의 대화는 1975년 초반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 앉은 자리가 마라톤 인터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무리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보위는 1시간이 넘으면 몸이 근질거리기만 하더라. ‘우리, 잠깐만 쉬면 안 될까요?’ 그는 불쑥 말을 꺼내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별떡 일어나 다른 일을 하러 가버렸다.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러.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을 아무거나 20개 정도 적어달라고 요청하며 인터뷰를 끝낸 적도 있다. 나는 그걸 실제로 작성해서 그에게 건넸다. 그는 목록을 10초 동안 꼼꼼히 살피더니 내게 되돌려줬다. 그리고 20개를 순서대로 읊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풀풀 풍기는 영화사 임원이나 동료 뮤지션, 심지어 이 세상 그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보위는 언제나 미치도록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다. 동성 연인과의 행위부터 파시즘 연구까지. 밝혀지는 사실이 충격적일수록, 보위의 미소는 더욱 환해진다. 그는 기자가 발문으로 뿜아내기 좋겠다고 생각할 문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딱 그런 정도의 말을 한다. 진위 여부는 아마 중요하지 않을 거다.”

● **Playboy:** 당신이 늘 대답을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듯한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양성애 소문은 얼마만큼 진실이고 얼마만큼 연출인가요? **Bowie:** 사실이에요. 나는 양성애자예요.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대단히 잘 써먹어왔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군요. 내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 **Playboy:**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Bowie:** 음... 먼저, 여자들은 항상 내가 여성과의 관계에서 순결을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쓰는 여자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이리 와, 데이비드. 이건 나쁜 게 아냐. 내가 보여줄게.” 그보다 더 좋은 경우는 이거죠. “우리가 보여줄게”. 나는 늘 바보 연기를 해요. 물론 남자 이야기도 듣고 싶겠죠? 열네 살 때, 갑자기 내 인생에서 섹스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됐어요. 누구랑, 혹은 무엇이랑 같이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섹스이지만 하면요, 학교 옆반의 곱상한 남자애나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가 2층에 있는 내 침대에서 깔끔하게 따먹고는 했어요. 그게 전부죠. 그때 처음 한 생각은, ‘나는 감방에 가더라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될 거야’였어요.

● **Playboy:** 그렇다면 감방을 같이 쓰는 이성애자 동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군요. **Bowie:** 나는 늘 극심한 남성우월주의자로 살아왔어요. 남자애들한테 집착하던 시절에도, 하지만 늘 신사적이기도 했어요. 그애들을 항상 숙녀로 정중하게 대했죠. 에스코

트도 제대로 했어요. 40~50세 정도 되면, 켄싱턴에서 꼬마 여왕들의 끝내주는 스폰서가 될 거예요. 리처드라는 이름의 젊은 하인을 두고,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면서.

● **Playboy:** 당신이 하는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 건가요? ‘보위 빠수이’ 출신인 당신의 전 매니저 체리 바닐라는 스스로 보위랑 잤다고 주장하면서 당신이 게이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내들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아도 그냥 놔둔다고 말하고요. **Bowie:** 그 얘기에 등장하는 사기꾼을 직접 만나면 좋겠네요. 내가 그 사기꾼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래도 기본 좋은 말이군요. 체리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솜씨가 나만큼 뛰어난 여자예요.

● **Playboy:** 그런데 당신이 동성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도 여전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Bowie:** 오, 세상에! 여왕 노릇을 관둔 지 꽤 오래됐어요. 한동안 내 성향은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유일한 때는 일본을 방문할 때예요. 거기에는 정말로 곱상하게 생긴 어린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방금 어린 남자애들이라고 했나요? 그렇게까지 어린진 않아요. 18~19세쯤이에요. 경이로운 멘탈을 가진 아이들이지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여왕 노릇을 하다가, 느닷없이 사무라이로 변신해 결혼을 하고는 자식을 수천 명이나 낳아요. 그 점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 **Playboy:** 록 음악계의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이성애 성향을 내비치려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성향을 활용하겠다는 선택을 한 건가요? **Bowie:** 미국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몰고 갔다고 답해야겠네요.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나한테 게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아뇨, ‘바이(bisexual)’예요.” 그 사람은 ‘바이’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설명해주니 그게 온갖 지면에 실렸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됐어요. 지금은 돌이켜보면 아련한 향수가 느껴지는 시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971년의 미국에서, 섹스는 여전히 소양한 주제였고, 모두들 별난 사람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양성애나 게이 파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니까. 내가 그 주제를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나는 미국에 처음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몇 가지 루머가 돌기 시작하자 게이들은 선언했죠. “우리를 데이비드 보위와 연결하지 말아 주세요.” 그들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당연하죠. 내가 자신들이 나서서 보호하려고 투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성적으로 차려입고 포즈를 취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소리를 질러댔죠. “저 남자 좀 봐. 화장도 하고 드레스

까지 입었어!” 그런데 말이예요, 양성애 성향을 홍보에 써먹은 사람은 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 **Playboy:** 누가 있었죠? **Bowie:** 단이요. 제임스 단이 그랬죠.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뛰어난 방식으로. 그를 보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마 단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언젠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한 말인데, 그는 계산적인 사람이더군요. 부주의하게 굴지 않았죠. 실제로 단은 스스로 묘사한 것만큼 반항아가 아니었어요. 죽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자신을 극단으로 몰고 간다는 관념을 믿기는 했어요. 자신의 인격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그 관념이요. 제임스 단은 오늘날 꽤나 지나치게 좋은 대접을 받는 호색한이예요. 그게 사람들을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끌어당긴 매력의 일부였어요. 있잖아요, 그는... 몸을 팔았어요. 리 스트라스버그 연기학원에 가서 말론 브란도가 되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타임스퀘어 근처를 얼쩡거리곤 했죠. 그렇게 그 바닥에서 꽤나 추잡한 명성을 얻었어요. 나는 그를 존경해요. 숭배하는 영웅이 있는지 내게 묻고 싶다면, 이 말이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거예요.

● **Playboy:**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니 고맙군요. 자, 당신이 〈The Man Who Sold the World〉의 영국판 앨범 커버에 여장을 하고 포즈를 취한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Bowie:**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건 가브리엘 로제티를 패러디한 거예요. 약간 빠딱한 패러디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여장 남자를 숭배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할 때 대꾸했죠. “굳이 설명하려고 애쓸 것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수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주장이라도 동조하는 척할 거예요. 사람들은 스캔들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내게 큰 기회예요. 모든 인쇄 매체가 내가 얼마나 역겨운 농민인지, 내가 진정한 예술을 몰살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일조하는지에 대해 엄청난 양의 글을 써댔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아티스트를 위해 쓸 지면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내 허세가 얼마나 설득력 있었는지 암시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은 내 머리카락이 다음 주에는 어떤 색일지에 대해 무수히 많은 글을 써야 해요. 그들이 내 악상과 포즈에 대해 그 많은 시간과 노고, 지면을 허비하는 이유를 알고 싶군요. 왜일까요? 아마 그건 내가 위험천만한 주장을 펴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당신에게만 뒷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죠. “그는 어떻게 저런 불굴의 자아를 품어낼 용기를 갖게 됐을까?”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일로 보이겠죠.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솔직히, 나는 스스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를 홍보하는 매체는 나 자신’이라는 신념을 품고 위기를 헤쳐왔어요. 내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름의 관점을 가진, 끔찍이도 오만하면서도 솔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존재 방식이에요. 난 진심으로 스스로를 믿어요.

● **Playboy:**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줌만 드는 데 곤경을 겪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쇼 비즈니스를 향한 당신의 작별 인사를 보죠. 당신은 로큰롤과 관련이 있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은퇴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 전 6개월간 월드 투어를 마쳤죠. 당신의 최신로큰롤 앨범 〈Station to Station〉을 홍보하면서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합리화하나요? **Bowie:** 나는 구라쟁이예요. 구라를 치는 건 꽤나 쉬운 일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을 하든, 구라 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한번 뺄은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모두 기억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심지어 스스로 한 말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믿지 않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새로 착수한 작업이 무엇이든 그 일에 서서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후 어떤 상황에 놓일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고래고래 괴성을 질러대는 미치광이? 히피나 독재자? 그것도 아니면 종교계 성직자?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따분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 **Playboy:** 따분함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다른 일은 뭔가요? **Bowie:** 무엇이든 말해봐요.

● **Playboy:** 약은 어떤가요? **Bowie:** 올해가 몇 년도죠? 1976년? 내가 약으로 천국의 문을 두들겨온 지 11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을 하는 건 그것들이 내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1968년 이후로는 심각한 약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예전에 멍청하게도 헤로인에 잠깐 손댄 적이 있지만, 그건 순전히 호기심과 그 효과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였죠. 정말 즐거운 적은 단 순순간도 없어요. 나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약을 좋아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솔하게 밝혀왔어요. 약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싫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감당도 못하면서 뭔가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워야 하거든요. 심각한 시간 낭비죠. 대마초처럼 효과가 느린 약은 싫어요. 잠을 자는 것도 싫고요. 24시간 내내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잠이나 흐느끼는 감기 같은 것에 시달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 **Playboy:** 처음 약에 취했던 순간을 기억하나요?

Bowie: 대마초를 피워서요? 나는 꼬맹이 시절부터 약을 엄청나게 먹어왔어요. 열세 살인가 열네 살 때부터요. 처음 대마초에 취한 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레드 제플린의 존 폴 존스와 피웠을 때예요. 당시 그는 여전히 허만스 허밋의 음반 작업에 베이스 연주자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램블링 잭 엘리

엇과 함께 얘기를 나누던 중, 존이 제의했어요. “가자. 너를 대마의 세계로 안내해줄게.” 잠깐 고민해보고는 말했죠.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우리는 그의 아파트로 갔어요. 경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요. 거기 엄청나게 큰 방이 있었는데, 안에는 큼지막한 하몬드 오르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카인은 해본 적이 있지만 대마초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순서가 어찌다 그렇게 된 건지는 나도 몰라요. 아마도 부두를 통해 약을 가져오던 화물선 선원을 두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대마초를 역겨워하더군요. 그래서 존이 대마초를 큼지막하게 세 개비를 마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죠. 우리는 그걸 다 피웠어요. 정말 뽕 가버렸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허기가 졌고요. 그래서 앉은자리에서 빵을 두 덩이나 먹어치웠죠.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존이 그러더군요. “가서 전화 좀 대신 받아줄래?” 나는 전화를 받으려고 아래층에 내려왔다가, 곧장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길바닥에 깔라진 금의모양새에 심하게 도취됐어요.

● **Playboy:** 애시드(LSD)를 해본 적은 있나요?

물론 남자 이야기도 듣고
싶겠죠? 열네 살 때,
갑자기 내 인생에서 색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됐어요.
누구랑, 혹은 무엇이랑
같이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색사이기만 하면요.

Bowie: 세 번이요. 무척 흥미진진했죠. 하지만 복용해보니 내 상상력은 이미 충분히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내게는 그 깨달음이 더 의미가 컸어요. 애시드는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의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일만 해줘요. 그런데 나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애시드의 효과가 나한테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저 화려한 색채를 많이 만들어내는 약일 뿐이에요. 현란한 빛과 사물. “오, 이것 봐. 창밖에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어찌라고요? 음악을 만들 때 애시드가 필요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 **Playboy:** 마약이 당신의 음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왔나요? **Bowie:** 음악은 나를 확장시킨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질문은 “마약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줬나요?”라고 바뀌야 해요. 약은 나를 개망나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근사한 개망나니. 나는 그런 존재를 보는 걸 꽤나 즐겼어요.

● **Playboy:** 그렇다면 당신의 〈Young Americans〉 앨범을 “개망나니 록 스타가 내놓은 개판 LP”라고 평가한 평론가의 생각에 동의하겠군요? **Bowie:** 글썽요. 실제로는 〈The Man Who Sold the World〉가 제 앨범 중 가장 마약 지향적인 앨범이에요. 가장 망가졌을 때 내놓은 앨범이죠. 〈Young Americans〉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가장 악에 중독된 시기에 내놓은 거예요. 〈The Man〉은 대마초에 대한 내 생각이 굳어졌을 때 발표한 작품이죠. 대마초를 막 끊은 시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 상상력이 약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덜한 마약은 끊게 됐죠.

● **Playboy:** 최근 뉴욕에서 기습 단속을 당해 마리화나 225g을 소지한 게 틀들난 사람의 말로는 들리지 않는군요. **Bowie:** 그 마리화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믿어도 돼요. 자제하게는 말 못하겠는데, 그건 경찰이 기습적으로 덮쳤을 때 그 방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 거였어요. 빌어먹을 약쟁이 같으니. 지독한 아이라니 아닌가요? 내가 그깟 풀때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다니. 나는 대마초라면 진저리가 나요. 10년간 손도 대지 않았어요.

● **Playboy:** 그렇지만 노래 ‘Station to Station’에서는 코카인을 언급하잖아요. **Bowie:** 그래요. 맞아요. 이런 가사가 있죠. “그건 코카인 부작용이 아냐. 그건 사랑인 게 분명해.” 라디오 방송곡에서 그 노래를 틀 때 그 부분을 ‘뽀’ 처리하나요?

● **Playboy:** 들어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 가사를 쓰는 게 꺼려지지는 않았나요? **Bowie:** 거리낌은 전혀 없었어요.

● **Playboy:** 듣는 사람은 코카인을 옹호하는 가사로 이해하기 십상이잖아요. 아니면 그게 바로 노래의 메시징인가요? **Bowie:** 나는 노래에 메시지 같은 건 담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안이나 충고할 것도 없고요.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청각을 내 음악에 조금 더 오래 붙들어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게 전부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면하게 해줄지도 몰라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을 겪은 적이 있긴 하죠. 나는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면한 사람이니까요.

● **Playboy:**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도 앨범은 1년에 겨우 한 장만 발표하죠. 녹음 세션 사이에 당신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Bowie:** 작곡을 하고, 시나리오와 시를 써요. 코로나 방전을 포착하는 킬리언 사진 촬영도 하고요. 나 자신의 매니저 역할도 하고, 연기도 해요. 제작하고 녹음하고 때때로 투어를 다니죠. 지금 당장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않은 데이비드 보위의 새 앨범 다섯 장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바로 건네줄 수 있다고요. 내겐 밀린 일이 엄청 많았어요. 작업, 작업, 또 작업….

● **Playboy:** 휴식을 취하기는 하나요? **Bowie:** 휴가를 가는지 묻는 거라면, 그 대답은 'No'예요. 나는 모든 휴식을 작업의 범위 내에서 찾아내요. 그 문제에서는 무척 진지한 사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슈퍼맨처럼 인생을 헤쳐나가려 애쓰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어요.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옛 먹으라 그래. 흔해 빠진 보통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장비가 지금보다 세 배 더 나은 성능을 보이게끔 개선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 **Playboy:** 자기계발 사례를 몇 가지만 제시해주신다면요? **Bowie:**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서너달 더 이상을 한 문장으로 모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글을 꽤 잘 쓴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사물을 보고 누군가 저절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어쩌면 그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고요. 나는 영화에 대해 아는 게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정말로 취불도 몰랐죠. 그래서 위대한 영화를 잔뜩 구해 연구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해나갔죠. 지금은 영화 예술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주는 연기가 됐고요. 게다가 영화감독으로도 성공할 거예요. 그건 순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데 달린 문제일 뿐이에요.

● **Playboy:** 당신도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 의심스러울 때가 분명 있을 텐데요. **Bowie:** 지금은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2년 전쯤 내가 내 캐릭터였던 지기 스타더스트 그 자체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성공적인 대장정에 나섰죠. 스스로를 철저히 벗겨내 한 겹 한 겹씩 분해해봤어요. 침대에 앉아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가시씩 골라보곤 했죠. 한 주를 보내며 그 대상을 철저히 없애버리려 애썼고요.

● **Playboy:** 당신이 공격한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Bowie:** 처음으로 고른 건 부족한 유머감각이었을 거예요. 지나치게 간간한 성격도 그렇고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는 어떤 결론에 다다랐어요. 아직까지 그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면을 열심히 파고들기는 했어요. 그건 꽤 좋은 치료법이었어요. 내 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헤쳐냈죠.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 **Playboy:** 설 새 없이 자신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정신분열적으로 변하지 않나요? **Bowie:** 내 안에 있는 네명의 존재가 그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거예요. "나는 정신분열적인가?" 아

마도 한쪽 측면은 그럴 테지만, 다른 측면은 내면의 한복판에 바위처럼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사실, 나는 전혀 정신분열적이지 않아요. 내 생각의 틀이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고, 그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건 분명해요. 한순간에 여섯 가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이 서로를 간섭하고요. 운전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그리 좋은 게 아니죠.

● **Playboy:** 어떤 게 진짜 당신의 모습인지 결정하느라 애플을 먹은 적이 있나요? **Bowie:** 나 자신과 같은 흐름을 타는 법을 배웠어요. 솔직히, 진정한 데이비드 존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이건 '야바위 게임'이랑 비슷해요. 움직이는 컵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든 완두콩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었다는 점을 제외하면요. 공을 찾아내더라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따르는 단점의 해결을 뒤로 미루는 데 도움이 돼요. 진담이에요.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주된 이유이자 나의 뇌를 예술적으로 활용하려고 분투해온 이유예요. 내 이름을 널리 알리

요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유일한 건
극단적인 것뿐이에요.
내가 입을 마음껏 놀려대며
자위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고 싶어요. 초기 작품이 성공을 거둔 건 그저 가식이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가식'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파의 책임자로 여겨요. 추종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니, 엘턴? 농담이야.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건 철저히 가식적인 언행이었어요. 내가 한 말이 진짜든 아니든, 당신은 내가 한 말을 글자로 적어낼 거라고 장담해요. 학문적 분석이나 복잡한 사고가 담긴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봐요. 그러면 그들은 하품을 할 거예요. 하지만 가식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보여주면 절대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요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밥 딜런이 14년 전에 준 것과 비슷한 충격을 줬요. 섹스가 몇 년 전에 준 충격하고도 비슷하죠.

● **Playboy:** 섹스는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Bowie:** 아니, 그건 아니죠. 휴 헤프너 씨, 미안합니다. 섹스라는 행위가 충격적인 적은 없었어요.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섹스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람들인 거죠. 요즘 섹스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뽀글 치고 있죠. 요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유일한 건 극단적인 것뿐이에요. 내가 입을 마음껏 놀려대며 자위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머리를 강타해야만 해요.

● **Playboy:** 그게 보위의 성공 방식인가요?

Bowie: 늘 그래왔어요. 결코 변한 적이 없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기 스타더스트로서 한 일은 철저하게 믿음직스러운 로큰롤 가수라는 허황된 껍데기였어요. 몽키스가 꾸밀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출이었죠. 무슨 말이나면,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로큰롤 가수가 세상 그 누구의 연출보다 훨씬 더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성공하는 데 필요했던 특징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싸구려 장난감처럼 알팍한 존재이기를 원해요. 요즘 10대들은 껌을 씹어대면서 특정 스타일의 옷을 차려입고 마치 개미처럼 사방팔방 돌아다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나요? 그 아이들이 다르고 싶어 하는 삶의 깊이는 딱 그 정도예요. 지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예요.

● **Playboy:** 당신이 한때 지기가 됐다고 말한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요? **Bowie:** 그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대 위에서만 그 캐릭터로 변신했죠. 그러자 세상 모두가 지기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차세대 거물인 것처럼, 대규모 군중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나조차도 나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엄청난데 두려운 일이지. 그래서 다시 빠르게 정신을 차렸어요.

● **Playboy:** 당신의 팬들이 당신을 내팽개칠까 봐, 소울 가수나 다른 어떤 존재로서 보위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봐 걱정한 적이 있나요? **Bowie:** 음... 사람들은 내 여정이 시작됐을 때 그것이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해해야 해요. 나는 뮤지션이었던 적이 결코 없어요.

● **Playboy:** 그러면 어떤 존재였나요? **Bowie:** 불행한 건 내가 늘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음악이 무의식중에 한 덩어리가 됐고, 결국 음반으로 영화 작업을 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콘셉트 앨범을 내놓았지만, 그 앨범은 결국 느릿느릿 수레를 끄는 말이 됐어요. 앞으로 앨범을 만든다면 음악적으로만 즐길 수 있는 앨범이거나, 그냥 망할 놈의 영화를 만들어야 할 거라는 걸 알아요. <Aladdin Sane>과 <Ziggy>, <Diamond Dogs> 같은 콘셉트 앨범들의 완성도는 50%에 불과

해요. 비주얼 작업도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재능 있는 연기자들 중 일부는 록 음악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작업의 르네상스는 록 음악계에서 비롯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록 음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록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 **Playboy:** 하지만 당신은 록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음악이라는 걸, 심지어 사악한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잖아요. **Bowie:** 맞아요, 록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악하기까지 하고요. 세상을 침체기에 몰아넣는 것들은 모두 사악해요. 록 음악이 친숙하게 들린다면, 그건 더 이상 로큰롤이 아니에요. 백색 잡음이고, 장송곡일 뿐이죠. 디스코 음악을 봐요. 무감각한 비트만 끝없이 이어지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데이비드 보위는 흔해빠진 록 가수가 아닌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실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어요. 니컬러스 워그의 영화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를 작업했죠. 더 많은 기회를 거머쥐고, 더 많은 영화를 작업할 거예요. 스스로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끝장난 거라고요. 게임 오버. 어딘가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존재는 결코 되고 싶지 않아요. 밤마다 침대로 기어 들어가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이후로 나는 지금껏 살아온 삶을 이어갈 게 분명해.”

● **Playboy:** 디스코 얘기로 돌아가보죠. 디스코를 장송곡이라고 말하면서도, 작년에는 'Fame'이라는 최고의 디스코 히트곡을 내냈고, 올해는 'Golden Years'로 다시 성공을 거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Bowie:** 나는 디스코를 사랑해요. 현실을 도피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장르죠. 정말 좋아해요. 라디오에 주아장천 나오지만 않는다면요. 요즘에는 뻔질나게 나오더군요. 'Fame'은 대중에게 제대로 먹힌, 믿기 힘들 정도로 허세 가득한 곡이에요.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 곡이죠. 나는 실패할 때까지 무슨 짓이라도 할 거예요. 그러고는 성공을 거뒀을 때, 그 짓을 관둘 거고요. 그래도 내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나의 리듬 앤 블루스는 철저히 가식적이에요. 'Fame'이 수록된 〈Young Americans〉는 거짓으로 가득한 소울 앨범이라고 말할 거예요. 영국인이 작곡하고 노래한 무자크 록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민중음악의 으깨진 유물들이죠. 당신이 5년 전 나한테 〈Young Americans〉를 들려주며 “이건 알앤비입니다”라고 말했다면, 나는 폭소를 터뜨렸을 거예요. 신경질적으로요.

● **Playboy:**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이 5년 후에 발표할 앨범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Bowie: 당신을 앨범과 함께 우리 집 밖으로 내동댕이쳤겠죠.

● **Playboy:**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당신의 노래 'Life on Mars'를 녹음한 것은 어떤가요? **Bowie:** 빌 어맥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바브라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건 극악무도한 짓이었어요.

● **Playboy:** 다른 아티스트와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고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밥 딜런과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Bowie:**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심지어 지난 몇 년간 이 망할 놈의 나라를 떠난 적이 없어요. 7~8개월 전 뉴욕에서 딜런을 만나는 했어요.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았죠. 우리는 절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 **Playboy:** 언제 처음 만났나요? **Bowie:** 상황이 좋지 않았죠. 클럽에서 공연이 끝난 뒤 어떤 집으로 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간 건데, 누구 집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거기에 딜런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굉장하...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딜런한테 몇 시간 동안 입을 털었죠.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 겁이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만사에 대해 계속 떠들어댔어요. 그러다 굿나이트 인사를 했고요. 그날 이후 딜런은 나한테 전화조차 걸지 않았어요.

● **Playboy:**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나요?

Bowie: 뭐, 그다지... 그냥 그 젊은 친구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내가 중요한 말만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 부터 정말 깊은 인상을 받은지는 한참 됐어요.

● **Playboy:** 당신한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다른 뮤지션이 있을까요? **Bowie:** 길 에번스, 리키 리 카르도 정도요. 다른 아티스트를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좀처럼 깊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한테서는 깊은 인상을 받아요. 파워 게임을 벌이는 사람들이요. 게임이 시작되면, 그 사실을 즉시 간파하고 주도자가 돼요. 그렇게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죠.

● **Playboy:**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떻게 로커가 됐나요? **Bowie:**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나는 빈털터리였어요. 록에 뛰어들 건,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자 내 다음 행보를 궁리할 수 있는 4~5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브럼리 기술 고등학교에서 상업미술을 공부하는 화가였어요. 광고 쪽도 시도해봤지만, 끔찍했어요. 밀바닥 중에서도 최악이었죠. 그러다 색소폰에 빠졌어요. 광고계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록에게 기회를 줘보자고, 록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먹고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었고요. 그 시대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재즈와 마약에 취해 살던 모드족의

시대. 당시 젊은이에게는 근사한 옷을 입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죠.

● **Playboy:** 근사한 옷을 장만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Bowie:**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때 카나비 뒷골목 쓰레기통에서 살았어요. 한동안 카나비 스트리트는 꽤나 패셔너블한 곳이었어요. 런던 사람 모두가 그곳을 알기 전까지는요. 젊고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이탈리아 출신 부자라서 셔츠 단추가 떨어지거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옷을 곧장 쓰레기통에 넣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쓰레기통을 뒤졌고요. 위아래를 모두 차려입는 데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어요. 단추를 바느질하거나 소매를 꿰매기만 하면 완벽했죠. 필요한 물건은 슬쩍 훔치기도 했어요. 사람들 눈에는 패셔너블해 보였어야 했으니까요. 모두 '제2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강동 소리뿐인 밴드를 전전했어요. 'David Johns and the Buzz', 'David Johns and the Lower Third'라는 이름을 내건 밴드도 해봤어요. 심지어 'Feathers'라는 마임 극단 생활도 했죠.

● **Playboy:** 마임 배우가 되니 기분이 어땠던가요? **Bowie:** 마임 배우가 되는 건 무척 쉬웠어요. 경쟁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연기를 제법 하는 배우는 나 밖에 없었어요. 사실 테크닉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걸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 몸은 꽤 근사한 편이어서 마음대로 몸을 놀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르셀 마르소와 경쟁할 정도로 충분히 훈련된 배우는 아니에요. 마임은 보디랭귀지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됐죠. 그게 다예요.

● **Playboy:** 부인인 안젤라가 당신의 첫 음반 계약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Bowie:** 안젤라와 나는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같은 남자하고 데이트한 사이였거든요. 그녀가 사건 또 다른 남자가 머큐리 레코드 소속의 인사 담당이었는데, 그 둘이 함께 런던의 라운드 하우스에 온 적이 있어요. 우연히 내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나를 싫어했지만, 안젤라는 나를 좋게 생각했죠. 결국 그녀는 그 남자에게 나와 계약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으름장을 놔어요. 그래서 그는 내 계약서에 서명을 했죠.

● **Playboy:** 두 사람이 동시에 사건 남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Bowie:** 나는 안젤라와 결혼했고, 우리 두 사람은 계속 그 남자랑 만났어요.

● **Playboy:** 왜 결혼한 거죠? **Bowie:** 내가 일주일 넘게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몇 안 되는 여자 중 하나가 그녀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아주 유쾌한 성격이에요. 계속 그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녀는 내게 늘 그런 존재일 거예요. 나보다 더 요구하는 게 많은 사람도 드물죠.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요. 나는 뜻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광장히 집중해요. 나와 같이 산 사람들은 대부분 무서워하며 도망가곤 했죠.

● **Playboy**: 안젤라와 금세 사랑에 빠진 건가요?

Bowie: 사랑에 빠졌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에 빠진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기력이 쇠하더군요. 사랑은 질병이었어요. 혐오스러운 감정이었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제외한 모든 감정도 함께 솟구치는 것 같아요. 야만적인 분노, 시기심. 사랑은 그 점에서 약간 종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 **Playboy**: 당신이 믿는 건 무엇인가요? **Bowie**: 나, 정치, 섹스….

● **Playboy**: ‘나’를 가장 먼저 언급해서 묻는 건데, 자신을 독창적 사상가로 여기나요? **Bowie**: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상한 도둑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공부할 유일한 예술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예술이에요. 나는 내가 효과적으로 표절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티스트가 왜 창작을 해야 하는 거죠? 발명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뭔가를 발명해요. 나는 예술이 딱 그런 식으로 실용적이기를 바라요. 예술은 정치적으로 참고할 만한 대상이 될 수도, 성적인 영향력 또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술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의해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아티스트가 원하는 건 대체 뭘까요? 박물관에 진열할 가치가 있는 작품? 내가 더 많이 도용할수록, 나는 더 우쭐해질 거예요. 여러 사람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죠. 다른 아티스트들을 향한 존경심을 “맞아요, 나는 그걸 써먹을 거예요”라거나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베꼈고 저 사람한테는 저걸 베꼈어요”라고 말해왔으니까요. 예를 들어, 믹 재거는 나랑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질색해요. 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을 때조차도요. 내가 그걸 빼앗아갈 거라는 걸 아니까요.

● **Playboy**: 재거가 롤링 스톤스 앨범의 커버를 프랑스 화가 기 필라에르와 함께 작업할 거라고 당신에게 말했고, 당신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필라에르에게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보다 먼저 발표할 당신의 앨범 〈Diamond Dogs〉 커버 작업을 위해서요. **Bowie**: 재거가 명칭했던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는 절대로 내게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줘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 갔더니, 기 필라에르의 그림을 사방에 늘어놓고 문드러라고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라고요. 그래서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고 대답했고, 그 즉시 필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거는 그런 식으로 ‘참교육’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재수 없는 놈처럼 굴어야 해요.

● **Playboy**: 특별히 고공하고 싶은 또 다른 화가가 있나요? **Bowie**: 노먼 록웰과 함께 커버 작업을 하고 싶어요. 〈Young Americans〉의 커버도 그와 함께 작업하고 싶었어요. 그의 번호를 수순문해 전화를 걸었

죠. 나한테는 굉장히 진기한 일이었어요. 그의 부인이 전화를 받길래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보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커버 작업을 요청해도 괜찮을지 물으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죄송한데, 그이는 작업을 할 때 적어도 여섯 달은 필요해요.” 그래서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도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정말로 훌륭한 장인이잖아요. 내가 그만큼의 정성과 열정을 갖지 못해 유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Playboy**: 정신과의사 중에는 당신의 행동을 강박증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 집안에 광기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두려운가요? **Bowie**: 테리 형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가족 모두가 천재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게 아닐까 봐 겁이 나요. 집안 사람들 중 몇몇은, 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인이예요. 사실 나는 광기를 꽤 좋아해요. 파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근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 나간 가족 이야기에 공감하며 말하죠. “맞아요, 우리 가족도 제정신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실제로 제정신이 아니예요. 개소리 좀 그만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라이예요. 정신병원에서 막 나왔거나, 막 그곳으로 들어가는 중이죠. 아니면 저세상에 갔거나.

● **Playboy**: 가족들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Bowie**: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몇 년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건 2년쯤 전으로 기억해요. 내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 **Playboy**: 파시즘을 강력히 신봉한다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젠가 영국 총리에 출마할 거라는 주장도 했고요. 언론을 더욱 심하게 조종하려는 속셈인가요? **Bowie**: 빌어먹을! 세상만사는 언론에 달려 있어요. 나는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럴 거예요. 총리가 되면 무척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맞아요. 나는 파시즘을 신봉해요. 열악한 상태에 놓인 진보주의 사상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독재 정치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그 체제를 가급적 빨리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독단적 리더십 아래에서 최대의 효율을 보여왔거든요. 진보주의자들은 “자,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라고 말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부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자고요. 보여주지 않으면 이뤄지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꾸물거리기만 하고 정작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TV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성공적인 파시스트예요. 록 스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돌프 히틀러는 1세대

록 스타 중 한 명이었어요.

● **Playboy**: 어쩌서 그렇지? **Bowie**: 잘 생각해봐요. 그를 찍은 영상을 보며, 몸놀림을 잘 관찰해봐요. 그는 재거만큼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무대에 올라 청중을 좌지우지했으니까. 이럴 수가!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미디어 아티스트였죠. 12년간 정치와 무대 연출을 활용한 쇼를 지배하면서 정권을 차지했어요. 그와 비슷한 부류의 인물을 앞으로는 결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나라를 연출한 인물이에요. 진심으로, 나는 총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내 나름의 나라부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케케묵은 나라의 총리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선,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 회사와 TV 방송국을 몽땅 사들여 지배하겠다는 꿈도 꾸고 있어요.

● **Playboy**: 언젠가 나돌던 소문처럼, 무대 위에서 암살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여전히 집착하나요? **Bowie**: 아뇨, 나는 무대 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쁘기만 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런 편집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지금은 내 죽음이 소중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 죽음을 정말 잘 써먹고 싶어요. 내 죽음이 흥미로운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요. 그리고 암살은 영웅이 맞이하는 종말이 아니예요. 암살은… 모욕이에요. 엄청난 모욕. 그건 빌헬름 라이히 철학의 최종 결과물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 그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 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하지 않아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좋은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를 니체에게 넘겨주고는 히틀러를 선택해요. 히틀러가 연설을 하러 뚝뚝뚝 방에 들어올 거고, 전략적인 순간에는 음악과 조명 등장할 테니까요. 로큰롤 콘서트와 비슷한 광경일 거예요. 젊은이들은 열광하겠죠. 땀에 젖은 몸은 달아오를 테고, 무대 위에서 있는 사람이 나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로큰롤 경험이에요.

● **Playboy**: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의 음악을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지배하는 데 쓰면 좋겠다”라고 밝혔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Bowie**: 잠재의식 광고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불법화되지 않았다면, 광고의 영역을 빠르게 벗어나 정치계까지 번졌을 거예요. 나는 그런 일에 아주 능하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한 시간 반 동안 공연장 스크린을 응시하죠.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그냥 텅 빈 화면일 뿐이에요. 물론, 〈롤링 스톤〉은 나를 향한 분노가 담긴 편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바도르 달리도 전성기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는 그림을 그

릴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물체의 의미를 알았죠. 그렇다고 다른 작품은 모두 부숴버리고, 꽃병 같은 것들만 그리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내 생각에, “화가는 프롤레타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만 그려야 옳다”라는 생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사상이에요. 히틀러가 미술관을 전전하며 현대 회화 작품을 찢어발긴 일화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예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로큰롤은 로큰롤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로큰롤을 붙들고 있는 건, 두렵기 때문이에요. 로큰롤이 청년들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 해도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는 안 돼요. 1950년대에 벌어진 안티-록(anti-rock) 운동은 옳았어요. 로큰롤 앨범은 우리의 도덕관념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것들도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죠. 그러니 우리의 앞날 또한 그누가 알 수 있을까요?

● **Playboy:** 잠재의식 광고에서 출발해 음반 산업의 죽음을 고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주장이 그다지 논리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묻는데, 미래의 음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Bowie:** 음악은 노동계급의 예술적 감수성으로 복귀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분됩니다. 음악으로서 사운드가 아닌, 질감으로서 사운드, 노이즈 뮤직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꽤나 논리적인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는 독일의 크라프트베르크예요.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이즈 뮤직을 연주하죠.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요.

● **Playboy:**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자구에 떨어진 사나이>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나요? **Bowie:** 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게요.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나와 공통점이 많은 ‘뉴턴’이라는 배역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뉴턴은 자동차를 두려워하면서도 고속 질주는 좋아해요. 신체는 야원 편이죠. 우리한테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 **Playboy:**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을 당한 건가요? **Bowie:** 니컬러스 워그 감독이 시나리오를 보내고 한참 후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지만, 나는 밖에 있었죠. 8시간쯤 지난 후에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9시간이 지나자, 당연히 워그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가 주방에 앉아 있더군요. 2층으로 올라가지도, 내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몇 시간이나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세상에, 어쩌나 민망하던지,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그 상황에서 내가 영화에 출연하겠다는 말을 꺼내면 더 민망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묻더군요, “그래요, 데이비드.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진부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의 얼굴이 심하게 어두워지더니,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두세 시간 후, 나는 이 남자가 천재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데 그 스토리 라인은 영화의 알맹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이에요. 영화는 인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외계인의 본질적 정신세계를 그려내는 데 공을 들여요. 지금도 워그 감독이 영화에 담았던 분위기를 전부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나를 훨씬 웃도는 예술의 차원에 속한 사람이예요.

● **Playboy:** 워그가 당신을 원한 이유는 뭐였나요?

Bowie: 처음엔 피터 오톨을 캐스팅했지만, 그가 출연하지 못하게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이 워그 감독에게 나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 <Cracked Actor>를 보라고 조언했대요. 추측인데, 지기를 향한 내 애착이 워그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내 외모도 도움이 됐고요. 그는 차갑고 선이 뚜렷한 얼굴을 원했어요. 내 얼굴이 딱 그렇죠.

● **Playboy:** 카메라에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Bowie:** 1시간 미만이에요. 첫 영화였기 때문에, 나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지

음악은 노동계급의 예술적 감수성으로 복귀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분됩니다. 음악으로서 사운드가 아닌, 질감으로서 사운드, 노이즈 뮤직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꽤나 논리적인 일인 것 같아요.

지 않는 사람이 감독이었다면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하고는 작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해요. 촬영장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지나기 전에, 내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내가 감독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요. 분명 어마어마한 감독이 될 거니까요.

● **Playboy:** 연기가 로큰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나요? **Bowie:** 로큰롤도 연기예요. 내 모든 앨범은 그저 특정 캐릭터를 연기해 내놓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내놓은 많은 음반을 자랑스러워하지만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각적 요소가 부족한 것들이니까요. 영화에 출연한 건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거예요. 나의 팬들 또한 나와 함께 영화계로 이동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들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들이거든요.

● **Playboy:** 포드 대통령의 20세 아들인 스티븐 포

드가 당신의 열렬한 팬이죠.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당신을 방문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Bowie: 스티븐 포드요? 말 타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나는 영국식 승마를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자기는 미국식 승마를 한다면서, 영국식 승마가 더 힘들다는 걸 안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죠, “맞아요. 영국식은 기술보다는 에티켓과 격식이란 관련이 깊죠.” 포드도 동의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진짜로요. 무척 마음에 드는 청년이었어요. 그에게 로큰롤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 **Playboy:**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Bowie:** 바로 그때 그가 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 **Playboy:** 포드 대통령을 만나러 오라며 당신을 초대했나요? **Bowie:** 아뇨, 반대로 그에게 물었죠. 내가 그 동네에 가면 나를 초대할 거냐고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가 걱정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와 있을 때마다 신사처럼 굴었는데.


● **Playboy:** 앨런 존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Bowie:** 존이 며칠 전 내게 근사한 소식을 보내왔어요.

● **Playboy:** 당신은 그를 ‘록의 게이 여왕’이라고 묘사하지 않았나요? **Bowie:** 그랬죠. 음, 그건 그 전보를 받기 전의 일이었어요. 존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노래를 듣는 쪽을 더 좋아해요. 우리, 뭔가 다른 일을 해봅시다. 작곡을 하고 싶나요?

● **Playboy:** 그럼요. **Bowie:** 좋아요. 우리, 노래 제목은 ‘Audience’로 합시다. 로큰롤에 관한 가사를 쓰고요. 괜찮죠? 내가 말할게요, “레드 제플린은 건고하고 꼬떡없다. 그들은 당신을 벽과 같은 존재로 만드네다.” 받아 적고 있나요? 빨리요. 아티스트 이름을 대봐요. 록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 **Playboy:** 스티비 원더는 어떤가요? **Bowie:** 좋아요. “스티비 원더는 성장하는 중이고, 당신은 그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는 인기 많은 청년이에요. 모두가 그를 사랑하죠. 또 누가 있을까? 뛰어난 작곡가 중에서는요?

● **Playboy:** 조니 미첼. **Bowie:** “조니 미첼은 우리의 심장을 훔쳤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예요. 그렇죠? 오케이, 기타 좀 가져올게요. 좋아요, 노래를 시작합시다! “레드 제플린은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있어/기분을 냉랭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지/이봐, 거기 벽처럼 서 있는 스티비 원더/기대기 딱 좋은,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근사한 선율 아닌가요?

● **Playboy:** ‘Changes’도 그렇게 작곡한 건가요? **Bowie:** 아뇨, 하지만 그게 <Diamond Dogs> 앨범의 수록곡 대부분을 만든 기본 방식이에요. 

(뒷이야기는 www.playboykorea.com에서 이어집니다.)

PLAY MARKET

〈플레이보이〉의 시선을 잡아끈 2월의 뉴스.



1 몽블랑, 타임워커 컬렉션 2종 출시 몽블랑에서 타임워커 컬렉션의 크로노그래프 모델 2종을 선보였다. 1908년부터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해온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독보적 기술력을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 1960~1970년대의 모터 레이싱 정신을 담은 다이얼의 디자인은 대시보드를 연상시킨다. 30m 방수 기능을 갖췄으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 ☎ 1670-4810 🌐 www.montblanc.com **2 S.T.듀퐁, 필기구 컬렉션 '뉴 라인 디' 공개** S.T. 듀퐁에서 성공을 상징하는 '뉴 라인 디(New Line D)' 필기구 컬렉션을 선보였다. S.T. 듀퐁 고유의 기술인 래커칠이 우아한 광택을 내며, 견고한 금속 소재로 제작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볼펜과 수성펜, 만년필로 구성된 컬렉션은 두 가지 사이즈로 만날 수 있다. ☎ 02-2106-3596 🌐 www.st-duPont.co.kr **3 로저드뷔, 모터스포츠 정신 담은 신제품 출시** 로저드뷔가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람보르기니, 피렐리와 협업해 기존의 강렬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에 역동성까지 더했다. 블랙 컬러의 견고한 디자인은 실제로 두 브랜드의 제품을 제작할 때 쓰는 소재를 활용했다. ☎ 02-2118-6026 🌐 www.rogerdubuis.com **4 BMW, PHEV i퍼포먼스 모델 가격 공개**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i퍼포먼스 모델 3종의 국내 가격을 공개했다. 3종 모두 내연기관의 엔진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해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전 라인업에 확장해 친환경 드라이빙 문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 02-3441-7800 🌐 www.bmw.co.kr



1 아크네 스튜디오, Summer Houses in Sweden 아크네 스튜디오의 이번 컬렉션은 스웨덴 여름 별장의 전통적 컬러로 구성된 것이 눈에 띈다. 느슨한 실루엣과 여유로운 핏에서 별장에 있는 듯 편안함이 느껴진다. ☎ 02-542-2290 🌐 www.acnestudios.com **2 파타고니아, '나노에어 라이트 하이브리드' 컬렉션 출시** 파타고니아의 나노에어 라이트 하이브리드는 보온성만 강조하는 두꺼운 재킷과 달리 파타고니아고유의 보온재를 사용해 이너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땀과 열을 빠르게 배출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 02-6169-4096 🌐 www.patagonia.co.kr **3 보테가 베네타 2018 S/S 컬렉션** 보테가 베네타의 컬렉션은 늘 그 래왔듯이 '컬러'에서 시작된다. 경쾌한 컬러 팔레트는 소용돌이치는 듯한 풍부한 색감을 지닌 영국 케들스톤 홀의 마블 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특히 이번 컬렉션은 장인의 손길이 닿은 정교한 장식으로 한층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했다. ☎ 02-3438-7690 🌐 www.bottegaveneta.com **4 구찌, 보스코 앤 오르소 컬렉션 출시** 구찌가 개띠 해를 맞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강아지의 얼굴을 정면에 배치한 클러치백과 지갑은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애완견을 그린 언스킬드 워커의 일러스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 1577-1921 🌐 www.gucci.com **5 브리오니, 그레이 재킷 출시** 브리오니가 클래식과 캐주얼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레이 재킷을 선보였다. 최고급 울과 실크 혼방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다. ☎ 02-3449-5396 🌐 www.brioni.com **6 아.테스토니, New Color** 매 시즌 다른 컬러로 출시하는 M11559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아.테스토니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레드 우드(Red Wood)' 컬러는 은은한 붉은빛으로, 다른 아이템과 매치해 연출 가능하다. ☎ 02-554-4310 🌐 www.testoni.com



1 타사키, 밸런스 노트 라인 출시 타사키에서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링과 네크리스로 구성된 밸런스 노트 라인을 선보였다. 시그니처 디자인인 직선 바를 변형하고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경쾌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 ☎ 02-3461-5558 🌐 www.tasaki.co.kr **2 톰 포드, 미국적 향담은 '바닐 파탈' 출시** 톰 포드가 우디 오리엔탈 계열의 오드 퍼퓸 '바닐 파탈'을 선보인다. 사프란과 고수, 동남아에 자생하는 푸르마리아 꽃 향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향을 느낄 수 있다. ☎ 02-3440-2760 🌐 www.tomford.com **3 베르사체, '베르사체 딜런블루' 향수** 베르사체가 남성용 향수 '베르사체 딜런블루'를 추천한다. 상쾌한 톱 노트와 부드러운 미들 노트, 깊이 있는 베이스 노트가 강한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다. ☎ 02-3453-7577 🌐 www.versace.com **4 부쉐론, 160년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 개최** 파리의 방돔 광장에 진출한 첫 번째 주얼러, 부쉐론. 4대에 걸쳐 160년간 이어온 부쉐론이 2018년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전시를 파리에서 개최했다. ☎ 070-7500-7282 🌐 kr.boucheron.com **5 에탐, 밸런타인 컬렉션 출시** 에탐에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블랙 라제리 '퀴커 트라이앵글'을 선보였다. 홀터넥 디자인의 브라와 브리프를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해 한층 우아하고 여성스럽다. ☎ 02-556-0325 🌐 www.etamkorea.com **6 에르메스, 관능적 '갈로 데르메스' 소개** 에르메스에서 관능적이고 매력적인 장미 향의 향수 '갈로 데르메스'를 소개했다. 묵직한 첫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긴 여운을 남긴다. ☎ 02-310-5174 🌐 www.hermes.com



1 이솝의 세 가지 페이스 올일 이솝이 페이스 올일 세 가지를 제안한다.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려면 '페블러스 페이스 올일', 30~40대 그리고 복합성 피부라면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페이스 올일' 트리트먼트'가, 강력한 영양 공급을 원한다면 '다마스칸 로즈 페이스 올일' 트리트먼트'가 적합하다. ☎ 1800-1987 🌐 www.aesop.com **2 리빙프루프, 정전기 해결책 제안** 리빙프루프의 '노 프리즈 너리싱 올일'은 차가운 바람 에도 수분 가득한 두피를 유지해주며, 모발에 일어나는 정전기를 막아준다. 모발의 유분 밸런스를 유지해 탄력 있고 찰랑거리는 머릿결로 가꿔준다. ☎ 070-4373-7868 🌐 livingproofkorea.co.kr **3 메이크온, 홀 케어 디바이스** 메이크온이 블루, 옐로, 레드 총 세 가지 빛의 파장으로 보습과 탄력을 부여하는 홀케어 디바이스 '마그네타이트 15'를 선보인다. 가벼운 페이스 라인은 물론 넥라인, 다리 등 원하는 부위의 근육을 풀어주는 보디 홀케어가 가능하며, 사이즈가 작아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080-023-5454 🌐 www.makeonbeauty.co.kr **4 더말로지카, 빛나게 해주는 선물** 더말로지카의 '안티옥시던트 하이드라 미스트'는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모공은 조이고 피부 톤은 밝혀주는 에센스 토너다. 피부의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 1577-1981 🌐 www.dermalogica.co.kr **5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더 그루밍' 국내 출시** 시세이도 프로페셔널이 남성의 모발과 두피, 피부를 가꿔주는 '더 그루밍'을 국내 출시했다. 에센셜 올일의 상쾌한 아로마 향으로 편안한 마무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 샴푸, 트리트먼트, 스킨케어 이펙터, 소다 폼 클렌저의 헤어 케어 4종과 워시, 로션, 모이스처 이펙터, 소다 팩 라이너의 페이스 케어 4종으로 구성돼 있다. ☎ 02-555-8839 🌐 www.shiseido.co.kr



CHICAGO
1976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만난 엘턴 존과 휴 헤프너.

PLAYBOY

K O R E A



그룹 발행인 GROUP PUBLISHER

김영철 Kim Youngchull yckceo@playboykorea.com

비서 강주원 Secretary, Juwon Kang

사외이사 EXECUTIVE BOARD MEMBERS

Wanjoo Alexandre Kim

Michele Nathalie Lehmann-Kim

관리팀 ADMINISTRATION

이사 이성엽 Director, Sungyup Lee

차장 최호영 Assistant Manager, Hoyoung Choi

차장 박지연 Assistant Manager, Jiyeon Park

차장 최영화 Assistant Manager, Younghwa Choi

대리 강한규 Assistant Section Chief, Hankyu Kang

제작 PRODUCTION

차장 박선재 Assistant Manager, Sunjae Park

판매영업 DISTRIBUTION

차장 이동남 Assistant Manager Dongnam Lee

SP팀 SPECIAL PROJECT TEAM

부장 유정석 Team Leader, Jungsuk You anyou@kayamedia.com

아트 디렉터 계획경 Art Director, Heekyung Kye hkkye@kayamedia.com

디자이너 김완태 Designer, Wantae Kim capcom@kayamedia.com

에디터 윤연숙 Editor, Yeonsuk Yoon yeon@kayamedia.com

에디터 최은혜 Editor, Eunhye Choi gwsay@kayamedia.com



KAYA MEDIA CORPORATION

www.kayamedia.com

www.imagazinekorea.com

www.playboykorea.com

PLAYBOY
K O R E A

Since 2017

MOTOR TREND

Since 2005

THE NEIGHBOR

Since 1996

2018년 2월호 통권 제6호 | 2018년 1월 21일 발행 | 2017년 1월 17일 등록 | 등록번호 강남 라-00905

발행처 (주)가야미디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대치동) 가야빌딩(우편번호 06195)

대표 번호 02-317-4800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독자 관리 02-317-4825 FAX 02-317-4899 홈페이지 www.playboykorea.com

인쇄 (주) 삼화인쇄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3 TEL. 02-850-0847 인쇄인 유성근

시스템 출력 (주)새빛그래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0번지 TEL. 02-516-8166

돌려보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세요



1월의 플레이메이트
라나

1년 정기구독

10% off



81,000원

2년 정기구독

20% off



144,000원

정기구독 문의

www.playboykorea.com 02-317-4825

PLAYBOY
K O R E A



큐레이터 김영철

Curator, Youngchull Kim yckceo@playboykorea.com

편집장 김정민

Editor In Chief, Jeongmin Kim boy@playboykorea.com

편집 EDITORIAL

부편집장 유지성 Deputy Editor In Chief, Jisung You jisungyou@playboykorea.com

패션&뷰티 디렉터 이선영 Fashion & Beauty Director, Sunyoung Lee sun@playboykorea.com

피쳐 에디터 양보연 Feature Editor, Boyeon Yang yangbo@playboykorea.com

교정 교열 유지숙 Tech Correction, Jisook Yu

박인경 Tech Correction, Inkyung Park

미술 ART

아트 디렉터 장민 Art Director, Min Chang min@playboykorea.com

디자이너 정선희 Designer, Sunhee Jung jsh@playboykorea.com

전략기획팀 STRATEGIC PLANNING TEAM

PLAYBOYKOREA.COM

이사 김정주

Director, Jeongjoo Kim jjkim0730@kayamedia.com

부장 백재은 Manager, Jaeeun Baik jaenee75@kayamedia.com

차장 이유허 Assistant Manager, Yujung Lee klimt9@kayamedia.com

차장 김민경 Assistant Manager, Minkyung Kim minkim@kayamedia.com

대리 허주는 Assistant Section Chief, Jueun Huh huh.jueun@kayamedia.com

대리 이승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dy Lee judy.lee@kayamedia.com

대리 임소연 Assistant Section Chief, Soyeon Lim iponi@kayamedia.com

디지털 디렉터 윤신영 Digital Director, Shinyoung Yoon yoon@playboykorea.com

디지털 필름 디렉터 김원 Digital Film Director, Won Kim bykimwon@kayamedia.com

디지털 에디터 한수연 Digital Editor, Sooyeon Han sooyeon.han@playboykorea.com

디지털 에디터 백가경 Digital Editor, Kakyung Baek kk@playboykorea.com

광고영업 ADVERTISING BUSINESS

본부장 박동민 Director, Dongmin Park dmpark5@kayamedia.com

부장 박재길 Manager, Jaegil Park kmsun88@hanmail.net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Hugh M. Hefner, FOUNDER

U.S PLAYBOY

Ben Kohn, Chief Executive Officer

Cooper Hefner, Chief Creative Officer

Michael Phillips, SVP, Digital Products

James Rickman, Executive Editor

PLAYBOY INTERNATIONAL PUBLISHING

Reena Patel, Chief Commercial Officer & Head of Operations

Hazel Thomson, Intl Licensing Senior Director